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삶은
배움이고**

**배움은
삶인가?**

2020년 9월 1일

아주대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을 시작할 때
외부인 건물 출입이 봉쇄되고
학습관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끈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아침에 이메일로 시민들에게 배달되는
뉴스레터 배우러와~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첫 호를 냈고

이듬해 2월 2일부터는 이메일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콘텐츠의 제작은
관장인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안 들었습니다.
매주 소재를 찾는 것이 힘들었지만
배움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가 이미 했던 말이었습니다.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1호부터 150호까지를 모두 모았습니다.
주옥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들

▶ 유튜브 강의 QR코드 제공

# 1	폐교에서 시작한 새로운 배움터	12
# 2	이금옥 할머니의 연애편지/마을에 화장실이 만들어지기까지	13
# 3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14
# 4	가방을 든 운전기사/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감 교육’	15
# 5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든 습관/가장 친절한 병원 만들기	16
# 6	비틀즈의 성공 비결/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	17
# 7	무학이 성공 비결?/햄버거 대학을 아세요?	18
# 8	머리하는 여자인가, 헤어디자이너인가?/‘시민과학’을 아세요?	19
# 9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총을 맞은 아이/기적의 놀이터는 무엇이 다른가?	20
# 10	권투선수 부적격자 무하마드 알리/예술작품으로 변한 시골 마을의 논	21
# 11	목숨을 걸고 일주일을 걸어서 학교 가는 아이들/ 유대인 학살의 아픈 과거와 맞선 독일	22
# 12	독서광 세종,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당나귀 도서관	23
# 13	대학을 네 번 다닌 환경전문기자/꿈의 도시, 학습도시 브라질 꾸리찌바	24
# 14	수에즈 운하는 성공하고, 파나마 운하는 실패한 사람/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고?	25
# 15	야생소년 빅토르의 운명/타인에게서 배우는 인간	26
# 16	영어 잘하려면 새도잉(Shadowing)하라/반도체 신화를 만든 새도잉	27
# 17	89세의 독서왕 신문 배달 할아버지/독서 경영의 핵심은 책이 아니라 생각?	28
# 18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학습법/행동으로 부딪히면 배움이 오는가?	29
# 19	미안마 소녀 땅자 씨가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왜 프랑스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나?	30
# 20	6남매 모두를 하버드-에일 졸업시킨 비결/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	31

2부

벽을 허무는 사람들

▶ 유튜브 강의 QR코드 제공

# 21	무명의 복싱선수에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안도 타다오	34
# 22	안식년을 즐기는 사장들	35
# 23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자가 되기까지	36
# 24	다산과 추사는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나?	37
# 25	교실화폐를 아시나요?	38
# 26	한국 엄마 미국 엄마	39
# 27	덴마크식으로 살아보실래요?	40
# 28	20대 성격이 70 이후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41
# 29	그라민은행이 여자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이유	42
# 30	기계의 고장도 줄여주는 “감사합니다”	43
# 31	손 씻기를 주장하다 미친 사람 취급받은 사람	44
# 32	수감자에 연간 2,300만 원이나 써야 하나?	45
# 33	타살률이 높은 나라, 자살률이 높은 나라	46
# 34	<시니어 패션반란> 패션이 인생을 바꾸나?	47
# 35	IQ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48
# 36	마의 벽은 어떻게 깨지나	49
# 37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인물이 된다?	50
# 38	우측통행인가? 좌측통행인가?	51
# 39	우리 청소년의 고민은?	52
# 40	<연쇄 창업가> 창업도 하는 사람이 하는 이유	53
# 41	택시회사에서 친절을 배운 병원	54
# 42	나이가 들수록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55
# 43	뽀뽀해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	56



# 44	가족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	57
# 45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는 대화법이 다르다	58
# 46	요리의 달인 강레오 씨가 어떻게 농사의 달인이 되었나?	59
# 47	유치원 교사가 남자아이 이름을 많이 부르는 이유	60
# 48	최민준 씨는 왜 남자아이만 받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가?	61
# 49	대한항공이 비행기 사고 후 영어를 공용화한 이유	62
# 50	구자는 LS엠트론 회장은 왜 집에서 벌을 키우나?	63

3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유튜브 강의 QR코드 제공

# 51	한글 창제를 반대한 최만리를 끝까지 아낀 세종	66
# 52	두 팔 잃은 석창우 씨가 크로키 화가가 되기까지	67
# 53	학비, 교수, 교재가 없는 대학, 에플42	68
# 54	실패가 낳은 걸작 3M 포스트잇	69
# 55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까지	70
# 56	식탁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떠드는 유대인들	71
# 57	세계 정상들과 '맞짱'뜨는 18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72
# 58	달콤한 초콜릿에 숨은 슬픈 이야기	73
# 59	듀폰 회사는 왜 사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발부하나?	74
# 60	공유냉장고를 아세요?	75
# 61	해외의료봉사단이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	76
# 62	잘 나가던 백화점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사표 쓰고 세계여행을 떠난 이유	77
# 63	평생학습도시, 알고 즐기자	78
# 64	왜 119 소방관이 스포츠 멘탈코칭을 배우는가?	79
# 65	무알코올 맥주가 잘 팔리는 이유	80
# 66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정신 건강	81

# 67	매일 매진되는 빵 가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82
# 68	교도소에서 터득한 다이어트법으로 사업에 성공한 마약사범	83
# 69	갓난아이를 버리는 베이비 박스를 없애겠다고 나선 김윤지 씨	84
# 70	남자 전업주부는 행복할까?	85
# 71	장례식을 영화처럼 꾸미는 장례감독을 아세요?	86
# 72	시로 직장인 정신치료를 하는 한국인 회사 스프링 헬스	87
# 73	한국인은 왜 커피를 많이 마시나?	88
# 74	인구 12만 명의 도시에 연 100만 명이 찾는 '천국의 서점'	89
# 75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은 실수의 산물	90
# 76	테니스의 여왕 빌리진 킹이 성 대결에 나선 이유	91
# 77	사람들의 행동을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재미 이론(Fun Theory)	92
# 78	푸드 업사이클링을 아세요?	93
# 79	슈바이처는 왜 30살에 의대에 진학했나?	94
# 80	세계 유일의 똥 박물관은 어디에 있을까?	95
# 81	대학을 중퇴해야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	96
# 82	에스프레소 향기에 반해 커피점을 창업한 사람은?	97
# 83	새를 관찰하기 위해 특별한 지역으로 가야 하나?	98
# 84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99
# 85	미국 대학을 두 번 입학하고, 군대를 두 번 입대한 사람	100
# 86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	101
# 87	보통 사람은 속여도 시각 장애인 안 속이는 이유	102
# 88	건물의 층 높이가 높으면 사람들이 창의적이 되나?	103
# 89	왜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즐기나?	104
# 90	똑똑한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삶을 살까?	105
# 91	드림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106
# 92	조부모의 손주 양육, 좋은 점이 무엇인가?	107
# 93	지금은 미술작품에 투자할 때인가?	108
# 94	담양 죽녹원이 관광명소가 되기까지	109
# 9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 해결법	110
# 96	가장 교육적이지 않은 동화를 쓴 가장 유명한 동화작가	111

# 97	여행이 교육이다	112
# 98	한글 띄어쓰기를 시작하고 현대화시킨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113
# 99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화창조자(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나?	114
# 100	도서관이 달라지고 있어요	115

4부

끝없이 배우는 사람들

 유튜브 강의 QR코드 제공

# 101	3초에 마감되는 대학의 Sex 강의	118
# 102	신참 간호사의 절반이 간호사를 포기하는 이유	119
# 103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교도소 재소자들	120
# 104	학교 폭력을 없앤 '공감의 뿌리' 교육	121
# 105	의료협동조합: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122
# 106	학사, 석사 없이 박사가 된 고졸 동물학자	123
# 107	황혼 이혼은 누가 먼저 요구하나?	124
# 108	행복한 부부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잘 푼다	125
# 109	이모티콘도 동서양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126
# 110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120마리에서 9,800마리로 늘어난 이유	127
# 111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나오는 '책감옥'을 아세요?	128
# 112	대를 이어 완성한, 세상을 바꾼 다리	129
# 113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칠곡 글꼴할매들	130
# 114	1000억 재산이 시 한 줄만 못하다며 모두 기부한 여인	131
# 115	공부방을 없애야 공부가 잘되는 이유	132
# 116	스위스 사람들이 주택 외벽에 사다리를 만들어두는 까닭은?	133
# 117	진주 어른 감장하: 돈은 부리면 거름, 쌓아두면 똥	134
# 118	마약의 도시에서 모범도시로 탈바꿈한 콜롬비아 메데진	135
# 119	플랜테리어 해 보실래요?	136

# 120	금서로 지정되어 저자가 10년간 도피 생활을 한 교육학의 고전	137
# 121	미래는 ‘거꾸로 교실’이 대세라는데~	138
# 122	세계 0.1%가 한다는 울트라 학습	139
# 123	왜 신발은 그토록 다양해지고 있는가?	140
# 124	후회 없는 삶이 가능할까?	141
# 125	3초에 결정된다는 첫인상의 실체는?	142
# 126	코로나 펜데믹은 모두에게 평등했는가?	143
# 127	기억력을 높이는 비결	144
# 128	역사를 만드는 여성 지휘자들	145
# 129	최수의 나라에서 청정 시민국가가 된 곳은?	146
# 130	자신의 몸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의사들	147
# 131	금실 좋은 부부를 만드는 다섯 가지 약	148
# 132	1년에 하루만 공연하는 침묵의 극장	149
# 133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외국인 한국 유학생	150
# 134	21% 파티에 가보시겠어요?	151
# 135	몸이 게으르면 머리가 고생한다	152
# 136	데스카페(Death Cafe)가 왜 확산되고 있는가?	153
# 137	양치질은 언제 시작했을까?	154
# 138	플로 법칙: 어려운 일을 해야 행복하다	155
# 139	자녀들과 여행할 때 부모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	156
# 140	한국말로 한국 가곡을 부르는 미국 음대 교수	157
# 141	학폭 재발률을 제로로 만든 곳	158
# 142	사흘만 볼 수 있다면	159
# 143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160
# 144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가져갈 단 세 권의 책은?	161
# 145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162
# 146	악곡에서 악도 팔고 책도 파는 악곡 서점	163
# 147	나이 들어 대학 다니는 만학도가 늘고 있다	164
# 148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올림픽이 있다는 걸 아세요?	165
# 149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평가를 왜 타이어 회사에서 할까?	166
# 150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 그리고 언제든학교	167

배우러 **와** 총모임집

1부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들**

폐교에서 시작한 새로운 배움터

폐교에서 시작한 새로운 배움터

1980년 봄 5개 학급으로 문을 연 연무중학교(수원시 우만동 소재)는 한때 36학급 규모로 커졌으나, 저출산과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감했다. 급기야 2008년 2월에는 26회 졸업생 221명을 배출하며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연무중학교라는 이름과 역사는 광고신도시로 옮겨졌지만, 학교 건물과 부지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이에 수원시는 학교 부지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공간과 어린이들을 위한 외국어 마을로 활용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배움터를 만들었다. 수원시는 2008년부터 교육청과 논의를 시작한 뒤 총 350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이렇게 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수원시 외국어 마을이 2011년에 탄생하였다.

아주대학교가 새로운 운영 주체로 도약 준비

9년 동안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 마을은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며, 수원시민의 학교 외 학습을 맡아왔다. 2017년 수원시가 유네스코로부터 ‘학습도시상’을 받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제 그 발판 위에서 도약을 하기 위해 금년 9월 1일부터 수원시 최초의 종합 대학인 아주대학교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 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아주대학교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수원시민의 행복도를 반올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며, 비대면 시대에서도 앞서가는 평생교육을 만들어 낼 것이다.

경영학박사, 인적자원 전문가가 관장에 부임

아주대학교 1회 졸업생이면서,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한 바 있는 조영호 아주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경영학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전공하고 있으며, 학회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지역사회와도 다양한 활동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 마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평생학습관과 수원시외국어마을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21.5.12. 두 기관이 정식으로 통합되어 ‘수원시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재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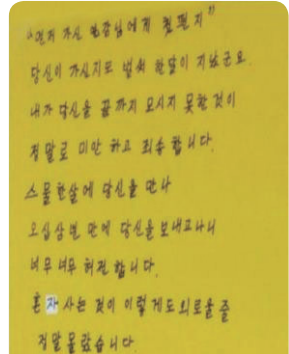
· 이금옥 할머니의 연애편지 · 마을에 화장실이 만들어지기까지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이금옥 할머니의 연애편지

부산시 남구 우암동에 사시는 이금옥 할머니는 60이 넘어 한글을 깨쳤다. 이금옥 할머니가 그 한글로 처음 쓴 긴 글은 먼저 떠난 남편에게 쓴 연애편지였다. 할머니 연세 71세였다. 할머니는 한글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마을에 화장실이 만들어지기까지

2000년 방글라데시의 모스모일(Mosmoi)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색다른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 마을은 화장실이 없어 사람들이 노천에서 일을 보기 때문에 위생이 엉망이었다. 정부에서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고 시설을 공급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 보았다. 마을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스스로 분석을 하게 하고, 자원자를 모집하여 화장실을 하나씩 건설해나갔다. 그랬더니 마을 모두가 바뀌었다. 이때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퍼진 ‘공동체주도의 전체위생’(CLTS: Community-led Total Sanitation)이 탄생했다.



한글을 갖 배운 부산의 이금옥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노란 종이 위에 꼭꼭 눌러쓴 연서 한 장.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편지 일부, 부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는 사람만 알아서 찾아오는 수원 의 숲은 보물, 수원시평생학습관 도서관보다 소란하고 카페보다 조용한 나의 서재(書齋), 나의 Agora”
- 손선희,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 후기에서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논어

•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 •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

1910년 3월 26일 중국 뤄순(旅順)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실 당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라는 일본 관리의 물음에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라 말씀하시고 읽고 있던 책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읽으신 후 담담히 형장으로 들어가셨다.

“일일불독서 구중생형극(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족자. 안중근 의사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글을 1910년 2월과 3월 사이 중국 뤄순 감옥에서 씀.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1993년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외쳤던 삼성그룹의 신경영은 하나의 교육운동이었다. 이견희 회장은 1993년 6월부터 8월 사이 연인원 1,800명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일본 동경 등으로 불러 직접 강의를 하였다. 8월 이후에도 12월까지 국내에서 사장단과 임원 597명, 과·부장 520명, 사내강사 427명을 직접 교육했다. 그 후 ‘삼성인의 용어집’, ‘신경영 실천 가이드’, ‘지행 33훈’ 등 책자를 펴내 전 그룹 사원들을 어마어마하게 교육하였다. 그 결과 삼성의 조직문화가 변화되었으며,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견희 회장은 향년 78세의 나이로 2020년 10월 25일 별세하여 수원 선영에 묻혔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글쓰기는 생활이며, 기록하고, 전달하고, 표현하고, 나누어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 양창주,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 후기에서

“처음 책을 읽을 때는 한 사람의 친구와 알게 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난다.”

- 중국 격언

• 가방을 든 운전기사

•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감 교육'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가방을 든 운전기사

정신문 씨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4년을 중퇴한 그는 렌터카 회사에서 기사로 일했다. 그는 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 연수원에 강사를 모시고 다녔다. 그러나 여느 운전기사와 달리 그는 강사가 강의하는 동안 양해를 구하고 강의실 뒷좌석에 앉아 강의를 들었다. 그것도 꼬박 꼬박 메모를 하며 말이다. 그러다 갑자기 핑크를 낸 강사를 대신하여 강의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진짜 강사가 되었다. 이러한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가방을 든 운전기사'(정신문 저, 서지원, 1997)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감 교육'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 2020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은 153개 국가 중 61위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50대를 기록했는데 후퇴한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계속 수위를 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덴마크는 어린아이들에게 '공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는 1993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6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반도록 하고 있다. 'Klassens tid'라고 불리는 덴마크의 공감 교육은 그리 복잡한 게 아니다. 상대방 감정을 읽어주고, 해결책을 함께 나누는 훈련이다. 언론과 교육학자들은 이 공감 교육이 덴마크인을 행복하게 만든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행복은 사소한 일에서 곧바로 즐거움을 알아채는 것이다."

- 휴 월폴(뉴질랜드 소설가)

"누구나, 무엇이냐, 어디냐'는 '누구나학교'의 선언문이다. 자유롭게 배움과 지식을 나누는 '누구나학교'는 시민 모두가 만드는 배움터다. 밥알 하나는 작지만 뭉치면 밥 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거창한 배움이 아니라 나만의 주제로 소소한 삶의 지혜를 나누면 된다."

- 이명선,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 후기에서

•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든 습관 • 가장 친절한 병원 만들기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든 독서습관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다수 득표를 한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후보는 승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한 리더였다. 선거에서 대립했던 정적까지 끌어안고 협치를 한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러한 링컨에 대한 존경심을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통나무집에서 살았고, 9세 때 어머니도 잃었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링컨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었고, 그는 책 한 권을 빌리기 위해 먼 길을 오갈 정도로 독서에 흥미를 느꼈다. 링컨은 어렸을 때 다진 독서습관으로 독학을 해 27세에 변호사가 되었고 결국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가장 친절한 병원 만들기

1982년에 경상북도 안동에 세워진 안동병원은 어려움이 많았다. 설립자 강보영 이사장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책방에서 우연히 일본 MK택시에 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재일교포 유봉식 씨가 운영하는 일본 교토의 MK택시 성공비결은 친절이었다.

강보영 이사장은 '이거다' 싶었다. 그리하여 1992년부터 안동병원의 직원들이 택시회사에 가서 해외연수를 받게 되었다. 의사, 간호사, 기사, 행정직 모두 말이다. 처음에는 병원의 전문직이 택시회사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나, 그 저항은 금세 사라졌다. MK가 그만큼 수준 높은 회사였기 때문이다. 안동병원 직원 해외연수는 201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제는 MK정신을 탐구하는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안동병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가장 친절한 병원'으로 평가받았으며, 한국의 병원문화를 개선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뚝뚝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

-탈무드

“뜨개질은 처음 해 보는 거였지만, 내가 뜯 작은 모자가 어린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잘 배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흔히 남자들은 뜨개질을 잘 못 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도조차 안 하려 하는데, 남자라도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 공준택,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 후기에서

• 비틀즈의 성공 비결

•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비틀즈의 성공 비결

1960년에서 70년까지 활동한 영국 리버풀 출신의 4인조 록밴드 비틀즈(Beatles). 그들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레전드다. 빌보트차트 1위에 오른 곡이 무려 20곡이나 된다. 4인조 멤버인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그들의 천재성으로 그런 큰 업적을 쌓았을까?

무명의 고등학교 록 밴드였던 1960년에 비틀즈는 독일 함부르크의 한 클럽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거기서 일하게 되었다. 급여가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무대가 훌륭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관객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들이 누린 것은 엄청난 시간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루에 여덟 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연주하고 실력을 갈고닦았다. 그 뒤 영국으로 돌아온 비틀즈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1964년부터 히트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했던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했던가?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

1941년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부임해온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는 이곳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다. 회사를 설립했는데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이었다. 처음 '울고'로 출발한 협동조합은 '몬드라곤(Mondragon)'으로 발전했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1인 1표이고 이윤이 아니고 고용 창출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자본주의 대안으로 출현한 여러 기관이 사실 많이 실패를 했다. 그러나 몬드라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제 몬드라곤은 협동조합 그룹이 되어 제조, 유통 금융,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260개 협동조합과 8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몬드라곤의 비결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노력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바로 이러한 협력심이 우리의 막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 후안 마누엘 몬드라곤 노동금고 대표

• 무학이 성공 비결? • 햄버거 대학을 아세요?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무학이 성공 비결?

파나소닉으로 개명한 옛 마쓰시다전기의 설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1994-1989)씨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마쓰시다전기를 세계적인 가전업체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과의 관계, 노사관계를 훌륭하게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 비결이 무엇이나는 직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허약한 것이고, 셋째는 무학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부지런히 일을 했고, 몸이 약골이라 항상 건강에 유념했으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배우려 했지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정말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겸허하게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었다. 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일본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정치학교를 설립하여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도 했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햄버거 대학을 아세요?

1955년 미국의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맥도날드는 세계 제일의 외식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미국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 120개국에 3만 7천 개의 매장이 있고, 매일 찾는 고객 수만 7천만 명에 이른다. 맥도날드에서 파는 식품은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패스트푸드이다. 그런데 어떻게 맥도날드가 다른 경쟁자를 이기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교육이다. 맥도날드는 이미 1961년 ‘햄버거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했다. 기업이 스스로 직원들을 교육한다는 생각이 거의 없을 때였다. 맥도날드는 직원뿐만 아니라 가게를 열려고 하는 점주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햄버거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햄버거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햄버거 만드는 사람’이라 한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맥도날드 가게에서 단지 패스트푸드가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QSC&V)라는 맥도날드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넓게 보고 타인에게 길을 물으면 길을 잃는 법이 없다.”

- 마쓰시타 고노스케

• 머리하는 여자인가, 헤어디자이너인가? • '시민과학'을 아세요?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머리하는 여자인가 헤어디자이너인가?

주노헤어의 회장 강운선 씨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돈벌이를 해야 했다. 기술학교에서 미용을 배워 20살에 미용실을 차렸다. 그러나 그녀는 여느 미용사가 아니었다. “미용사는 좋은 직업인데 왜 우리가 천대를 받아야 할까? 왜 우리는 머리하는 아줌마로 취급되어야 할까?” 하고 고민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영국의 비달사순아카데미를 찾았다. 집을 팔아 마련한 1억5천만 원을 가지고 직원 15명과 함께 비달사순아카데미로 유학을 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는 비달사순의 교육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여 ‘머리 만지는 사람’을 ‘헤어디자이너’로 탈바꿈시켰다.

주노헤어는 청담동에 멋진 건물이 있으며, 전국에 150개의 매장과 직원 3천 명을 거느린 우리나라 최대의 미용 업체이다. 직원 중에는 역대 연봉을 자랑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시민과학’을 아세요?

박쥐를 연구하는 ‘시티벳’이라는 연구단(재단법인 숲과 나무 지원)이 있다. 여기에는 진짜 과학자도 있지만 28명의 시민이 주축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도 ‘시민과학자’라 불린다. 시민과학자들은 9팀으로 나뉘어서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박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시민과학자들은 도시 개발로 서울에서는 박쥐가 거의 사라졌지만 천호대교 주변과 한강 변에는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희귀종인 줄망박쥐를 발견한 것은 상당한 성과였다.

이제는 과학도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2000년대 초에 등장한 ‘시민과학’이 어느 사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지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만약 당신이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생애에 적어도 한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깊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르네 데카르트

“어머니 가르침: 1. 정직해라, 2. 형제간에 잘 협력해라, 3. 남하고 싸우지 마라.

아버지 가르침: 1. 정직해라, 2. 부지런해라, 3. 공부 열심히 해라.”

- 이민우(89세) 씨의 그림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청춘미술대전 우수상(치매미술치료협회 제공)

•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총을 맞은 아이 • 기적의 놀이터는 무엇이 다른가?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총을 맞은 아이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역사 시험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탄 ‘말랄라’와 그의 친구들 앞에 청년 2명이 나타났다. "말랄라가 누구냐?" 하는 고함 소리가 났다. 함께 있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말랄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버스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말랄라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여자아이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가까운 파키스탄의 북부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지역의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이 학교에 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랄라 아버지는 말랄라를 학교에 보냈다. 이에 대한 탈레반의 방해 행위는 점점 심해졌다. 말랄라는 BBC 방송에 이런 현실을 알리는 글을 실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탈레반 청년이 말랄라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다.

요행히 생명을 건진 말랄라는 아동교육을 위한 인권운동가가 되었다. 그가 17세인 2014년,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기적의 놀이터는 무엇이 다른가?

전남 순천에 가면 ‘기적의 놀이터’라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2016년에 조성된 ‘엉뚱발뚱’이란 이름의 놀이터에는 그 흔한 미끄럼틀도, 그네도, 시소도 없다.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상하수도관 위로 잔디가 덮인 언덕,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옛날식 펌프와 얇은 개울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놀이터엔 평일엔 200여 명, 주말엔 600여 명의 어린이가 찾았다.

기적의 놀이터는 어른 전문가가 만든 놀이터가 아니다. 어린이 200명이 기획단으로 참여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놀이터는 ‘위험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고 부수고, 함께 부대끼고 노는 장소여야 한다고들 생각했다. 기적의 놀이터는 만드는 과정이 학습이었고, 놀이터 자체가 학습공간이 되었다. 순천은 2019년 말까지 모두 4개의 기적의 놀이터를 더 만들어 이제 총 5개가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하나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교육이 먼저입니다.”

- 말랄라 유사프자이, 2013년 7. 12. 유엔 연설, 당시 16세

• 권투선수 부적격자 무하마드 알리

• 예술작품으로 변한 시골 마을의 눈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권투선수 부적격자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는 복싱선수로서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주먹 크기, 팔 길이 그리고 펀치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못했다. 그가 프로로 전향한 후 경기를 가진 당시 헤비급 챔피언 소니 리스턴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했다. 도박사들은 1964년 두 사람의 경기를 7:1이나 8:1로 리스턴의 일방적인 승리를 점쳤다. 그래서 경기장은 반밖에 차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리스턴의 전설적인 주먹은 맥을 추지 못했다. 경기는 6회 후 리스턴의 기권으로 끝났다.

이렇게 시작된 알리의 권투는 곧 전설이 된다. 1960년부터 81년까지 21년의 선수 생활을 통해, 57승 37KO승, 5패의 기록을 남겼고, 통산 19차 타이틀 방어, 세 차례 헤비급 챔피언 등극이라는 대기록을 남긴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알리는 권투선수로서 약점이 많았지만, 그 약점에 연연하지 않고, 남이 갖지 못한 자신만의 강점을 갈고 다듬었다. 민첩함, 유연성, 그리고 두뇌 플레이 능력이 그의 강점이었다. 모두가 펀치력을 키우고 있을 때 그는 풋워크로 피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학습했다. 모두가 난타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심리전을 연구하고 배웠다. 그 결과 ‘나비같이 날아 벌같이 쏜다.’는 알리식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예술작품으로 변한 시골 마을의 눈

일본의 본 섬인 혼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 그곳에 인구 17만 정도가 사는 히로사키시가 있다. 여기서는 벼가 자라는 논이 한 폭의 그림이다. 노령화로 침체되고 있는 시를 살리기 위해 1993년부터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논에 다양한 색깔의 벼를 심어 벼가 자라면서 그림으로 변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주민들은 탄보아트(田んぼアート: 논예술)이라 부른다. 매년 주제를 선정해 그에 맞는 그림을 ‘재배’한다. 이 지역이 일본에서 북방 벼농사의 발상지라는 역사성도 활용했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학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해냈다. 그 덕분에 히로사키시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이 주범이다.”

- 무하마드 알리

“우리 누구도 우리 모두보다 현명하지 못하다.”

- 켄 블랜차드, 리더십 연구가

• 목숨을 걸고 일주일을 걸어서 학교 가는 아이들

• 유대인 학살의 아픈 과거와 맞선 독일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목숨을 걸고 일주일을 걸어서 학교 가는 아이들

인도 서북쪽, 해발 5천 미터 고지에 있는 오지 '잔스카' 마을. 이곳 아이들은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2월이면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그들은 학교가 있는 '라다크 레'까지 절벽을 타고, 강을 건너서 꼬박 일주일을 목숨을 걸고 걸어야 한다. 보통 때는 강물을 건널 수가 없어 꽁꽁 얼어있을 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3형제 중 유일하게 학교에 가게 된 다카르, 마을 친구 켄랩도 함께 간다. 이들은 10살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아버들이 나선다. 아버들은 먹을 음식과 침낭을 싸서 짊어지고 간다. 아버가 없는 앙두는 73세인 할아버지가 동행한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맨살로 강을 건너는 앙두의 할아버지는 혼자 걷기도 힘든데 짐을 옮기고, 손자도 건네야 한다. 이들은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따뜻하게 잘 수도 없다. 웃이 해지고 동상이 살을 뚫는다.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어른들은 서둘러 왔던 길을 밟아 돌아온다. 늦으면 강물이 녹아 귀가 가 불가능해진다. 학교에서 일 년을 보낸 아이들은 강이 다시 어는 겨울에 히말라야 마을로 돌아온다. 잔스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반복하는 것일까? 그들은 말한다. “배워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KBS 파노라마에서, 2014. 4. 17 방영>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유대인 학살의 아픈 과거와 맞선 독일

나치 시대 독일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600만의 유대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독일은 이런 자신의 치부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홀로코스트는 과거의 일이고 특정 집단이 저지른 일이라고 발뺌하지도 않았다. 독일은 사과하고 또 사과했고,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교육했다.

독일은 주변국과 공동으로 역사를 조사하고 사실을 밝히며,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역사교육을 하였고, 모든 학살 현장을 기념관 화하고 끌려간 양민들의 집 앞 보도에는 그들의 이름을 새겨 시민들이 일상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게 했다. 편견과 증오가 없는 새로운 독일을 학습을 통해 구현해 간 것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 조지 산타야나(스페인 출신의 미국 철학자)

• 독서광 세종,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당나귀 도서관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독서광 세종,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이었다. 밥 먹을 때도 아플 때도 책을 읽었다. 어린 세종이 너무 책에 빠져 있어 그의 건강을 염려한 아버지 태종이 “너는 왕이 될 사람인데 어찌 건강을 돌보지 않고 책만 보고 있느냐?”며 야단을 치며, 신하들에게 세종의 방에서 모든 책을 치우라고 명했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고맙지만, 세종은 책 없는 삶을 살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이런~’ 병풍 뒤에 책이 한 권이 남아있질 않는가. 세종은 이 책을 숨겨두고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 “읽은 책도 여러 번 읽으니 새로운 깨달음이 있구나.”

세종의 독서습관은 그가 왕으로 살아가는 30년 동안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 결과 그는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문학, 농학, 의학, 음악 모든 영역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다. 심지어는 과학기술에서도 말이다. 일본 도쿄대의 이토 준타로 연구팀이 1983년에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에는 ‘C4 J0 K21 O19’라는 암호 같은 구절이 있다. 여기서 C는 China, J는 Japan, K는 Korea, O는 Others를 뜻하며, 뒤의 숫자들은 15세기 초엽부터 중엽까지 세계적으로 눈여겨볼 과학적 성취 건수를 의미한다. 대국 중국이 4건이고, 일본이 0건인데, 한국이 29건! 놀라울 뿐이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당나귀 도서관

남미 콜롬비아의 초등학교 교사 루이스 소리아노(Luis Soriano) 선생님은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읽을 책도, 도서관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는 당나귀 두 마리를 구해 그들 등에 책을 싣고 주말과 학교 일이 없는 날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당나귀의 이름도 있다. 첫째는 알파고, 둘째는 베토이다. 합쳐서 알파베토. 당나귀 두 마리와 소리아노 선생님은 길을 나서면 왕복 10Km 정도 되는 산간 벽촌으로 간다. 자동차도 쉽게 가기 어려운 길이라 당나귀가 안성맞춤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그리고 움직이는 도서관인 ‘당나귀 도서관(Biblioburro)’이다. 1997년에 책 70권으로 시작한 당나귀 도서관은 그 후 기증을 받아 책이 수천 권이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百讀百習(백번을 읽고 백번을 쓴다).”

- 세종, 세종실록 “우리 누구도 우리 모두보다 현명하지 못하다.”

• 대학을 네 번 다닌 환경전문기자 • 꿈의 도시, 학습도시 브라질 꾸리찌바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대학을 네 번 다닌 환경전문기자

MBC 걸프전 중군 기자로 일했던 박수택 기자는 특이한 점이 많다. 그는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 남은 출장비를 회사에 반납했으며, 회식 자리도 2만 원이 넘는 자리는 가질 않았다. 그가 SBS 1기로 자리를 옮겨 환경 전문 기자가 되었다. 그는 평생 현장에서 뛰는 기자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노조위원장까지 지냈다.

박수택 기자는 대학을 여러 번 다녔다. 원래 전공이 경영학이어서 경영학과를 나왔다. 그리고는 직장생활을 하며 방송통신대에서 중국어를 새로 공부했다. 중국어과를 졸업한 후엔 환경보건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또 관광학과도 다녔다. 경영학, 중국어, 환경보건학, 관광학, 그는 학사 학위만 4개다. “하나를 했으면 박사도 하고 남겠다.”는 친구들의 지적에 그는 말한다. “기자는 넓게 알아야 해! 그렇지만 제대로 알아야지.” 그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야무지게 비판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논설위원이 되어 현장 취재를 못 하게 되었고, 방송사를 나오게 되었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꿈의 도시, 학습도시 브라질 꾸리찌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해안 길로 400Km쯤 남쪽에 위치한 꾸리찌바(Curitiba)시. 그곳에서는 시민들이 원통으로 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요금을 미리 계산하고, 편하게 기다리다가 버스를 탄다. 사실 별로 기다릴 필요도 없다. 2분마다 버스가 오기 때문이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탄다고 해도 요금은 한 번만 내면 된다. 그래서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지하철은 없지만, 버스가 편리하니 시민들 4분의 3이 버스를 이용한다.

쓰레기는 시민들이 치운다.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쓰레기를 가져오면 버스 쿠폰을 주거나, 식자재가 담긴 봉투를 준다. 식자재는 농민들을 위해 시가 구입해 놓은 잉여상품이다. 꾸리찌바 시민의 70%가 쓰레기 운반에 동참하고 있다. 이 비율을 따라갈 도시가 없다. 선진시민의식을 자랑하는 독일도 30%에 불과하다. 꾸리찌바는 가히 세계 최고의 친환경도시이며, 가장 선진적인 인간중심 도시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기자는 ‘시서유소납노소’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야 한다. 기자는 시민, 서민, 유권자, 소비자, 납세자, 노동자, 소외자를 위해, 즉 1%가 아닌 99%를 위해 싸워야 한다.”
- 박수택, 전 SBS 기자



• 수에즈 운하는 성공하고, 파나마 운하는 실패한 사람 •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고?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수에즈 운하는 성공하고, 파나마 운하는 실패한 사람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이 운하를 뚫음으로써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만800Km의 뱃길이 8,320Km로 단축되었다. 파나마 운하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Ferdinand de Lesseps)에 의해 계획됐다. 레셉스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사람이었다. 비슷한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는 파나마 운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7년 내 개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는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았다. 7년은 고사하고 9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레셉스의 회사도 파산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간 동안 2만 7천 명이나 되는 인부들이 사망한 것이다.

레셉스가 수에즈 운하 건설을 통해 배운 기술은 파나마 운하 건설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수에즈 운하는 평지에서 공사해야 했으나, 파나마 운하는 높은 산을 넘어야 했다. 수에즈 운하는 사막 지역이라 토목공사가 쉬웠는데 파나마 운하를 파는 토목공사는 딱딱한 흙과 강한 바위와 싸워야 했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고?

에임스(Ames)라는 할인점 매장은 1958년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에서 출발했다. 소도시와 농촌에서 공장형 할인점을 개척한 것이다. 방직산업이 지고 소매업이 뜨는 새 시대를 그들은 미리 내다 보고 있었다. 샘 월튼(Sam Walton)이 아칸소주에서 월마트를 시작하기 10년 전이었다.

승승장구하던 에임스가 1980년대 중반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는 시끄러웠고, 매출액이 떨어졌다. 결국, 이 회사는 2002년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말았다. 캐나다의 대니 밀러(Danny Miller) 교수는 그래서 성공의 역설을 이야기했다.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 이러한 현상을 '이카루스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성공은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

- 대니 밀러, 캐나다 경영학자

• 야생소년 빅토르의 운명

• 타인에게서 배우는 인간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야생소년 빅토르의 운명

1800년, 프랑스 남쪽 지방의 아베롱(Aveyron) 계곡에서 야생 상태의 한 아이를 잡게 되었다. 그는 12세 정도로 추정되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야생에서 홀로 자란 아이는 몸은 날렵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그에게 이목을 집중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인간의 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그가 언어만 좀 배운다면,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이다. 그를 농아 학교에 보내 말을 가르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인간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그를 다시 야생으로 보낼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을 때 장 이따르(Jean Itard)라는 의사가 나서 그를 끝까지 돌보았다. 그가 겨우 '오' 자에 잘 반응하여 이름을 빅토르(Victor)라고 지었고, 글자와 발음을 익혔다. 다소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결코 제대로 된 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빅토르는 40세에 사망했다.

빅토르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인간사회를 벗어난 인간의 존재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타인에게서 배우는 인간

사람은 어떻게 배우게 될까? 1950년대까지는 부모들의 상과 벌에 의해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했다. 동물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 배우는 것처럼 말이다. 스탠포드 대학 반두라(Albert Bandura) 교수는 여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 반두라 교수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한 그룹에서는 보보인형이라고 하는 오투기 형태의 풍선 인형을 어른이 망치로 치고, 집어 던지고 하는 영상을 보게 했다. 다른 그룹에서는 보보인형을 암전히 다루는 어른의 모습을 보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장난감만 가지고 놀게 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 보보인형을 가지고 놀게 했다. 거기에는 장난감 망치와 총 등이 같이 있었다. 폭력적인 영상을 본 아이들은 보보인형을 거칠게 다루었다. 영상에서 본 어른보다 더 거칠게 말이다.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보보인형을 암전하게 다루었다. 이것이 모방 학습이고, 사회적 학습이다.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이는 시사점이 크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마신다.”

- 한국 속담



• 영어 잘하려면 새도잉(Shadowing)하라

• 반도체 신화를 만든 새도잉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영어 잘하려면 새도잉(Shadowing)하라

"해외파 친구들과 비교되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저 꾸준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죠." 해외 체류 경험이 전무한 하태경(서울대 경영학과 1년)씨는 고1 때 세계영어교류협회 주최 대한민국 학생영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자'는 주제 아래 직접 글을 바탕으로 연설하는 행사였다.

하 씨는 "영어 말하기는 알리려는 내용 못지않게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열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발음과 억양 실력'이기 때문. 그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평소 독해 문제를 풀 때마다 지문을 소리 내어 읽었다. 듣기 공부를 할 땐 문장을 하나씩 따라 읽는 일명 '새도잉(shadowing)' 기법을 활용했다. 특히 이 단계에선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강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토플(TOEFL) 리스닝 교재가 큰 도움이 됐다. <조선일보, 2012. 12. 26>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반도체 신화를 만든 새도잉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는 고집적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 분야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들을 만나 보아도 시원스럽게 답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 1982년 말 동경으로 건너가 심사숙고한 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고집적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다!" 1983년 2월의 선언이었다.

삼성의 참모들은 그때부터 자금을 마련하고,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다. 고급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인원충원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회사를 차리고, 재무과학기술자를 비롯한 동양인 엔지니어 32명을 뽑았다.

삼성에서는 국내에서 우수한 인재 32명을 뽑아 미국으로 보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그림자처럼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1:1로 기술을 배워왔다. 그 결과 1메가 DRAM과 4메가 DRAM은 미국팀과 경쟁에서 이겨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외국어는 얼마나 꾸준히 집중적으로 반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심겹기 짝이 없는 말이지요. 어느 외국어건 하루 13~15시간씩 6개월에서 1년만 지속적으로 들으면 누구나 귀가 뜨입니다."

- 최정화, 외국어대 통역대학원 교수, 한국인 최초 국제회의 통번역사

• 89세의 독서왕 신문 배달 할아버지

• 독서 경영의 핵심은 책이 아니라, 생각?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89세의 독서왕 신문 배달 할아버지

2014년 8월 7일 SBS의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한 오광봉 할아버지는 82세의 나이인데도 새벽바람을 쐬면서 신문 배달을 하고 계셨다. 그 연세에 신문 배달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는 신문 배달을 마친 후엔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 보낸다 하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 배달을 통해 한 달에 번 돈 50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20만 원은 책값으로 쓴다고 했다.

오광봉 할아버지가 읽는 책은 쉬운 책들이 아니다, 몽테뉴의 '수상록', 스티븐 핑거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같은 무게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책을 사서 읽다 보니 책이 집안에 쌓여 문제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부산 사하구 감천동 아미성당에서 도움을 주어 2018년 4월 23일 북카페를 열게 되었다. 책이 무려 3,300권이냐 되었다. 89세가 된 지금도 그는 신문 배달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책 읽는 것도 계속하고 있다. 일하는 것이 즐겁고 또 책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독서 경영의 핵심은 책이 아니라, 생각?

천연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빌리브네이처(회사 이름은 '잘론네츄럴')는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 소규모회사이다. 이 회사의 주영 사장은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독서 경영을 해보고 싶었다. '우리 같은 소기업에서도 이런 것이 될까?' 하고 걱정을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독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주영 사장은 매달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필독서 한 권을 정해 읽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도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건 아니다. 책은 건성으로 보아도 좋으니 책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다. 이게 필수다. 그래서 독서보다는 토론에 방점이 주어진다. 빌리브네이처의 독서 경영은 '책을 매개체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니 직원들이 어느 사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이 회사의 독서 경영은 언젠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책 안 읽는 당신, 정신이 가난하구먼!"

- 오광봉, 신문배달원, 오광봉 북카페 지킴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학습법

• 행동으로 부딪히면 배움이 오는가?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학습법

2015년 10월 우리나라 대기업 홍보담당자들의 모임인 한국CCO클럽에서 한국 최고의 기업인 어록이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했다. 1위가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였고, 2위가 이견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3위가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였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행동지향적인 기업가였으며 온몸으로 삶을 사셨던 분이다. 현재 북한 땅인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하였으나 농촌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출을 시도했다. 그것도 네 번이나 말이다. 부기도 배우고, 부두하역도 하고, 쌀가게 배달도 하다가 자동차 수리소를 인수하여 사업이란 걸 하게 되었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급기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주역을 맡았다. 그리고는 국산 차 개발에 도전했고, 조선업에 뛰어들었다, 조선소를 짓기 위해 부지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울산의 미포만이 담겨있는 지도를 들고 영국 바클리스 은행 측을 만났다. "조선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지갑에서 500원권을 꺼내 뒷면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을 보이면서 정 회장은 "우리는 이미 영국보다 300년 전,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었던 기술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이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행동으로 부딪히면 배움이 오는가?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도 휴대폰만 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앱을 찾아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 그런데 다른 면에선 유식한 어른들 중에는 휴대폰의 새로운 기능을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몇 번 해보고는 "안 된다" 하고 돌아서는 분이 많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이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해보는 데 비해, 어른들은 배운 것을 기억해서 그것만 좇아가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이며, 해보는 것이고 경험이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학습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함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주장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진정한 학습은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온몸으로 느껴져야 한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그 자체다. (Education is not for preparation for life: education is life itself.)"

- 존 듀이, 미국의 교육철학자

• 미얀마 소녀 핑자 씨가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

• 왜 프랑스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나?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미얀마 소녀 핑자 씨가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

미얀마의 고도이자 내륙의 중심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태어난 카인 핑자(KHAIN TIN ZAR: 한국명 '진주') 씨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그의 아버지가 앞으로는 한국이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한국어를 배워두면 쓸모가 많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한국어 관광가이드도 하고 대사관에서 통역도 했다. 그리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여 일도 하였다. 그러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17년 아주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그리고 나니 또 욕심이 생겨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이번에는 이화여자대학 경영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핑자 씨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첫째는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다. 둘째는 시스템적으로 치밀하게 일하는 것을 많이 배웠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산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왜 프랑스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나?

샤를로트는 K팝이 좋아서, 디나는 한국 TV를 보고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동하여, 그리고 한국 입양 아인 안-리즈는 부리를 알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다. 파리에서 TGV로 두 시간쯤 대서양 쪽에 위치한 낭트(Nantes)시의 낭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수원시평생학습관 '글로벌 누구나학교'에 출연하여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저마다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은 조금씩 다른 이유를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취업보다는 '좋아서', '우리와 많이 달라서' 배운다고 했다.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졸업생인 전현주 교수는 2014년부터 낭트에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처음에는 미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미술학교와 낭트대학교에서 동시에 가르친다. 2020년 9월에는 낭트대학교에 대학학위(DU: diplôme universitaire) 과정의 '한국언어문화예술학과'를 만들었다. 2년제이고, 중복배속이 가능하며, 학부 학생, 대학원 학생이 모두 들을 수 있다. 1기 학생이 36명인데 1명 빼고 다 여학생이다. 그리고 프랑스에 입양 온 한국인도 4명이 있다. '누구나학교'에 출연한 7명의 프랑스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뺨에 대고 인사를 하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한국에서는 신기한 게 뭐를 표현하고 싶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맛집 같은 걸 프랑스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는, 은, 이' 같은 표현은 프랑스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 오디, 프랑스인, 유튜브 BDOA채널



• 6남매 모두를 하버드·예일 졸업시킨 비결

•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6남매 모두를 하버드·예일 졸업시킨 비결

첫째 딸 고경산: 하버드 졸, MIT 이학박사, 중앙대 교수; 둘째 아들 고경주: 예일대 의대졸, 하버드 부학장 거쳐 2009 오바마행정부 보건부 차관보; 셋째 아들 고동주: 하버드졸, 하버드와 MIT 공동 의학박사, 철학박사; 넷째 아들 고흥주: 하버드졸, 하버드 법학박사, 2009 미 국무부 법률 고문; 다섯째 딸 고경은: 하버드 법학박사, 예일대 석좌교수; 여섯째 아들 고정주: 하버드대 졸, 미술가. 이렇게 6남매 모두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 전해성 씨가 가정교육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1996년 초판, 2009년 개정). 전해성 여사가 남다른 지식을 길러낸 비결은 무엇일까? 무슨 영재교육법이라도 있는 걸까?

우선 부모가 당연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남편과 자신이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학업을 마치고 남편이 외교관으로 생활하였는데 항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았다. 전해성 씨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많은 아이를 가르면서도 박사학위를 두 개나 땀다.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

하브루타(chavruta)는 유대인말로 우정, 동료로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짚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유대인 특유의 교육법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는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가 좀 자라면 식사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질문하고 답변한다. 그리고 자녀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동화를 들려주면서 대화를 나눈다. 아이가 암기와 이해를 잘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종일거리는 것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질문으로 파고드는 사람은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을 반쯤 얻은 것과 같다."

-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철학자, 정치인

배우러
와 총모임집



2부

벽을 허무는 사람들

무명의 복싱선수에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안도 타다오



가정 형편도 뒷받침되지 않았고

공부에 취미를 갖지도 못했던 그는 재미로 복싱을 시작했다. 한 달 만에 프로선수 자격을 따고 해외 원정까지 다녀오며 세계 챔피언의 꿈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 챔피언 하라다 선수의 경기를 보고는 권투를 접었다. 하라다에 비하니 자신이 너무 부족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만드는 것에 취미가 있던 그는 공사장 일을 하며 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땅히 물어볼 선배도 없고 하여 책으로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건축학과 교과서를 사서 공부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헌책방에서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책을 발견했다. 그는 그 책을 속에 있는 건축도면을 외울 정도로 보고 또 보았다.

그는 유럽의 건축을 직접 보고, 르 코르뷔지에를 만날 작정을 하고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유럽으로 갔다. 꿈에 그리던 ‘사보아 주택’과 ‘롱샹 성당’ 등을 보았으나 르 코르뷔지에는 만나지 못했다. 그가 파리에 도착하기 직전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건축가가 되었으며 데뷔작 ‘스미요시 나가야 주택’을 선보인 이후, ‘빛의 교회’ ‘나오시마 섬 미술관’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다. 그의 이름이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1941~)’. 그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1995년 수상)뿐만 아니라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그의 건축은 콘크리트가 그냥 노출되어 있어 알아보기 쉽다. 콘크리트 그 자체가 구조물이고 장식물이다. 인테리어가 따로 없다. 극도의 단순화를 추구한 반면, 강한 빛을 이용하고, 주변 공간 간의 유기성을 강조한다. 그는 서양적인 기하학과 동양적인 관계성을 잘 조화시킨 건축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오크밸리에 있는 뮤지엄 산, 제주도 피닉스 아일랜드에 있는 유민박물관, 역시 제주도 본 태박물관, 서울에 있는 JCC 크리에이티브센터 등 그의 작품이 다수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건축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여 그들을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 안도 타다오, 건축가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이다(A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

- 르 코르뷔지에, 스위스 태생 프랑스 건축가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꾼다.”

- 조영호,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안식년을 즐기는 사장들

영어와 글로벌 역량 교육을 하는 '캐럿 글로벌'의 노상충 대표는

1년에 두 번 Think Week(생각 주간)을 갖는다. 1월과 8월 1주 내지 열흘간 특별한 여행을 떠나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오는 것이다. 2018년 1월, 그는 탁넛한 스님이 프랑스 보르도에서 운영하는 플럼 빌리지(plum village: 자두 마을)에 다녀왔다. 2020년 싱크위크로 CES와 실리콘밸리로 잡았다.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CES를 둘러보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회사를 방문하였다. 그는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등을 방문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다. 세계 첨단의 회사 사람들은 역시 엄청난 긴장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은 1주가 아니라 두 달을 쉬었다. 그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 그는 세계 최고층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페트로 나스타워를 건설하는 데도 참여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건설경영(CM: construction management)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미국 파슨스와 합작으로 1997년 한미파슨스를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었다. 일에 매몰된 삶 속에서 '나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을 가기로 결심했다. 회사에 제도를 마련하고 2달을 쉬었다. 1개월은 설악산에서 살았고 1개월은 인도 여행을 했다.

사장이 회사 일에만 몰입한다고 좋은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일상에 벗어나면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현명한 리더는 잘 알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가정과 회사, 삶과 일의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일에 너무 매몰되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 김종훈 회장, 한미글로벌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년의 안식년을 드립니다.”

- 「딱 1년만 쉬겠습니다.」 브라이언 리아, 책발상, 2019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자가 되기까지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간호사의 상징인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에 대해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시대를 거스르는 독한 의지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가 산 19세기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은 결혼하여 현모양처로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보필하는 것이 이상이었다. 나이팅게일은 가족의 압력, 사회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면서 끝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나이팅게일은 또한 영국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귀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아프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부모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귀족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선 사업’을 통해 하는 것이지 직접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간호사는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집안 처녀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직업이었던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 그런 교육을 해 주는 데가 마땅히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의학, 보건, 병원관련 서적과 자료를 닦히는 대로 읽고 공부했다. 이렇게 한 3년 하고 나니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실력자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실습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독일 카이저스베르트 교회에서 운영하는 봉사기관에서 3개월간 간호 훈련을 받았다.

1853년 소련과 연합국(오스만, 영국, 프랑스)의 전쟁인 크림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원정단을 이끌고 크림반도에 있는 스쿠타리 영국군 병원으로 향했다. 현지 사정은 처참했다. 지하에 하수처리기가 안 되고, 병실 바로 옆에는 쓰레기들이 쌓여있어 악취가 온종일 풍겨 나왔으며, 쥐, 파리, 지네, 구더기 따위가 창궐했다. 의약품, 침구, 의복, 세면도구, 연료 등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결코 환자 곁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녀가 병원경영 책임자가 되어 이 상황을 개선해야 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반겨줄 것이다.”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간호사, 통계학자



다산과 추사는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나?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다산 정약용은

정조가 서거한 다음 해(1801년)에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그는 거기에서 18년간 가족과 떨어져 갇힌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 긴 시간 동안 좌절하거나 학문에서 손을 떼기는커녕 오히려 왕성한 학문적 열의를 불태웠다. 그는 제자를 기르고, 시를 쓰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다.

다산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춘추고징(春秋考徵),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주옥같은 저서 500여 편을 남겼다. 그는 복사뻬에 세 번 구멍이 날 정도로 정좌하고 학문에 몰두하였다고 했다. 다산의 유배 기간은 학문을 꽃피운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산보다 24살 어린 추사 김정희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으나 경주 김씨인 자신의 가계와 안동 김씨 사이에 생긴 권력 투쟁에서 희생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추사는 8년 동안 제주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역시 글과 그림을 갈고 닦아 금석학을 정립하고, 추사체로 알려진 독특한 서체를 완성하였다. 불후의 명작 세한도를 완성한 것도 유배지에서였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까? 전화위복이라 할까? 역경을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았던 다산과 추사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 아닐 수 없다.

조명호 관장의 좌우지간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시비(是非)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고, 하나는 이해(利害) 곧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서 네 가지 큰 등급이 생겨난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다음은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입는 것이다. 그다음은 그릇됨을 따라가서 이로움을 얻는 것이다. 가장 낮은 것은 그릇됨을 따르다가 해로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 다산 정약용

“변치 않을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지, 고작 땅 주인 되는 데 인생을 걸어서야 되겠는가?” - 다산 정약용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교실 화폐를 아시나요?



미국의 경영대학원(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수강 신청을 경매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가령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 스쿨에서는 일단 MBA(경영학 석사) 입학생들에게 5000달러라는 가상화폐를 주고 졸업 때까지 이 돈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한다. 꼭 듣고 싶은 저명교수 강의를 들으려면 입찰에서 많은 금액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의 몇 과목을 듣다 보면 가진 돈이 줄어들어 다른 과목 신청하는데 애로가 생긴다. 필요하지만, 가격이 비싸지 않은 과목도 적절히 섞어서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은 경영학도에게 시장경제 원리를 생활에서 학습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평가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하다. 낙찰가와 수강자 수를 곱하면 그 교수의 시장가치가 되는 것이다. 낙찰가가 높은 교수는 수강생을 적게 받아도 되지만, 낙찰가가 낮은 교수는 학생 수를 많이 받아야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부산 송수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선생님인 옥효진 선생님은 반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미소'라는 단위의 교실화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생들은 모두 한 가지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하면서 미소로 월급을 받는다. 칠판청소부, 교실청소부, 급식도우미, 은행원, 투자회사 직원, 신용평가위원, 통계청, 국제청 등 직업도 다양하다. 이 중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건 급식도우미다. 급식도우미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받은 월급으로 교실 내 상인으로부터 과자도 사 먹고, 일기면제권도 사고, 자리구매도 하고 또 저축해서 투자도 한다. 투자의 지표는 선생님 몸무게다. 선생님 몸무게가 0.1kg 오르면 수익률이 1% 오른다. 물론 몸무게가 떨어지면 그 반대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돈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경제 메커니즘을 터득한다.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도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실제 사회에서는 연습할 기회도 없이 실전이 많아요. 그래서 이 1년을 통해서 연습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떠올리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 옥효진, 부산송수초등학교 교사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이다.”

-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 아버지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

-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한국 엄마 미국 엄마

EBS에서 2012년 4월 3일 방영한 다큐프라임 마더쇼크에서는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나온다. 초등학교 엄마들인 이들은 아이들의 단어 맞추기 작업을 지켜본다. 미국 아이들에게는 영어 알파벳을, 한국 아이들에게는 한국어 철자를 섞어 놓고, 이를 바로 잡아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가령, ‘용청차열’을 보고 ‘청용열차’라는 단어를 찾는 것이다.

지켜보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인 줄 알고 초조하다. 특히 초조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한국 엄마들이다. 그들은 참다못해 답을 거의 가르쳐 준다. 엄마는 지켜만 보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미국 엄마들은 한국 엄마와 대조적이다. 그들은 대부분 끝까지 지켜본다. 아이들이 정 어려워 할 때, 간접적인 힌트만 줄 뿐이다. 아이들이 답을 애원할 때도 미국 엄마들은 “엄마는 답을 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EBS 영상에 나온 중학생 준호 엄마는 준호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준호의 가방을 뒤진다. 가정통신문이 있나 보기 위해서다. 준호가 알아서 내어놓지 않으니 엄마가 챙긴다고 한다. 한국 엄마 중에는 이렇게 아이들 일을 직접 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옷을 입혀주고 가방을 다 싸 주고, 아이는 밥만 먹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엄마도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자기주도성’이라고 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이 자기주도성은 미래의 역량이나 아니라 사실 과거에도 현재도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그런데 미래는 더 중요해진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한다. 부모가 할 일은 곁에서 격려하는 것이다. 영상에서 본 미국 엄마들처럼 말이다.

한국 엄마 중에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보모 역할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존 가트맨, 미국 워싱턴대학 심리학과 명예교수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보다 가치를 우위에 놓을 수 있다.”

-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저자

덴마크식으로 살아보실래요?



영국에서 저명한 여성잡지 '마리끌레르'에서 편집장까지 했던 헬렌 러셀은

뜻밖에 영국을 떠나 덴마크에서 삶을 꾸리게 되었다. 남편이 레고 회사에서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덴마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애정이 없었으나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덴마크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보기로 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도 조사에서 덴마크가 과거 40년 동안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헬렌 러셀은 덴마크에서의 생활을 월별로 기록하여 책으로 펴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덴마크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본 일 년'(2016, 마로니에북스).

같은 유럽 사람이지만 영국인이 본 덴마크 사람들은 놀라운 점이 많았다. 덴마크인들은 철저하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했다. 아니, 일을 적게 하고 가족과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즐겼다. 평소에도 오후 5시면 퇴근했고, 금요일은 오후 4시까지지만 일했다. 1주에 일하는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했다. 영국은 42.7시간, 한국은 47.7시간인데 말이다. 그럼 그들은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물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지만, 주민들끼리 클럽활동을 많이 했다. 덴마크인의 90%는 2.8개의 클럽(동호회)에 가입하여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제공한다.

덴마크인들은 철저하게 평등주의라서, 남녀차별, 사회적 직위에 따른 차별이 없다. 빈부격차도 유럽에서 가장 낮다. 덴마크 사람들은 또한 휴게(Hygge)라는 말을 좋아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여유 속에서도 덴마크인의 인당 노동생산성은 세계 5위이고, 우리나라보다 2배나 높다. 1인당 GDP가 67,000달러로서 세계 상위권(7위)이고, 이 또한 우리나라의 2배에 해당한다.

영국에서 불임 치료까지 받으며 노력했으나 별 성과를 보지 못했던 헬렌 러셀은 1년 덴마크식으로 살면서 아이를 얻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신뢰는 덴마크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한 첫 번째 조건이다. 믿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헬렌 러셀, '행복한 덴마크 사람들' 저자

“▲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다른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 '안테의 법칙' 중에서



20대 성격이 70 이후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미국에서 전염병 연구를 하던 데이비드 스노든(David Snowden) 교수는

수녀님들을 설득하여 건강과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수녀님들은 비교적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노든 교수는 1986년부터 75세 이상 되는 수녀님들 678명에 대해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인터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 삶에 대한 과거 자료들을 모조리 조사했다. 심지어는 사후에 뇌를 기증받아 뇌 조직의 해부까지 했던 것이다. 그 연구 결과는 ‘우아한 노년(Aging with grace)’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번역본은 2003년) 책으로 발표되었다.

비슷한 환경 속에 산 수녀님들이지만, 노후 생활은 많이 달랐다. 일찍이 건강을 잃은 분들도 있었고, 알츠하이머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100세가 넘을 때까지 건강을 누린 분들도 계셨다. 유전자의 영향도 있었고, 학력의 영향도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녀 학교를 마치고 20대 초에 쓴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 수녀님들은 노후에 건강을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긍정적인 성격이 우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열쇠라는 이야기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긍정적 정서는 우리의 지적·신체적·사회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형성하여 위기에 처할 때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용하게 한다.”
-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자

“100세를 살아보니 65세에서 75세 때가 가장 황금기인 것 같아요. 그때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그라민은행이 여자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이유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 교과서에 있는 경제학 이론은 아름답지만, 가난으로 고통받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비참했다. 그는 학생들과 조사를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큰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래서 그는 1976년 은행을 설립하여 150달러의 소액을 대출해주는 ‘그라민은행’을 실험적으로 열었고, 1983년에는 그라민은행을 정식으로 독립된 은행으로 만들었다.

그라민은행은 모든 면에서 기존의 은행과 달랐다.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서류도 개인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 그리고 5명으로 조를 만들어 와야 한다. 또 그라민은행과 거래를 하고 회원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야 한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결심 16가지’도 있다. 결심 16가지에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교육비를 충당한다.’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한다.’ ‘결혼 지참금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는 것도 있다.

그라민은행이 왜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가? 남자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가족보다는 개인적인데 돈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들은 우선 가족을 생각하고, 생계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가난 탈출과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여자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라민은행은 돈거래를 하는 은행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육기관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선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입니다.”

-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설립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롤모델이 왜 필요해. 나는 나같이 살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가 생기고, 실수가 잦아들지만, 여전히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니 완벽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

- 윤여정, 배우,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



기계의 고장도 줄여주는 “감사합니다”

양파 두 개를 각각 컵에 담고 한 컵에는

“미워~”라고 써 붙이고 다른 컵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써 붙였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하루 두 차례 하나씩 따로 가지고 가서 한 쪽에는 “미워~” “짜증 나!” 등 나쁜 이야기를 해 주고, 다른 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등 좋은 이야기를 2분씩 해 주었다. 물이나 햇볕 등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했다.

“고맙습니다” 양파는 16일 만에 싹이 터서 예쁘게 자랐는데 “미워~” 양파는 26일 후에 움이 트기 시작했다. 고구마 실험에서는 이 편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실험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누구나 시도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포스코 포항공장에서는 기계설비에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여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계의 고장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2010년 0.23%이던 고장률은 2년 후 0.12%로 52% 감소했으며,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직원을 호출하는 돌발호출 건수도 2010년 899건에서 2년 후 320건으로 64% 줄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어떤 분은 에너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자주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긍정심리학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포스코 ICT, 제이미크론, 천지세무법인 등에서는 감사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군과 교도소에서도 감사운동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언제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오프라 윈프리,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위대한 인생'의 저자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 로버트 에몬스, 긍정심리학자

손 씻기를 주장하다 미친 사람 취급받은 사람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좋아지고 있는 게 있다. 감기 환자와 식중독 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기 환자(호흡기 바이러스)는 2020년, 전년도에 비해 75.9%나 줄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의하면,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20년, 과거 5년 평균보다 52%나 줄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개인용 용기 쓰기 등 새로운 습관이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손 씻기는 77.0%에서 94.2%로, 음식 덜어 먹기는 57.1%에서 91.8%로, 개인 용기 사용하기는 52.1%에서 90.7%로 그 실천 비율이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손 씻기는 국민 위생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 손 씻기는 언제 시작된 것일까?

손 씻기는 1840년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되었다. 헝가리 출신 의사인 이그나스 켄멜바이스(Ignaz Semmelweis)의 공로가 크다. 그는 비엔나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산부인과 의 두 병동에서 산욕열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았다. 의대생들이 주로 일을 하는 병동에서는 10%가 되었는데 조산원들이 일하는 병동에서는 4%였다. 켄멜바이스는 의대생들이 여러 환자를 돌보다가 병체를 옮기는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 그래서 손 씻기를 실시해 보았더니 의대생 병동에서도 산욕열 사망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프랑스 파스티르에 의해 세균 이론이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켄멜바이스는 손 씻기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었다. 손 씻기 주장은 의사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켄멜바이스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급기야 그는 정신병자로 취급받아 정신병동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간수들에게 구타를 당해 47세의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약 150종 이상, 460만 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한다. 내 몸 입장에서는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큰 적인 셈이다. 몸속에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위험한 습관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이다.”
- 식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자료

“관찰이라고 하는 영역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 루이 파스티르, 프랑스 미생물학자



수감자에 연간 2,300만 원이나 써야 하나?

미국 뉴욕에서 교도소 수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 년에 5억 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한국경제, 2021. 3. 14.).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안 되어도 수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5만 5천 명 수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당 연간 2,300만 원 정도이다. 교도소의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또 교도소에서 고령화가 일어나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근로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2,300만 원. 이 돈을 죄짓고 교도소에서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써야 한단 말인가. 국민 중에는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한술 더 떠, 감옥이 무슨 리조트 수준이다. 노르웨이 바스토이섬은 섬 전체가 교도소인데 죄수들은 쇠창살 속이 아닌 방갈로식 숙소에서 살고 있고, TV를 자유로 보고, 사우나는 물론 영화와 테니스도 즐길 수 있다. 일 광욕을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감옥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감옥은 죄지는 사람을 벌주는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벌주는 것보다 교육시키고, 사회에 재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다 그래서 과거에는 ‘형무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도소(矯導所)라고 하지 않는가(1961년부터 개칭). 가르칠 교(橋)자와 인도할 도(導)자이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직업훈련도 시킨다. 직업훈련 전용 교도소도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 그들을 사회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범법자가 된다. 범법자가 가장일 경우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악순환은 이어진다. 유럽 전체의 재범률이 70% 정도인데 노르웨이 바스토이 섬 출소자의 재범률은 16%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다. 우리나라 출소자의 재범률은 30% 정도인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의 재범률은 1%가 안 된다. 사회가 범법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인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감옥은 자신을 알고 깨우치기에,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흐름을 냉철하게 규칙적으로 살펴보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27년 감옥생활

“감은 구름이 걷힌 뒤에는 태양이 더 찬란히 빛난다.”

-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홈페이지 인사말)

타살률이 높은 나라, 자살률이 높은 나라



어느 대학에서 해외 현지 연구를 위해 방학 중에 중남미로 학생들을 파견하려 했는데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곳은 치안이 안 되는 나라라서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옳은 지적이다. 남미에서는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살인 사건의 30% 정도가 중남미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중남미 국가의 평균 살인율(타살률)은 21.5명(인구 10만 명당)에 이른다. 전 세계 살인율 평균이 7명 정도인데 이의 3배에 이른다.

중남미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안전한 나라이다. 2019년도 살인율이 0.6명이다. 1명도 안 된다. 2019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줄곧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살률 통계는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25명(인구 10만 명당) 정도에 이른다. 중남미의 자살률은, 비교적 자살률이 높은 큰 나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3국 평균을 구해 보면 6.8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1.5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가 타살률이 높은 중남미를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그럼 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자살 원인이라면 중남미의 자살률은 우리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연대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관계망의 파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점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자살은 개인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다. 자살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일탈이다.”
- 에밀 뒤르켐, 프랑스 사회학자

“또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실행하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 사무엘 베케트, 프랑스 소설가, 극작가(아일랜드 출생)미생물학자



<시니어 패션 반란> 패션이 인생을 바꾸나?

패션모델 하면

오래 젊고 늘씬한 20대를 생각한다. 그런데 20대가 패션계를 장악한 건 1960년대다. 파리의 오트 쿠튀르(고급의상)의 명문가에서는 중년 여성을 모델로 기용했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중년 여성이 고객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0년대 학생운동과 함께 패션계에도 젊음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소비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으로 구매력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 이제 패션계도 중년이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전업주부였던 분이 모델로 변신하는가 하면, 60대가 모델학교를 다닌다. 그들은 배도 나오고 얼굴에 주름살을 감출 수 없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다. 시니어들의 변신이고 반란이다. 이들은 나이든 자신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을 꾸미고, 연출하고, 또 철학을 표출한다.

시니어들의 이런 욕구를 파악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다. 명동과 압구정동에서 고급 부티크를 운영하던 구하주 씨는 나이 들어가는 단골 고객들의 욕구 변화를 간파하고 시니어모델교실을 열었다. 2006년부터 회원을 모집하고 이듬해부터는 시니어 패션쇼를 열고 있다. 회원은 60대가 가장 많고, 90대도 있다. 그들 중 전문 모델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라이프를 위해 공부하고 활동한다.

미국 뉴욕의 아이리스 아펠(Aris Apfel)은 시니어모델의 아이콘이다. 1921년 8월 29일생인 그는 97세인 2019년 세계적인 에이전트 IMG와 전속모델 계약을 할 정도로 여전히 현역이다. 화려한 의상과 액세서리 속에 인생의 애환을 온통 담고 있는 아이리스 아펠의 얼굴 주름은 '나이 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다.”

- 아이리스 아펠, 미국 뉴욕 인테리어 전문가, 패션모델

“변화하는 신체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지나치게 넉넉한 실루엣의 옷을 입는 일도 피해야 한다. 노년의 몸을 ‘못나고 늙어진 어떤 상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패션의 매혹은 감춤이 아닌, 여전히 아름다운 신체의 부분으로 타인의 시선을 모으는 데서 나온다. 항상 피팅이 된 옷을 골라야 한다.”

- 김홍기, 패션큐레이터

“지금 당장 옷장에서 오래된 옷들을 버리고, 가장 단순한 선과 중성색(화이트, 블랙, 베이지)으로 된 기본 품목으로만 채운다.”

- 김홍기, 패션큐레이터

IQ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인간의 지능은

상당 부분 타고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은 50% 정도, 나머지 50%는 성장 배경이나 개인의 노력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IQ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을까?

미국 미시간 대학의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하여 아동들과 어른들의 IQ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인텔리전스, 김영사, 2010). 첫째는 운동이다. 운동은 아이를 가진 예비 엄마부터 해야 한다. 엄마의 운동은 배 속의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이의 뇌를 발달시킨다. 어른들도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문제해결 능력이 증진된다. 심지어는 60세에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을 반으로 줄인다.

둘째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질문을 많이 하여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아이들의 IQ는 현저히 좋아진다. 대신 아이들에게 복종을 강조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법만 가르치면 아이들의 지능은 발달을 멈춘다. 따라서 게임도 예측을 하게 하고,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의 지능을 높여준다. 그래서 게임을 무조건 금기시하면 안 된다.

셋째는 칭찬을 잘못하면 아이의 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머리가 좋다거나 능력이 있다는 칭찬이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한다거나 실패를 이겨내는 자세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한다.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이나 과정에 대해 칭찬을 하라는 이야기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능력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능이 늙어서도 향상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실제로 지능을 변화시킨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지능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 아이큐가 몇인지 모르겠다. 자기 아이큐를 뽐내는 이들은 모두 루저들이다.”
- 스티븐 호킹, 영국 이론물리학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매달리고, 자신이 무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려운 일, 새로운 일을 꺼려하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익히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캐럴 드웁,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 심리학



마의 벽은 어떻게 깨지나

스포츠 기록경기에서는

기록이 계속 경신되고 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 기록은 깰 수가 없다고 하는 한 지점이 나타난다. 육상에서 1마일 달리기가 그랬다. 1마일은 1.6Km로서 400m 트랙을 네 바퀴 도는 거리이다. 기록은 4분 01초 03까지 내려갔으나 수많은 사람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4분을 돌파할 수가 없었다. 4분이 인간의 한계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마의 벽 4분'이 된 것이다. "만약 1마일을 4분 안에 뛰다면 인간의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할 것이다."라고 생각들 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이 '마의 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5세 옥스퍼드 의대생인 로저 배니스터(Roger Bannister)가 이 기록을 깨버린 것이다. 3분 59초 04가 그의 기록이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1945년 이후 9년 동안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4분 돌파가 붓물 터지듯 쏟아졌다. 배니스터가 4분 벽을 깬 그해(1954년)에 37명이,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 무려 300명이 넘는 선수가 4분 벽을 거뜰히 넘어섰다. 기록은 1999년 3분 43초 13까지 내려갔다.

누군가 한 사람이 깨면, 다른 사람도 깰 수 있는 것이다. 신경과 의사로 봉직하고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난 배니스터 경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당신이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노력이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에도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 로저 배니스터, 영국, 1마일 4분 벽 돌파자, 신경과 의사

"절 의심하는 모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제가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셨으니까요."

- 우사인 볼프, 자메이카 육상선수, 100m, 200m 세계 기록 보유자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인물이 된다?



제42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은

‘클린턴’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의 생부는 빌이 태어나기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생모가 그가 8살 때 로저 클린턴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여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로저 클린턴은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빌 클린턴은 새 아버지에서 배울 것이 없었다.

빌 클린턴보다 16년 후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도 어린 시절이 빌 클린턴과 비슷하였다. 오바마는 영국계 미국인 어머니와 케냐 출신의 유학생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오바마가 2살 때 부모는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이혼했으며, 케냐로 돌아간 아버지는 평생 성인이 된 오바마 보지 못했다. 오바마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인과 재혼을 하였다.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같이 저명한 사람 중에는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아버지가 없이 편모슬하에서 자라거나, 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정치지도자 중 60%가 어렸을 때 부모 중 한 명을 잃었었는데, 부모 중에도 아버지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실을 보고 처칠은 말했다. “유명한 인물들은 대체로 불행한 어린 시절의 산물이다. 어린 시절 가혹한 환경, 역경의 고통, 멸시와 조롱의 아픔이 있었기에 그들의 끈질긴 지혜와 정해진 목표는 무자비할 정도의 불변성을 띠게 된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부터 배울 경우,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역경을 처리하는 방법이지 역경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 빌 클린턴, 제42대 미국 대통령

“누군가 나타나기를 또는 좋은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
-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



우측통행인가? 좌측통행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차는 우측통행,

사람은 좌측통행을 지켜왔었다.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귀가 따갑도록 이 이야기를 들어왔었다. 그런데 외국 어느 나라든 차와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걷게 되어있는 나라가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측통행과 좌측통행은 우리나라 근대사만큼이나 곡절이 있다. 고종황제가 1903년 자동차와 황제 전용 어차를 들여오고, 2년 뒤 ‘보행자와 차마의 우측’ 규정을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사람과 차량 모두 우측통행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1921년부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좌측통행으로 바뀌었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보통 왼쪽 허리에 칼집을 차고 다니다 보니 서로 부딪히지 않게 좌측통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다시 우측통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때 차량에 대해서만 우측통행으로 변경했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두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좌우 통행이 혼존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게 바른 일인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끝없는 논쟁이 있었다. 그동안 연구를 통해 사람과 차량이 모두 우측통행을 할 때 보다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2010년부터 우측통행을 사람에게도 적용하게 되었다.

우측통행이 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이 좌측으로 건너면 우측으로 오는 차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우측통행을 하면 그럴 위험이 거의 없다. 사람끼리 보행도를 걸을 때도 보통 오른손에 가방이나 짐을 들고 가는데 우측통행을 하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나, 우측통행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늘 우측으로 걷는다는 사람이 50%대 정도이다.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교통안전 표어>

- 차는 사람 조심, 사람은 차 조심
- 지킬 때 안전 있고, 서둘 때 사고 있다
- 질서는 나라 사랑, 안전은 나의 사랑
- 조마조마 횡단보도, 도리도리 살피 가자

우리 청소년의 고민은?



2002년부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13세~24세)들의 모습을 다양한 통계 숫자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는 만족하고 있는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인터넷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고민은 뭐고, 고민 상담은 누구하고 있는지, 키는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등등 다양한 면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는 뭘까? 우리 청소년의 3대 고민거리는 공부, 외모, 직업이다. 2002년에는 공부를 선택한 비율이 약 40%, 외모는 20%, 직업은 7%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공부와 외모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0년쯤 오면서 공부에 대한 고민은 비슷한데 직업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외모에 대한 비중은 작아졌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직업에 대한 고민이 공부에 대한 고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2020년도 청소년의 고민은 공부 29.7%, 외모 10.2%, 직업 28.1%이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직업에 대한 고민이 크다.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나머지는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직업의 문제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취업률이 점점 낮아져서 졸업 후를 걱정하는 것일까?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프니까 청춘”

- 김난도, 서울대 교수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걸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 존 F. 케네디, 제35대 미국 대통령



〈연쇄 창업가〉 창업도 하는 사람이 하는 이유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 그는 이 테슬라를 처음 창업한 것이 아니다. 테슬라 이전에도 그는 3개의 사업을 만들어 본 창업 베테랑이다. 그의 나이 24세에 동생 김벨 머스크와 함께 Zip2라는 회사를 세웠다. 도시 가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신문에 납품을 하거나 라이선스를 주는 회사였다. 4년 후 그 회사를 컴팩이라는 컴퓨터 회사에 팔아 돈을 좀 챙겼다.

그리고는 1999년 X.com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온라인 결제 사업을 하는 콘피티티를 인수하여 온라인 결제 사업에 눈을 뜨게 되었다. 사명을 페이팔(Paypal)로 바꾸고 온라인 결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다. 이 회사는 대박을 터뜨렸다. 온라인 거래 회사 이베이(eBay)에 넘겼는데 머스크는 1억6천5백만 달러라는 거금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2002년 민간우주 항공사 스페이스X를 창업했고, 그다음 해 테슬라를 만들었다. 사실 테슬라를 창업한 것은 머스크가 아니었지만, 처음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 머스크가 꾸러가게 되었다.

창업도 한 번 해 본 사람이 또 하는 경향이 있다. 일론 머스크같이 창업을 연속으로 하는 사람을 연쇄 창업가(Serial Entrepreneur)라고 한다. 오늘날 신규 창업의 3분의 1은 연쇄 창업가의 작품이라고 한다. 일론 머스크같이 성공을 거듭하면서 창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몇 번 실패하고 재도전하여 성공한 사람이 더 많다. 연쇄 창업가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한 번이라도 기업을 일으키고 키워 본 사람은 성공했건 실패했건 학습한 것이 많다. 그들은 그다음 창업할 때는 그가 배운 것을 활용하여 더 멋진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쇄 창업가가 많다는 이야기는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는가? 기술이 많은 사람도,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요건이 있다. 실패한 기업을 매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재기를 북돋우는 사회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모험 없이는 이익도 없다.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네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욥기 8장 7절

택시회사에서 친절을 배운 병원



안동에 있는 안동병원은 병상 수가 1,773개나 되고, 의사가 140명 그리고 직원이 1,700명에 이르는 굴지의 병원이다.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안동병원이지만, 1982년 설립된 이후 파산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 설립자 강보영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병원을 설립하여 무진 고생을 했다. 계속되는 적자 속에 노사분규도 심하게 겪었다. 그는 자살도 시도했었다. 그러다 우연히 책방에서 'MK택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재일교포인 유봉식, 유태식 형제가 운영하는 일본 교토의 택시회사 이야기였다. 그는 그 책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 친절!

병원도 서비스업인데 친절이 핵심이 아니겠나 싶었다. "MK에 가서 친절을 배우자." 그는 마음먹었다.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일본에 가서 원조 친절을 그대로 배워 볼 양이었다. 그러자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그래도 의사, 간호사인데 어떻게 택시회사에서 배운단 말인가!" 요는 이거였다. 강보영 이사장은 직원들을 끝까지 설득하여 매년 2차례 직원들 20여 명씩 일본에 가서 친절교육을 받고 견학을 하게 했다. 돌아와서는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가 탄생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다. MK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했다. 처음엔 환자들이 항의를 했다. "내가 아픈 게 그렇게 고맙냐?" 그러나 직원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아빠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 안 가시고 우리병원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뜻입니다."

1992년부터 매년 이렇게 친절교육을 받고 친절운동을 실천하다 보니 안동병원은 '친절한 병원'의 대명사가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그곳이 어느 곳이든 배울 곳이 있으면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일단 배우려고 생각했다면 몸에 벨 때까지 철저히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이 내 「배움 철학」의 요체다." - 강보영, 안동의료재단 이사장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그리고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 소설가



나이가 들수록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치매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10년도에는 48만 명 정도 되던 치매 인구가 2020년에 와서는 84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2030년에는 137만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대개 65세 이상 걸리고 그 유병률은 10% 정도 되는데 치매 인구가 느는 것은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치매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골칫거리이다.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예방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치매는 뇌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뇌를 많이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무학인 사람들은 8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성이 5배 정도 높다.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캐나다는 영어만 쓰는 지역과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쓰는 지역이 있는데,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쓰는 퀘벡 지역에서 치매 발생 연령이 영어만 쓰는 다른 지역에 비해 4.8년 정도 늦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도에서도 같은 연구를 했는데 힌두어만 쓰는 사람보다 힌두어와 영어를 동시에 쓰는 사람에게서 4.5년 정도 늦게 치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외국어 학습은 뇌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치매 발생을 늦춘다. 나이가 들수록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뇌가 싫어하는 것은 자극이 없는 것이다. 신경망에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몸을 단련하는 운동에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 사람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신경망에 변화를 만들어 낸다.”

- 정래혁, 한국뇌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나의 세계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오스트리아/영국 철학자

뽀뽀해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여행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손미나 씨는

4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영어는 중학교 때, 스페인어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는 서른 중반을 넘어서 그리고 이탈리아어는 40대에 들어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어, 그리스어와 씨름하고 있다. 그는 왜 이렇게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준 미국인에게 감사 표시를 못 해 답답하여 시작한 외국어지만, 외국어 공부를 해보니 외국어는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주는 길이였다. 하나의 외국어를 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럼 외국어를 어떻게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외국어는 꾸준히 매일 해야 한다.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매일 쓰고, 매일 단어 외우고, 매일 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 밑바탕에 특별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두려움 없이 해내는 용기,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뽀뽀함’이 필요한 것이다. 손미나 씨가 스페인어를 배울 때, 대화할 상대가 없어 안타까워 했는데 서울 종로를 걷다가 스페인어를 하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일부러 그 사람을 부딪치면서 말을 걸고 친구로 사귀었다. 뽀뽀하게 말이다. 개그맨 김영철 씨도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의 외국어 학습 비법은 ‘더 뽀뽀해져라’는 것이다. ‘더 뽀뽀한 영철영어’라는 책까지 펴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치친 몸을 달래기 위해 몰디브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일 이야기만 하고 있는 자신에게 ‘행복하냐?’란 질문을 받고 거짓말로도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 변신의 시작이었다.”

- 손미나, 여행작가

<뽀뽀하다>의 영어 표현> “You are really brazen” / “He is really shameless.” / “She is a bit bold.”



가족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

동양인들이 유럽에서 일하면서 겪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빌 리드(Bill Reed) 씨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가끔 조언을 구한다. 빌 리드 씨가 한번은 이런 것을 물어왔다.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가족 하고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요. 왜 그러죠?” 정말 왜 그럴까?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취학 어린이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8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150분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볼 때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불과 13분에 그쳤다. 2021년 조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초등학교 부모 교육 정보 커뮤니티 ‘맘애틱’에서 학부형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66%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했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짧은 이유가 뭘까? 부모들의 긴 근로시간이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들의 단순한 생활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디지털 기기의 등장으로 더 벌어지고 있는 부모-자식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가 벌어들여 주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빠의 착각일 뿐이다. 아이들은 아빠가 벌어들여오는 돈만큼이나 아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에게 내어주는 아빠의 시간이다.”
- 베이비 뉴스

“아빠들은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지친다. 아빠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다고 생각해야 한다.”
- 김동기 교수, ‘아빠 10분 대화’ 저자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는 대화법이 다르다



2010년 EBS에서 방송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중 8부(11월 29일 방송)에서는 성적 상위 0.1%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약 60만 명의 고등학생 중 800명의 최상위 학생을 일반 학생 700명과 비교하여 그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기억력과 IQ에서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차이는 분명 컸다.

상호관련성이 없는 단어 20개를 보여주고 이 단어들을 기억하라고 한 실험을 했다. 자신이 기억한 단어를 쓰기 전에 자신이 몇 개 기억했나 숫자를 미리 써보게 했다. 상위 0.1%의 학생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와 실제 기억해 낸 단어 숫자가 거의 일치했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은 두 숫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우수한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일반 학생보다 높았다. 이 능력을 메타인지(meta-cognition)라고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인지능력 이 아니라 메타인지능력이 높은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상위 0.1%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니, 그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긍정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것이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높여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높여준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길러주고 싶다면,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메타인지를 높여라.”

- 리사 슌, 미국 바나드 칼리지 교수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비난, 질책 같은 부정적인 대화보다 인정, 격려 같은 긍정적인 대화를 5배 이상해야 한다.”

- EBS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0.1%의 비밀’



요리의 달인 강레오 씨가 어떻게 농사의 달인이 되었나?

마스터 셰프 강레오 씨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요리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2살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서양의 고수에게서 사사를 받고 저명 식당에서 헤드 셰프까지 했다.

강레오 셰프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마스터셰프 코리아’ 등 방송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그러던 그가 잠시 얼굴을 감추더니 느닷없이 ‘농부’로 나타났다. 전남 곡성에서 멜론을 재배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딴 ‘레오 멜론’이라는 품종도 개발했다. 이 멜론은 백화점에서 개당 10만 원에 팔린다. 일반 멜론이 7~8000원에 팔리는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값이다. 멜론만이 아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 강화에서 유기농 쌀과 고구마, 금산에서 산야초, 고창에서 땅콩 등 말이다. 서울에서 셰프로서 일을 하면서 농사도 짓는 겸업을 하고 있다.

그는 요리를 하면서 요리의 원천은 농사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직접 해보고 싶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벤처농업대학과 한국수산벤처대학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때 강의를 하셨던 민승기 전 농촌진흥청장의 조언에 따라 전국 161개 시군을 돌아보고 각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발굴해서 가꾸어보자고 마음먹고 그는 ‘셰프’보다 ‘농부’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내 요리는 도마가 아니라 땅에서 시작된다.”

- 강레오, 요리사

“풍토가 다르면 농법도 다르다. 이미 간행된 중국의 농서는 우리나라의 농법에 직접 이용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세종이 각도의 감사(監司)에게 각지의 농군들에게 지역에 따라 경험한 바를 자세히 듣고 수집할 것을 명하여 본서를 편찬하게 되었다”

- 정초의 서문, 농사직설

《농사직설》(農事直說): 세종이 정초(鄭初), 변효문(卞孝文) 등에게 명하여 1429년(세종 11년)에 편찬해 낸 책. 세종의 농업에 대한 열정으로 고려 말에 비해 농지는 2.4배, 1결당 수확량은 4배가 늘어난.

유치원 교사가 남자아이 이름을 많이 부르는 이유



유치원에도 남녀차별이 존재할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자료(2020.11.20.)에 의하면,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사의 말과 행동에서 성차별이 심하다. 가령, 교사가 “여자는 얌전해야 해!” “남자는 씩씩해야 해!”라고 말을 한다면, “여아는 발레, 남아는 태권도” 하는 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 역할을 엄격히 구분했던 과거의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신라대학교 손원경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여자아이의 상호작용보다 1.8배나 많았다. 말하자면, 여자아이 이름을 한번 부를 때, 남자아이 이름은 두 번 정도 부른다는 이야기다. 왜 남자아이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야단치고, 통제하기 위해서란다.

남자아이들은 신체를 많이 쓰고, 경쟁적인 놀이를 좋아하다 보니 자꾸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교사들로부터 통제를 받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의 교사도 대부분이 여자이고, 유치원 교실은 점점 여아 친화적이 되면서 남자아이들이 ‘문제아’ 시 되는 경향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여아와 남아가 모두 행복해지는 유치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유아기부터 남자아이들이 여성스러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한다면 남자아이들은 크면서 필요한 기술을 못 배우게 될 수도 있다.” - 엘리사 호겐볼, BBC Reel 에디터

“어린이 교육은 과거의 가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있다.” - 존 듀이, 미국 교육철학자



최민준 씨는 왜 남자아이만 받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가?

남자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미술 학원이 있다. 최민준 씨(37세)가 운영하는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가 그곳이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술 과외를 했던 최 씨는 미술에 있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자아이들이 잘한다. 대신에 남자아이들은 거칠게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것을 잘한다. 그런 걸 잘하는 남자아이들은 통념으로 보았을 때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아이이고, 더러는 주의력결핍증이 있는 아이로 오인받기도 한다.

최민준 씨는 남자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 주고 그들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싶었다. 자신의 학원에는 스케치북, 색연필, 이런 것과 함께 못, 망치, 드라이버 같은 것도 비치하고 싶었다. 남자아이들은 그런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미술은 단지 예쁜 얼굴이나, 색색의 꽃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남자아이들은 소근육의 발달이 늦기 때문에 여자아이들보다 섬세하지 못하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여자아이들보다 떨어진다. 그런 남자아이들을 감성적으로만 다룰 수 없다. 최민준 씨는 아이들은 다 자신의 밑그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밑그림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육아서를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육아서에는 우리 아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을 실천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쫓아야 하고,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민준,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 대표

“최근의 연구를 보면, 여자아이는 공감화 능력, 남자아이는 체계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광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대한항공이 비행기 사고 후 영어를 공용화한 이유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아웃라이어’(번역, 2009, 김영사)는

예술, 스포츠,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웃라이어는 외지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돌출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아웃라이어는 처음부터 재능을 타고난 사람일까?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글래드웰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노력과 주변 분위기가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아웃라이어에 KAL기(KE801) 괄 사고 이야기가 길게 나온다. 이 사고는 1997년 8월 6일 새벽, 괄 공항에서 일어난 것으로 탑승자 254명 중 222명이 사망한 불행한 참사였다. 그날따라 일기가 불순했고, 더욱이 비행기의 하강을 유도하는 항공유도등에 고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치명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날 조종석에 앉은 기장, 부기장, 기관사는 모두 베테랑이었고, 그런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그들 간의 소통과 팀워크였다. 사고 순간 기장이 조종석에 앉아 조정대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니까 최고 상사가 조정을 한 것이다. 한국의 수직적 문화가 여기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에게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있었다. 비행기 사고도 개인의 실력보다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콤 글래드웰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미국 델타항공에 의뢰하여 승무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새로 교육하고, 조종실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쓰도록 했다. 한국적 수직 문화가 아닌 서구적 수평 문화를 한정적으로나마 만들기 위해서였다.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개인 능력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비행기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실수들은 예외 없이 팀워크나 의사소통의 문제다.” -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저자

“권력 거리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이다. 권력 거리가 작은 문화에서는 권력 관계가 보다 상호의존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 헤이르트 호프스테터, ‘세계문화의 조직’ 저자



구자은 LS엠틀론 회장은 왜 집에서 벌을 키우나?

LS엠틀론의 구자은 회장은 서울 성북동 자택 뒤뜰에서 꿀벌을 기른다. 2020년 시작할 때 4만 마리 정도였던 꿀벌은 1년 새 15만 마리 가까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산출되는 꿀도 연간 10리터가량이나 된다. 구 회장은 지인들에게 꿀을 선물하며 ‘벌꿀 살리기’를 알리고 있다. LS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벌꿀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사내연수원에서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종 벌꿀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벌꿀 살리기 운동은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꿀벌의 수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2000대 초까지 꿀벌의 숫자는 40% 정도 감소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종 꿀벌 수효의 감소는 더욱 심각하여 2006년 40만이던 꿀벌 수가 2012년 4만5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3). 6년 사이 10분의 1이 된 것이다. 꿀벌 수효의 감소는 농사에 피해를 초래하고 생태계를 왜곡시킨다. 꿀벌에 의한 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벌꿀 살리기 운동은 도시인들이 더 적극적이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일본은 2006년,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도시 양봉’을 시작했다. 그러나 꿀벌을 도시에서 기르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좋은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꿀벌의 생태에 대해 그리고 양봉에 대해 학습이 필요하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는 2014년 9월부터 도시 양봉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양봉장 한 곳이 생기면 주변 꽃 발화율이 20%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 꽃이 피면 곤충이 모이고, 곤충을 잡아먹는 새들도 함께 모이게 된다. 결국, 도시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다. 양봉장은 도시 재생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 박 진, 어반비즈서울 대표

“The busy bee has no time for sorrow(바쁘게 움직이는 벌에게는 슬퍼할 여유가 없다.)”

- 윌리엄 블레이크트, 영국 시인

배우러 **와** 총모임집

3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한글 창제를 반대한 최만리를 끝까지 아낀 세종



금년은 훈민정음(한글)

반포 575돌이 되는 해다. 세계에 49개의 문자가 존재하지만, 그 창제 배경과 원리를 설명하고 반포한 문자는 한글밖에 없다. 그리고 한글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로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다. 세종대왕은 1418년(21세)에 즉위하였고, 그 후 28년 만에 한글을 만들어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했다. 잘 아시다시피 한글은 국가의 기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젊은 학자와 자식들을 동원하여 세종이 비공식적이고도 비밀리에 한 일이다. 관리들의 반대가 볼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글 완성이 알려지자 선비들의 반대가 드세었다. 그중에서도 최만리의 반대는 격렬했다. 집현전 부제학(실무책임자)을 맡고 있던 최만리는 1444년 2월 정창손, 하위지 등과 함께 장문의 상소를 올렸다. 상소문에는 6가지의 반대 사유가 있는데 요약하자면, “대국에 좋은 문자(한자)가 있는데 어설픔게 새로 글을 만드는 것은 오랑캐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쉬운 글을 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백성들이 순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었다.

왕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들이대는 상소문을 올린 데 대해 세종대왕은 또 논리로써 반박했다는 이야기가 세종실록에 담겨있다. 그리고 상소를 올린 당사자를 의금부에 하루 감금하고 풀어주었다. 정창손에 대해서는 파직을 했지만, 대표 격인 최만리는 부제학직을 거두지도 않았다. 최만리는 스스로 사임하고 낙향했으나 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세종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최만리는 결국 이듬해에 사망하고 말았다. 세종은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경청하려 했으며, 소통과 토론으로 정사를 운영하려 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모든 일은 위에 있는 사람이 비록 옳다고 할지라도, 아래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른 것을 알면,윗사람에게 그른 것을 말해 숨김이 없어야 한다.”

- 세종



두 팔 잃은 석창우 씨가 크로키 화가가 되기까지

나이 30이던 1984년 전기공사를 하다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석창우 씨.

의수로 살고 있는 그에게 네 살짜리 아들이 그림을 그려 달라 했다. 그는 그전까지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고 팔도 없는 처지였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린 것이 참새였다. 남편의 그림을 본 아내 곽 씨는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소일 삼아 그림을 배워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권유했다.

그때부터 미술학원을 알아보았으나 두 팔 없는 사람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다면서 다들 거절했다. 그래도 사군자는 붓 하나로 하니 해볼 만하다 싶었다. 전주에 살던 석 씨는 지인의 소개로 원광대 여태명 교수 찾았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기념식수한 표지석에 글을 남기신 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 교수 역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창우 씨는 한 달 동안 졸라여 교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는 현대미술관에서 누드 크로키를 배웠다.

그는 이렇게 해서 붓을 이용해 움직이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화폭에 옮기는 '수묵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발하였다. 그의 그림은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림 시장에서 2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다. 2014년 소치동계장애인올림픽 폐막식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수묵크로키 시연을 보여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기도 했다.

석창우 씨는 자신이 입은 장애를 고마워하고 있다. 장애가 없었더라면 그의 생애에서 그림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몰두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삶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거기에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성공할 게 있다.”

- 스티븐 호킹, 영국 물리학자

학비, 교수, 교재가 없는 대학, 에플42



학비도 없고, 교수도 없고, 교재도 없고 심지어는 졸업장도 없는

대학이 생겨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2013년 프랑스 통신 재벌 자비에 니엘(Xavier Niel)이 사비를 출연하여 만든 SW교육기관 ‘에플42’가 그 학교다. 프랑스어로 에플은 학교이고, 42는 더글러스의 SF소설에 나오는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란다. 입학생 나이 제한이 없다. 대체로 18세부터 30세까지 지원한다. 다만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풀장에 넣고 혼자 나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 선발 과정을 라 피신느(풀장)라고 하는데 온라인 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인원은 1개월 집중과정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실력도 보지만, 끈기와 협동심도 본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매일 9개 정도 과제가 주어진다. 그리고 주말에는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도 없고, 교재도 없다. 그저 자료를 찾아 혼자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한다. 평가는 동료 3명이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해주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과제가 진척이 잘 되면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가만 된다. 표준 과정은 3년이지만 1년 반에 마치기도 하고 5년이 걸리기도 한다. 중간중간 기업체에 가서 인턴십도 해야 한다.

에플42의 이런 교육방식이 퍼지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사내 인재양성을 위해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있고, 미국 실리콘 벨리에도 에플42 캠퍼스가 설립되었다. 서울에도 프랑스 에플42와 제휴를 맺어 ‘42서울’(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이 2020년 1월 문을 열었다. 연 500명 정도 입학하는 이 학교는 전원 장학생이다. 여기서도 교수도 교재도 없고 단지 스스로 공부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뿐이다. 졸업장이 없는 비학위 과정이다. 대학교육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사람이 걸음마를 배우는 걸 생각해보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실패와 연습을 거듭해서 결국 걷게 된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SW교육을 한다.”

- 샤를르 모블랑, 에플42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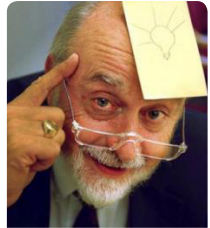
실패가 낳은 걸작 3M 포스트잇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메모지

포스트잇(Post-it)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20세기 10대 걸작품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AP 통신). 사무작업의 필수품이 된 이 포스트잇은 3M이 처음부터 멋있게 구상해서 출시한 상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수가 만들어 낸 우연의 산물이었다.

3M이란 회사는 1902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채광 회사로 시작했다. 그 회사가 초창기에 만든 제품이 연마제, 사포, 스카치테이프 같은 것이었다. 지금도 스카치테이프는 3M 제품이 단연 최고로 꼽힌다. 3M은 좋은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스카치테이프의 핵심은 접착제인데 특히 이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매달렸다. 더 잘 붙는 그리고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그런 접착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스펜서 실버(Spencer Silver)라는 연구원이 엉뚱한 것을 발견했다. 붙기는 하는데 금방 떨어지는 이상한 접착제 말이다. 그것은 완전한 실패였다. 그러나 3M에서는 실패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하는 수 없이 그 이상한 접착제를 공개하게 되었다. 그것이 1970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4년 후 아서 프라이(Artur Fry)라는 연구원이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찬송가집에 끼어둔 종잇조각을 잃어버려 낭패를 겪게 되었다. “살짝 붙어있다 떨어지는 테이프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는 스펜서 실버가 발표한 그 접착제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포스트잇이다(1977년 출시). 3M에는 이렇게 실패를 공개하고 거기서 학습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3M은 생활용품에서 전자정보, 생명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되었다.



포스트잇을 개발한 아서프라이. 그는 어떻게 하면 찬송가를 빨리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포스트잇을 발명했다.

<©위키피디아 Public Domain>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 크리스티 메튜슨, 미국 야구선수(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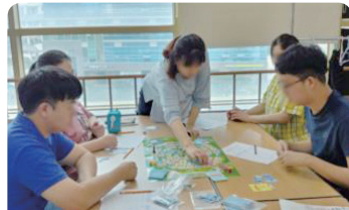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까지



아이들이 4~5세가 되면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무언가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6세가 되면 동전과 지폐도 구분한다. 이때 500원과 1000원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된다. 7세가 되면 스스로 구매도 하고, 저축도 한다. 경제적 주체가 되는 나이인 것이다. 스스로 가게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아이들 성장 단계에서 큰 사건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인)들은 이런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한다. 20세가 다 되었는데도 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엄마한테 떠밀려서 가게에 가서 엄마가 원하는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거스름돈을 챙겨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라온경제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로 있는 김효연 씨는 이런 발달장애인들의 경제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부터 말이다. 아마 그가 제1호 발달장애인 경제 강사일 것이다.

김효연 이사는 발달장애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 중에 상당수는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연습과 훈련이 많이 요구될 뿐이다. 그들은 ‘느린 학습자’인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이 경제생활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내적 역량 탓이기도 하지만, 더 큰 장애물은 사회적 편견이다. 그들을 속이는 어른이 있고,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재촉하는 사람도 많다. 특별히 배려할 것 없이 친절히 설명해 주고 기다려만 줘도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들은 작은 성공체험에서 학습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장면
<출처: 라온경제교육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매 순간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걸음을 이어 가고 있다. 오늘도~”

- 김효연, 라온경제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초대 이사장)



식탁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떠드는 유대인들

도서관은 ‘정숙’이 생명이다.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다. 유대인들은 도서관에서 떠든다. 유대인 마을이면 하나씩 있는 도서관을 예시바(Yeshiba)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혼자 앉아서 조용히 책을 볼 수가 없다. 자리 배치가 다른 사람과 마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앞사람, 옆 사람과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히 도서관 전체는 무슨 경매시장처럼 시끄럽다.

가정에서 식탁에서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질문이 오가고 토론이 진행된다. 우리도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 그런데 우리네 전통적 밥상머리 교육은 어른들의 훈시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떠드는 것이 주다. 그들은 주로 탈무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탈무드는 단지 외는 성서가 아니라, 토론의 주제이다. 이렇게 떠들고 토론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브루타(Havruta)’라고 한다.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태생이 다르다. 페이지는 미국서 태어났고, 브린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 교육환경에서 자랐다. 페이지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브린은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논쟁을 즐겼다고 한다. 식탁에서부터 도서관에까지 말이다. 그래서 구글의 문화도 논쟁을 장려하는 문화이다. 논쟁이 학습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만든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말이 없는 아이는 배울 수 없다.”

- 유대인 속담

세계 정상들과 '맞짱'뜨는 18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스웨덴의 어린 소녀다. 2003년 1월생이니 이제 18세이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린 나이지만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5세이던 2018년 8월 20일 툰베리는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의회 건물 앞에서 종이로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툰베리는 아예 매주 금요일을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정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시위를 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젊은이들이 이에 동참하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동맹 휴업 운동이 벌어졌다. 2019년 9월 20일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기후파업'을 벌였다. 급기야 툰베리는 2019년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서 60명의 세계 정상들 앞에서 "모든 게 잘못되었어요."라고 외쳤다.

그는 여전히 환경운동의 아이콘이다. 이제 겨우 18세인데도 말이다.



출처: commons.wikimedia.org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여러분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여러분이 배신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 그레타 툰베리, 유엔 기후정상회의 연설, 2019. 9. 23.



달콤한 초콜릿에 숨은 슬픈 이야기

초콜릿을 좋아하시나요?

달콤한 초콜릿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 밸런타인데이 선물은 물론이고 각종 이벤트에서 초콜릿 과자가 인기다. 그래서 초콜릿 시장은 매년 2%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콩(Cacao Bean)은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대부분 서아프리카 나라에서 생산된다. 아프리카의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카카오 콩을 생산하는 인력은 어린아이들이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기에는 아이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호 장구도 없이 마테체라는 큰 칼을 들고 나무 위에서 일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육체적인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인생의 위험이다. 이런 인생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220만 명에 이른다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생 수(26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1,000원어치의 초콜릿을 생산하는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불과 20원이라 한다. 소비자들이 더 싼 초콜릿을 원하고, 초콜릿 회사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면 그 20원도 받기 어렵다.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상당수는 자신들이 딴 이 콩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일만 한다. 텅없는 저임금으로 말이다.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원재료를 사올 때, 또는 그들의 노동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때, 제값을 주고 제대로 거래를 하자는 운동이 '공정무역(Fair Trade)' 운동이다. 공정무역은 공정무역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착한 소비자'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소비자들은 매 순간 지갑을 열 때마다 윤리적 소비나 아니냐 하는 '선택'의 순간에 놓인다. 그들의 선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 롭 해리스, 영국 윤리적소비자연구소(ECRA) 설립자

듀폰 회사는 왜 사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발부하나?



세계 최대의 화학회사 듀폰(DuPont)은

인류 최초의 인조섬유 나일론을 만들어서 유명해졌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E.I. 듀폰 씨가 1802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은 총기용 화약제조였다. 화약제조는 인기가 있어 사세가 팽창되어 갔으나 제조과정에서 항상 위험성이 있었다.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공장에서 일어났다. 근로자들은 그래서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듀폰 씨는 ‘안전(Safety)’을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안전을 핵심가치(Core Value)라 부르고, 사원들에게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시켰다. 듀폰에서는 폭발사고 없애는 것만이 안전이 아니다. 사무실에도, 복도에서도, 회의 때도 모든 생활에서 안전이 빠질 수 없다. 안전에 관한 수칙은 광범위하고 디테일하다. 잠시 서류를 꺼내고 달을 거라도 책상 서랍은 열어두면 안 된다. 필기구 통의 필기구는 심이 항상 밑으로 가게 넣어두어야 한다. 사무실 복도에서도 서로 부딪치지 않게 볼록거울이 있다.

주정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는 사내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듀폰 사원은 듀폰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듀폰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한다. 보다 철저한 교육과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듀폰운전면허가 없으면 회사로 차를 가져올 수 없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디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듀폰의 안전은 생활화되고 있다.



듀폰 나일론 스타킹의 초기 광고 중 하나
<출처: ©듀폰홈페이지>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듀폰 안전철학의 핵심은 상호의존에 있다. 내가 한 행동이 남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소한 안전 위협요소라 해도 무심코 지나치기 어렵다.”

- 임정택, 전 듀폰코리아 사장



공유냉장고를 아세요?

수원시 곳곳에는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가 있다. 다섯 칸짜리 투명 냉장고 안에는 사과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밥도 있다. ‘누구나 넣고, 누구나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유냉장고이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자고 하는 푸드셰어링(Food Sharing)의 수원방식이다.

수원시에서 공유냉장고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17년 가을이다. 2030년 지속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기구가 의견수렴을 하던 중 나온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해서 2018년 1월 고색동에 제1호 공유냉장고가 탄생했다. 그 이후 공유냉장고는 계속 늘어 2021년 말 현재 35개가 되었다.

공유냉장고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마을 운동’이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에 제안을 하고, 그들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며 스스로 관리를 한다. 아무 물건이나 넣지 못하게 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은 시민관리자가 정리한다.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시민들의 책무다.

이 공유 냉장고 사업이 2020년 환경부 주최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나누는 만큼 커지는 이웃의 정’이 공유냉장고를 통해 수원시민의 겨울을 숨이불처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공유냉장고는 이웃과의 음식 나눔을 통해 음식물이 필요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지역에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랑 나눔 공유프로젝트입니다.”

- 공유수원 홈페이지

해외의료봉사단이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10년 동안 의료봉사를 하다가

암으로 선종한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매년 이태석 봉사상을 시상하고 있다. 2021년 수상자로 김성은 씨가 선정되었다. 그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참사 소식을 듣고 이듬해 의사로서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아이티로 날아갔다.

“흙먼지 자욱이 날리는 길가에 시체들이 나뒹굴고 공항 주변엔 ‘한 푼만’ 하며 손을 내미는 거지들이 바글뒹졌어요.” 김성은 씨는 아이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랬었다.

김성은 씨는 최빈국 아이티에서도 버려지다시피 한 열악한 환경의 섬 라고나이브섬으로 갔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으며, 물과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 콜레라, 이질 같은 전염병이 극성을 부렸다. 그는 동네에 클리닉을 운영하고 무의촌 순회 진료를 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 한 명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00명이 다니는 학교 세 개를 신축했다. 그들이 자라서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비위생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가 주는 올해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로 성전된 김성은(사진 가운데 안경 쓴이) 글로벌케어 아이티지부장이 보건교육을 시킨 라고나이브섬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출처: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해외에 의료봉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고민은 김성은 씨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 한번 봉사나가 치료하고 1년 후에 다시 와 보면 변화된 게 없다. 밤을 새우다시피 열심히 한들 얼마나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이 필요하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가진 것 하나를 오픈로 나누면, 우리가 가진 것이 1/10로 줄어드는 속세의 수학과는 달리, 가진 것 하나를 오픈로 나누었기에 그것이, 천이나 만으로 자라난다는 하늘나라의 참된 수학, 끊임없는 나눔만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행복 정석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게 된다.”

- 이태석 신부



잘 나가던 백화점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사표 쓰고 세계여행을 떠난 이유

백화점에서 매장 진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비주얼머천다이저(VMD)라고 한다. 이랑주 씨는 이랜드와 현대백화점에서 VMD로 일하고 있었다. 잘 나가는 VMD였다. 그런데 그는 사표를 쓰고 나와 재래시장과 가게의 상품진열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부산의 한 재래시장에 강연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이다.

“내가 백화점에서 얻은 노하우를 여기서 조금만 풀어놓는다면...” 이랑주 씨는 과일가게의 홍시 진열대를 손보았다. 붉은색 홍시 밑에 녹색 비닐봉지를 깔았다. 붉은색과 녹색은 보색으로서 과일을 돋보이게 했다. 홍시가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두 달 후 가게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매출이 5배나 뛰었다고. 이렇게 재래시장 일을 7년 정도 하던 이랑주 씨는 2012년 모든 것을 놓고 세계여행을 떠났다. 선박설계사였던 남편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말이다.

두 사람은 달랑 배낭 하나씩 메고 인도, 유럽, 북미, 남미, 남극까지 40여 개국을 돌았다. 세계 150여 개 백화점과 쇼핑몰, 전통시장 그리고 서점 같은 곳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돌아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이었다. ‘사람’이라는 화두가 가슴 속에 들어왔다. 이랑주 씨에게 비주얼머천다이징은 디자인 기술이 아니다.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며,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녀가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나누고 돕는 것이 그의 방식이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디자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

평생학습도시, 알고 즐기자



**일본 도쿄에서 서남쪽으로 신간선 1시간 거리에 있는 조그만 도시
가케가와(掛川學事始, 시즈오카현). 인구 8만 정도인**

이 도시는 1979년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다. 산림조합 전무로 일하다 42세 때인 1977년 가케가와 시장으로 취임한 신 무라 준이치(樺村純一) 시장은 평생학습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시민 모두가 언제나 무엇이든 학습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였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능이나 스포츠, 자원봉사, 건강법 등 어떤 것이나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하여 평생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세 성인식 이후에도 30세, 40세 등 10년 단위로 성인식을 가짐으로써 지나간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가케가와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후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자체마다 평생학습도시를 부르짖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광명시가 처음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다. 그 후 평생학습도시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고 또 유네스코에서 평생학습도시의 국제적 확산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GNLC)를 만들어 2013년부터 매 2년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 도시를 시상하고 있다.

수원시는 2005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우수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민 누구나 강의를 할 수 있는 ‘누구나학교’, 50대 이후가 모여 뭐라도 학습하고, 즐기는 ‘뭐라도학교’, 시민이 강좌개설을 기획하는 ‘시민기획단’은 모두 수원시의 작품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학습은 우리의 일부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학습도 있다.(Learning is but an adjunct to ourself, And where we are our learning likewise is.)”
-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 소설가



왜 119 소방관이 스포츠 멘탈코칭을 배우는가?

안산소방서에 근무하다 최근에 수원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양재영 소방관은 15년 차 소방관이다. 그는구조 임무를 전문으로 하지만 자주 차출되어 후배들 교육을 한다. 우연히 스포츠 멘탈코칭에 대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양 소방관은 시간을 쪼개어 2019년, 5개월 동안 주말 반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멘탈코칭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자격증을 땀다. 119소방대원이 왜 엉뚱하게 스포츠 멘탈코칭을 공부한 것일까?

소방대원이 하는 일은 극한 작업이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순간의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장비도 갖추고, 엄청난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원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훈련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편이다. 전통적인 ‘정신력 교육’이 전부일 정도다. 독하게 마음먹으면 멘탈이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극기 훈련하는 것이 정신교육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멘탈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위기 상황 대응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소방대원들은 사고현장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고, 동료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멘붕이 온다. 사고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면서 사고와 싸우는 것도 어렵지만, 소방서에서 기다리는 것도 정신 소모가 크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소방대원들을 돕는 상주 ‘심리 상담사’나 ‘심리코치’가 있다. 프로스포츠의 90%는 멘탈이고 10%만이 기술이라고 하듯이, 119소방 대원들에게도 멘탈이 어떤 장비나 체력보다 중요하다. 양재영 소방관은 소방관 훈련에 멘탈코칭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것이 보편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소방 간부들은 퇴근해서도 24시간 무전을 켜 상태로 있어야 한다.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소방관의 숙명이다.”

- 어느 소방관

무알코올 맥주가 잘 팔리는 이유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맥주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세븐일레븐에 의하면, 2021년도 1월부터 12월 14일까지 자신들의 매장에서 팔린 무알코올 맥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배나 늘었다 한다. 이리다 보니 4종에 불과했던 무알코올 맥주 종류도 7종으로 늘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던 무알코올 맥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무알코올 맥주 구매자들의 절대다수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70.9%가 여성이다. 그것도 20대가 중심이다. 그러면 왜 젊은 여자들이 술 아닌 술을 마실까? 일단 무알코올 맥주는 칼로리가 없어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에게도 부담이 없다. 그래서 술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알코올이면 이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음주문화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회식형 음주문화에서는 참석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술을 마시는 것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추세에 맞추어 종래 술과 멀리했던 분들도 무알코올을 통해 음주문화에 동참할 수 있고, 자신의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류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무알코올 맥주나 무알코올 와인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알코올 음주’, 사회변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풍경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신은 물밖에 안 만들었는데, 인간은 술을 만들었다.”

- 빅토르 위고, 프랑스 소설가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정신 건강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하여 매 분기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늘고 있다.

19세부터 71세까지 성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우울 평균 점수는 5.1점(총점 27)으로 2019년 유사 조사 2.1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고, 우울 위험군(10점 이상)도 17.5%로 2019년 유사 조사 3.2%에 비해 무려 5.5배로 늘었다. 자살을 생각해보았다는 비율도 2020년 3월 9.7%가 되어 2019년 4.6%의 두 배가 넘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나타난 이런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는 대체로 2020년 9월까지 높아지다가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말 현재 2020년 3월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을 끌다 보니 다소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는 사뭇 다른 비상 수준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의지하고 돕는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다. 주변에 공감을 나누는 사람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잘 이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가 입증하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우울감의 핵심은 자존감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는 자존감 또는 자신감을 높이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칭찬입니다. 몸과 마음, 머리를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나와 상대방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에서 우러나옵니다.”

- 홍창형,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매일 매진되는 빵 가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감자빵가게(카페 감자빵)는

연 매출 200억 원을 올리고 있다. 가게 앞에는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장사진이며, 매일 매진이다. 이미소 대표는 2021년 11월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책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를 출간해서 이 책도 베스트셀러이다.

이미소 씨가 감자빵을 개발하여 출시한 것은 2020년 1월이다. 감자 소를 가득 넣고 감자 모양의 빵을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입소문이 나더니 4개월이 지나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왔다. 14일간 팝업매장을 운영한 성과는 컸다. 현대백화점 팝업매장의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제는 춘천의 명물이 닭갈비에다 감자빵이 추가가 될 정도다.

이미소 씨는 원래 패션을 공부하고 IT 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시형’ 인재였다. 그러다 감자 농사를 짓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 춘천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가 애써 가꾼 감자를 팔기 위해 궁리하게 되었다. 감자 소비를 늘리기 위해, 분말도 만들어 보고, 즙도 만들어 보았다. 디저트만 200종을 개발해 보았다. 이 모든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덕분에 감자빵이라는 대박이 터졌다.

농업회사법인 발 주식회사 대표 이미소 씨는 그사이 농업학교도 다니고 요리학교에서 공부도 했으며,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책도 엄청나게 봤다. 그런 그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감자와 농작물의 품종 다양성 지키기 운동가이며, 농촌 살리기 사회 변혁가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사람은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기회가 온다.”

- 이청강, 이미소 씨 부친



교도소에서 터득한 다이어트법으로 사업에 성공한 마약사범

코스 마르테라는 사람은

미국 뉴욕시 맨해튼 동부에서 자랐다.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자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그는 깡통 줍기, 세차, 심부름 등 잡일을 하다가 마약 거래에 손을 대게 되었다. 13살에 말이다. 그는 상술이 있었다. 고객들은 늘어났으며 전화기 7대를 가지고 영업을 할 정도였다. 그러다 23살에 경찰에 잡혀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심각한 비만이였다. 편하게 장사를 하다 보니 먹고 마시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어 있었다.

코스는 키 177cm에 105kg이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는 그때부터 교도소 안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기만 했다. 그 몸으로 땀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조금씩 뛰기 시작했다. 몸무게가 30kg 줄었다. 그걸 본 같은 처지의 수감자들이 함께 운동하기 시작했다. 어쩌다 독방 신세가 된 코스는 독방에서 자신이 한 운동법을 정리했고, 독방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개발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코스 방식의 핵심은 Non-stop 운동이다.

그는 2013년 말 출소 후 아예 콘바디(ConBody)라는 회사를 차렸다. ‘교도소식 피트니스’라고 내놓고 이야기했다. 강사도 출소자로 고용했다. 그의 고객에게 맞춤형 처방을 내려준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친다. ‘몸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Change you body, Change the world)’. 코스의 꿈은 피트니스에만 있지 않다. 재소자에게 희망을 주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콘바디는 피트니스 강사로서 출소자만 고용한다. 지금까지 100명의 출소자가 콘바디에서 일했다. 그들의 재벌률은 제로(0)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많은 회원이 처음엔 트레이너가 전과자라는 점에 대해 긴장한다. 그러나 트레이너와 운동을 함께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이를 통해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게 된다.”

- 코스 마르테, 콘바디 CEO

갓난아이를 버리는 베이비 박스를 없애겠다고 나선 김윤지 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가파른 오르막길에 자리 잡은

주사랑공동체교회 벽에는 특별한 상자가 있다. 이름하여 베이비 박스(baby box). 뜻하지 않게 아이를 낳았지만 기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넣고 갈 수 있는 박스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2007년 봄 버려진 생선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아이가 들어있었다. 버려진 아이였다. 그게 계기가 되어 2009년 12월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두고 갈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베이비 박스에 도착한 생명들은 입양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설에서 길러진다. 1년에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베이비 박스로 오고 있다. 그냥 유기되는 아이의 80% 정도 된다. 베이비 박스가 그만큼 큰 몫을 하고 있다.

하버드의 행정대학원 케네디스쿨을 마치고 홍보전문가로 일하던 김윤지 씨는 처음 베이비 박스 아이들을 돕는 봉사를 했다. 그러다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아이의 부모 중 30%가 자신의 아이를 찾으려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희망적이었다.

베이비 박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류에서부터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윤지 씨는 하던 일을 다 접고 이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위기 임신 모델이 볼 수 있는 품(PUUM)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하고, BtoB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그는 위기 엄마 아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들의 생활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의 미혼모를 구할 수 있다면 전부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영호 관장의 죄우지간

“이곳은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차가운 길에서 죽어갔을 아이들을 구하고 죄책감과 부담감에 짓눌린 엄마들을 구하는 곳입니다.”

-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남자 전업주부는 행복할까?

전업주부로

일하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1월 기준 남성 전업주부는 약 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정도 늘어난 숫자라 한다. 개그맨 이정수 씨는 남성 전업주부로서 유명인사이다. 그는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여 얼굴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2013년 4년 연하 스타일리스트와 결혼 후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정수 씨는 전업주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매일의 생활을 글로 올렸고 그것들을 모아 책으로 펴내고 있다. 최근엔 ‘아이쿠, 오늘도 행복했네’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살림하는 일이 정말 행복하다고 한다. 전업주부이면서 ‘주부 아빠(Daddy J)’라고 스스로 부르는 분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주부로서 두 아이를 기르면서 유튜브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남성이 전업주부 역할을 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첫째는 육아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하고, 둘째는 요리하고 집 정리하고 하는 살림을 배워야 한다. 셋째는 가게부를 쓴다든지 하면서 가사 경제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좀 색다른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남성 주부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는 법 말이다. 하지만, 남성 전업주부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자기를 발견한다고 한다. 남들이 정해준 틀 안에서 생활했던 자기를 발견하고, 또 다른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자기 말이다. 주부 역할에 익숙해지면 다른 일에 도전하는 남성도 많다.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글도 쓰고, 영상도 촬영하고, 가족공예도 한다고 한다. 그렇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남성 전업주부들이 행복한 이유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칙은 ‘지치지 않을 만큼만 하자.’”

- 이정수, 남성 전업주부, 작가

장례식을 영화처럼 꾸미는 장례감독을 아세요?



‘함박웃음, 어머니 시집가시던 날’ ‘왕 할아버지 안~녕’ ‘폴 세잔의 사과’ ‘잘 자라 내 아가!’

‘나들이’ 영화 제목이 아니고 장례식 제목이다.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길원 목사는 장례식을 예사롭게 진행하지 않는다. 장례식이 꼭 슬프고 근엄해야 할까? 죽음을 꼭 끝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그는 죽음 의식을 고인이 살아온 스토리를 그대로 담고 또 고인이 남긴 명대사, 명장면들을 재현하고 싶었다. 이런 송 목사를 사람들은 ‘장례감독’이라 칭한다.

웰에이징(Well-aging), 웰다잉(Well-dying)이라고들 하지만, 죽음을 어렵게 생각하고, 심각하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웰다잉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죽음을 우리 삶의 한 이벤트로 생각하고, 일상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다. ‘죽음이 배꼽을 잡다’는 그가 쓴 책이다. 죽음과 관련된 배꼽 잡는 이야기를 실었다. 평소에 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송 목사는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우절에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부고를 부인 이름으로 냈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더 보기’를 눌러 보면, 거기에 부고는 사실이 아니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게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더 보기를 눌러 본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 후, 송 목사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우절을 ‘유언의 날’로 공포하고 참된 삶을 생각하게 하는 운동도 하고 있다. 송길원 목사는 임종휴가제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임종을 앞둔 부모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미리 갖게 하는 것 말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



시로 직장인 정신치료를 하는 한국인 회사 스프링 헬스

세계 첨단을 달리는 실리콘 밸리,

세상을 바꾸는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명상 프로그램(Search inside yourself)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직원들이 줄을 서 있다.

여기에 시를 이용해 정신치료를 해주는 회사가 등장하여 화제다. 그 회사의 CEO는 놀랍게도 한국인 1.5세대 미국인인, 에이프릴 고이다. 그는 예일 대학을 다니면서 코딩캠프에서 만난 동료들과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앱을 만들어 재미를 봤다. 그러나, 더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 회사를 관두고 공부를 계속하다가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었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 룸메이트의 고통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예일대 의대 박사과정 학생을 만나 논의하다 아예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그 회사가 2016년 탄생한 스프링 헬스(Spring Health)이다. 스프링 헬스는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증상, 병력, 가족력, 사회적 관계 등을 조사한다. 그런 뒤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정신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명상, 온라인 인지행동 치료, 인간관계 상담, 코칭, 자기주도적인 운동 등의 서비스가 있다. 이용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짜인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된다.

이 회사의 이용자는 200만 명을 넘고 있고, 2021년 9월에는 기업가치가 20만 달러까지 치솟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이 되었다. 에이프릴 고는 20대로서 최연소 여성 유니콘 기업 CEO가 된 것이다. 스프링 헬스는 코로나로 더욱더 호황이다. 2021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매출액이 6배나 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우리의 앞이나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허찮은 것들이다”

- 테드 맨 탄,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저자

한국인은 왜 커피를 많이 마시나?



한국인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후 한 잔씩 마시는 사람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는 커피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수입국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커피 소비가 1%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나 증가했다. 인당 소비량을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성인 평균의 2.7배(2018년, 현대경제연구원)나 된다.

인당 소비량에서 우리나라를 뺀다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 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91kg인데 비해, 노르웨이(10kg), 스위스(7.44kg), 캐나다(6.37kg), 미국(4.89kg), 호주(4.61kg), 유럽연합(4.57kg) 등은 4kg이 넘는다. 차를 많이 마시는 일본도 3.5kg으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주로 커피전문점에서 마신다는 이야기다. 인스턴트커피를 사서 먹거나 집에서 내려 먹지 않고 커피전문점(카페)에서 사서 마신다. 시장조사기관 유로 모니터에 의하면, 2019년 한국의 커피전문점(카페)의 시장규모는 5조4천억 원으로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인당이 아니라 절대 규모가 말이다. 커피전문점 매출이 전체 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이 폐업하는 가운데 커피음료점 등록업체는 2020년, 전년 대비 16.6%나 늘었다.

왜 우리는 카페를 많이 이용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 식품이 아닌 것 같다. 우리에게 커피는 커피라는 물건이 아니라, 카페라는 공간과 카페의 분위기, 이런 것을 의미한다. 정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습성과 한국인의 집단주의가 만든 커피문화가 아닐까?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향기다. 집 근처에서 커피콩을 볶을 때면 나는 서둘러 창문을 열어 그 향기를 모두 받아들인다.”

- 장 자크 루소, 프랑스 철학자



인구 12만 명의 도시에 연 100만 명이 찾는 '천국의 서점'

인구 12만의 아담한 도시,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흐트에는 특별한 명물이 있다. 700년 역사를 지닌 수도원 건물 안에 있는 '도미니카년' 서점이 그것이다. 1294년에 지어진 도미니크파의 고딕교회가 2004년 서점으로 탈바꿈했다. 이 건물은 높이 25m, 가로 25m, 세로 40m의 장대한 공간이며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찬란한 햇빛이 쏟아진다. 이 건물은 서점으로 바뀌기 전에도 문화재였으며, 서점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화재다.

도미니카년 서점은 건물이 국가 문화재인 세계 유일의 서점이다. 건축가들은 원래의 건물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건물 내부에 책장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네덜란드 최초의 고딕 건물로 출발했으나,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이 건물은 수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건물은 마구간으로, 물품 창고로, 자전거 보관소로, 식물원으로 그리고 복싱 경기장으로 쓰이다마침내 서점이 되었다. 네덜란드 최대의 서점 체인 셀렉시스가 이곳에 서점을 열겠다고 제안을 했다. '도미니카년 셀렉시스'라고 이름 붙였다. 도미니크 교회 공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2012년 부도를 맞았다. 새 경영자가 나타났으나 이 역시 2014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이 나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 크라우드 펀딩 개시 60시간 만에 5만 유로가 모였고, 1주일 만에는 10만 유로가 되었다. 서점을 살리는데 필요한 액수의 두 배가 된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 서점을 '천국의 서점(Bookshops made in Heaven)'이라 칭송했고, 5만여 권의 책이 있는 이 서점은 연 1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서점에 들어선 사람들은 무심코 계단을 오른다. 걸어 올라가는 서가다. 책의 하늘로 다가선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지상에도 책들의 꽃이 만발하고, 하늘에도 책들의 꽃이 별 무리가 되는 경이로움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언호, 한길사 대표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은 실수의 산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플라스틱 피복으로 싸기도 하고, 전기를 막아 주는 케이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그런데 플라스틱 중에도 전기가 통하는 것이 있다. 전도성 고분자(conductive polymer)라고도 하는데 이게 차세대 소재로 각광 받고 있다.

전도성 플라스틱은 일단 가볍고 가공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LED 디스플레이, 생체인식 바이오칩 같은데는 안성맞춤이다. 최초의 전도성 고분자는 1977년 히거(Alan J. Heeger), 맥더미드(Alan G. MacDiarmid), 시라카와(Hideki Shirakawa)에 의해 발견된 ‘폴리아세틸렌(polyacetylene)’이다. 이들은 이 공로로 2000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이들은 운이 좋았다. 히데키 시라카와는 일본 도쿄 공업대학의 조수로 있으면서 고분자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방문연구원이 자신의 레시피를 잘못 읽고 촉매를 천 배나 많이 넣어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로 인해 고분자 위에 은색 박막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맥더미드 교수가 일본을 방문하여 우연히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만나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히거 교수가 합류하여 전도성 고분자를 최초로 만들어 내게 되었다.

엄밀성을 요구하는 과학에서도 가끔은 엉뚱한 실수가 큰 업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대박을 터트리기도 하고 말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살다 보면 흔히 두 가지 실수를 범한다. 하나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

- 파올로 코엘료, 브라질 소설가



테니스의 여왕 빌리진 킹이 성 대결에 나선 이유

같은 인기 스포츠인데 테니스에서는

남녀 상금 차이가 없는데 골프에서는 차이가 크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상금은 남녀 모두 30억 원이 조금 넘는다. 골프 메이저 대회의 경우, 남자는 25억 원 수준인데 여자는 10억 원이 채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테니스도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녀차이가 심했다. 그러나 테니스에서는 이 차이를 없애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빌리진 킹(Billie Jean King, 1943년생)이다. 12살에 라켓을 잡은 그녀는 1961년 Wimbleton 복식 우승 이후 착실히 성적을 쌓아가서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고, 총 39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 타이틀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선수였다(단식 12회, 복식 16회, 혼성 11회).

여자테니스 선수는 시합에서 오래 스커트 유니폼을 입어야만 했는데, 킹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반바지를 입고 LA 테니스클럽 토너먼트에 참가했다가 옷차림 때문에 참가선수 단체 사진 촬영에서 제외되는 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녀는 이런 차별을 견딜 수 없었다. 1973년 그녀는 남자 선수에 비해 보잘것없는 상금을 여자 선수에게 주는 임금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테니스연맹(WTT)을 별도로 만들었다.

급기야 그녀는 여자 선수를 비아냥대는 남자 테니스 챔피언 바비 리क्स(Bobby Riggs)와 공개리례 성 대결을 펼치기로 하였다. 바비 리क्स는 55세의 은퇴선수이기는 했으나 Wimbleton 우승자였다. 세계 랭킹 1위를 세 번이나 한 강자였다. 29세의 빌리진 킹과의 대결은 예측 불허였다. 1973년 9월 20일 휴스턴에서 벌어진 세기의 성 대결은 전 세계 9천만 명 이상의 테니스 팬들이 TV로 시청했다. 결과는 3대0 스트레이트로 킹이 승리했다. 이 사건은 2017 할리우드에서 ‘성의 전투’(Battle of the Sexes)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남녀 주연배우 모두 골든 글로브를 수상했다. 이런 일을 계기로 1973년 US 오픈을 시작으로 2001년 호주오픈, 2006년 프랑소오픈, 2007년 Wimbleton이 남녀 상금의 차이를 없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모두가 즐겨워야 스포츠다.”

-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들의 행동을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재미 이론(Fun Theory)



지하도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용할까? 대부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지나치게 이용하면 너무 붐비거나 기계 고장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에스컬레이터 이용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200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밤새 작업을 해서 지하철 계단을 피아노 건반으로 바꿔놓았다. 뜻밖에 건반을 발견한 시민들은 시험 삼아 건반을 밟았고, 계단에서 나는 소리를 신기하게 들었다. 흥미를 느낀 시민들이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 계단을 밟으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측정해보니 계단 이용자가 평소보다 66%나 늘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후원하는 공익 프로그램이었다. 폭스바겐에서는 이를 재미 이론(Fun Theory)이라고 했다.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공원에서 휴지를 가져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깊은 심연에 돌맹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쓰레기통도 등장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의 남자 소변기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소변이 밖으로 튀는 양을 80% 줄인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재미 이론을 적용할 때는 너무나 많다. 차를 안 타고 걷게 하기,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오르게 하기, 식사량을 줄이게 하기,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가게 하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 하기 등등.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껴서 할 수 있게 만들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조금 각도를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그냥 운동해라. 재미를 느껴라. 경기를 즐겨라.”

- 마이클 조던, 미국 농구선수



푸드 업사이클링을 아세요?

폐기물을 좀 더 창의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업사이클링(upcycling)이라고 한다. 우리말로로는 ‘새활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의류나 가방을 만들고, 의류 제조에서 남은 천을 모아 다른 패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식품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과자나 친환경 먹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식혜와 맥주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국민 1인당 527kg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280억 원에 달할 정도다. 식품공장 폐기물을 퇴비나 동물 사료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산물이 너무 많이 나와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부산물을 가공 처리하여 빵, 파스타, 과자 등 새로운 식품으로 탈바꿈시키는 회사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초 푸드 업사이클링 회사 리하베스트가 그 회사다. 창업자는 민경준 씨다.

민경준 씨는 2019년 8월 이 회사를 창업했다. 그는 파리에서 미슐랭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문득 생각이 났다. 이런 식당에는 고급 음식들이 남아 버려지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는 인도네시아 맥주 공장에서도 부산물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드는 리사이클링 원료 리너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밀가루보다 단백질이 3배, 섬유질이 10배나 풍부하다. 리하베스트는 창업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배나 성장했다.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인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컨설턴트 출신인 민경준 씨는 부산물 처리를 하는 독특한 공법을 개발했고, 투자자들과도 잘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앞으로 처리 대상 부산물의 영역도 확대하고, 최종제품도 다양화할 구상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업사이클링이란 낡은 제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 리너 필츠, 독일 디자이너(업사이클링 개념 창시자)

슈바이처는 왜 30살에 의대에 진학했나?



슈바이처는 독일 영토였다 프랑스 영토로 바뀐

알자스의 소도시 카이제르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38세이던 1913년부터 1965년 90세로 타계할 때까지 적도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레네에서 병원을 세워 어려운 사람을 위해 평생 의료봉사를 하였다. 이 공로로 그는 195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밀림의 성자’로 추앙받았다. 그는 평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reverence for life)를 외쳐 세상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런 슈바이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훌륭한 의사라는 사실 말이다. 그러나 그가 30살이라는 뒤늦은 나이에 의과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대학교수이면서 목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슈바이처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의학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는 철학박사를 따고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박사도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오르간을 연주하여 파이프오르간 연주가로서도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부한 분야에서 여러 저술도 남기고 있었다.

그런 그가 30세에 돌연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삶을 구상했다.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는데, 이러한 행복을 나만 누려도 되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대학생 시절부터 간직해 온 꿈이 있었다.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꿈 말이다.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그 봉사를 위해 의학 공부를 늦깎이로 시작했다. 그리고선 의학박사가 된 다음 프랑스 식민지였던 가봉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나는 여러분의 운명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섬김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깨달은 사람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 알베르트 슈바이처, 의료봉사자, 신학자



세계 유일의 똥 박물관은 어디에 있을까?

‘미스터 화장실(미스터 토일렛)’로

불리는 분이 있다. 1995년 민선 1기 수원시장을 지낸 심재덕 씨가 그분이다. 그는 민선 시장을 두 번 하고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가 수원시장을 하면서 이룩한 일들은 어마어마하다.

수원천 되살리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복원,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2002년 월드컵 수원 경기 유치, 광교신도시 조성,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세계화장실 문화혁명 등등.

그중에서도 그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한 일이 화장실 문화혁명이었다. 1997년부터 시작한 이 운동은 후에 수원시장을 3 연임한 염태영 씨가 민간 환경운동가로서 실무를 맡았다. 추진팀은 유럽 여러 도시의 공중화장실 사진을 찍고 자료를 모았고, ‘전국 화장실 심포지엄’도 열었다. 당시 참석 요청을 받은 지자체들은 화장실을 주제로 심포지엄까지 하나며 손사래 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의 화장실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국도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수원시를 찾아 배워갔다.

심재덕 씨는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WTA)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지내며 세계화장실 문화를 바꾸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WTA 창립을 기념해, 30여 년간 살던 수원시 이목동 자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변기 모양의 전시관인 해우재를 만들었다. 2009년 1월 심재덕 씨가 타계하자 유족들은 이 시설을 수원시에 기증하게 되었고, 일명 ‘똥 박물관’이라 불리는 화장실 문화 전시관이 일반에 개방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화장실 박물관이 이렇게 수원에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심재덕 씨를 비롯한 수원시의 선각자들 때문이라 할 것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 심재덕, 전 수원시장, 전 국회의원

대학을 중퇴해야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이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과 함께 페이스북을 창업하고 페이스북 투자자인 억만장자, 피터 틸이 만든 '틸 장학재단(Thiel Foundation)'이 그 재단이다. 여기서 주는 장학금을 틸 펠로십(Thiel Fellowship)이라고 한다. 2011년 5월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대학생에게 2년간 쓸 수 있는 돈 10만 달러(약 1억2천만 원)를 준다. 다만, 이 기간에 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에 전념해야 한다.

틸 재단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교실에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하라.” 장학금이라고 하면 보통 대학 공부를 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면, 장학금은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틸 장학금은 그 반대인 것이다. 매년 22세 이하의 학생들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자가 몰려들고 있다. 1회 장학생은 24명을 뽑았다. 이들 중에는 14세에 MIT에 입학한 학생인데 불로장생약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천재 소녀도 있었고, 우주에 나가 소행성과 혜성에서 광물을 채취하겠다는 닥터머스 대학생도 있었다.

2022년도 3월에 발표한 틸 장학생은 23명이었다. 장학금을 받은 분야는 항공, 의료,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분야였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Branch.gg(메타버스 소셜 게임 플랫폼), Anchor(DeFi 저축 프로토콜), Rachel(IP 블록체인 기술 구축)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틸이 이렇게 희한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대학교육이 갈수록 쓸모없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빛을 내서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며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 차라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일찌감치 도전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며, 대학 중퇴를 장려하는 것이 바른 일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하지만, 틸 재단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은 다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 피터 틸, 틸 재단 설립자



에스프레소 향기에 반해 커피점을 창업한 사람은?

그는 자주

아파트의 계단으로 몸을 피했다. 아빠 엄마가 큰소리치고 싸울 때면 오래 아파트 계단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을 했다. 농구선수가 되어 뛰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뉴욕 양키스에서 야구 선수로 홈런을 날리는 꿈도 꾸었다. 그는 작은 계단에 앉아 있었지만, 저 너머의 넓은 세상을 상상했다. 그는 후에 스타벅스를 일으킨 하워드 슈츠(Howard Schultz)이다.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

슈츠는 스타벅스라는 회사에 취직해 있었다. 스타벅스는 원두를 판매하는 회사였다. 당시는 소비자들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이 대세였다. 슈츠는 여기서 1년 일하면서 커피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이탈리아 출장을 가서 밀라노의 한 에스프레소 커피점을 들릴 때까지는 말이다.

슈츠가 커피점에 들어가자 깡마른 체형의 이탈리아 남자가 인사를 했다. 이웃을 맞이하는 것 같은 미소로 말이다. 막 분쇄한 원두 가루에서 나오는 커피 향은 온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슈츠는 원두를 갈고 계량하며 바스켓에 채워 넣는 바리스타의 몸동작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하나의 예술이었다. 슈츠는 여기서 새 비즈니스를 생각했다. “음료를 팔고, 고객과 바리스타가 담소를 나누고, 고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귀국 후 스타벅스 경영자들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슈츠는 스스로 가게를 차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이 탄생하게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늘 크게 생각하세요. 더 크게.”

- 하워드 슈츠, 스타벅스 CEO

새를 관찰하기 위해 특별한 지역으로 가야 하나?



새를 관찰하는

취미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 영국은 일백만 명이 넘고, 미국은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몇천 명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런데 탐조인들은 아름답고, 희귀한 새를 보기 위해 멀리 떠난다. 철새 도래지를 찾기도 하고, 섬으로, 산으로, 강 끝으로 간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세계 탐조 여행도 조직하고 있다. 올해 6월과 7월만 18건의 여행프로그램이 공지되어 있다.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새를 찾아 멀리멀리 다녀온다.

그런데 새를 보기 위해 이렇게 꼭 특별한 곳으로 가야 할까? 수원에 사는 박임자 씨도 탐조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는 지방으로 탐조 여행을 다녔다. 그런데 2018년, 팔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베란다에 흥시와 물을 두었더니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흥여새, 동박새 등이 날아왔다.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 동네에서 새를 관찰하자.’ 그녀는 언니,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탐조단’을 만들고 주민들을 모았다. 아파트 곳곳에 찾아오는 새를 쌍안경으로 관찰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어머니 정맹순 씨는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난생처음 해본 일이었다. 자신이 그림 솜씨가 있다는 것도 이 일로 알게 되었다. 맹순 씨는 새 그림으로 달력도 만들고, 아파트 새 지도도 만들었다. 박임자 씨는 원래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접고 새 전문가로 변신했다. 아파트 탐조단도 세계 최초이지만 ‘탐조 책방’도 국내 1호로 만들었다.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하면 새와 눈을 마주치게 되죠. 그 순간 관계가 형성되고, 잊을 수 없는 한 가족이 된답니다.” 박임자 씨가 새에 빠진 이유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탐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 이병우, 에코버드투어 대표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호주 출신의 작가이자 죽음을 목전에 앞둔 환자들을 수년 여 동안 병간호한 브로니 웨어(Bronnie Ware)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다양한 삶을 산 사람들이지만 삶에 대한 후회는 비슷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다섯 가지를 골라 책으로 펴냈다(2012).

그 다섯 가지가 어떤 것일까?

1.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했다.
2. 직장 일에 너무 바빴다.
3.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4.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5.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결코 어렵지가 않다. 위 다섯 가지를 뒤집어 실천하면 된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미국 대학을 두 번 입학하고, 군대를 두 번 입대한 사람



본명이 박재상인 싸이(PSY)는

엄격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하는 아버지는 FM대로 아이를 훈육했다. 싸이는 그런 환경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끼가 있었으며, 사람을 웃기는 거로 주목을 받고 싶었다. 옥스퍼드 대학 연설에서 그는 못생긴 얼굴로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다양한 것을 창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공부를 뒷전으로 미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그가 아버지에게 유학을 하러 가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기특하게 생각했지만, 진의를 의심했다. 토익 550점을 받아 오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싸이가 유학을 가겠다고 한 것은 공부보다는 아버지로부터의 탈출이었다. 그는 한 달 빠르게 공부하여 토익 성적을 580 받았다. 그래서 미국 보스턴 대학 국제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경영학 공부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몰래 준비를 해서 버클리 음대에 합격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들통이 나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의 손엔 그가 작곡한 힙합곡 50곡이 있었다. 그러나 기획사를 50군데 이상 찾아갔으나 한곳에서도 자기 곡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PD들이 모여 있는 건물에 들어가 이상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소리도 질렀다. 거기서 발탁이 되어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강남스타일’(2012)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는 가수 활동 중에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특례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 공연을 다녔기 때문에 부실근무로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재입대하였다. 그래서 싸이는 대학도 두 번 입학하고, 군대도 두 번 입대한 사람이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지치면 지는 것이고, 미치면 이기는 것이다.”

- 싸이(박재상), 가수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

65세 이상 노인이 취업자가 되어 일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2020년 기준 자료를 보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 15.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9%로서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한다. 아이슬란드 31.0%, 일본 24.1%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 노인으로서 고립감을 낮추고 자아실현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데도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사실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3.4%에 이른다. OECD 1위로, 회원국 평균 15.7%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한국 노인 40% 이상이, 벌이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중위소득)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일하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계형 취업이라는 이야기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일하게 되는 악순환이다. 노인 취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이다.

노령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고령 근로자는 판단력이 우수하고 업무의 질을 중시하고 근태와 시간도 잘 준수한다.”

- 미국 노동부

보통 사람은 속여도 시각 장애인은 안 속이는 이유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신가요?”

교통신호를 어긴다든지, 남의 집 과일을 따 먹는다든지, 회사 용품을 집에 가져가서 쓴다든지, 골프 스코어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것 말이다. 사실 사람들은 범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생활 속에서 사소한, 그리고 의식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 부정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다.

과연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탐구하는 실험을 해보았다. 평균 4문제 정도 맞추는 문제를 6개 문제 맞추었다고 부풀렸다. 33% 정도 부정행위를 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상인들도 구매자들을 많이 속인다. 일상적으로 말이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좀 낯익은 실험을 했다. 실제 시장에서 상인들이 시각 장애인에게 토마토를 팔게 했다. 시각 장애인을 속여 토마토를 덜 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보통 사람들에게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넣어주었다. 택시 기사도 시각 장애인을 손님으로 모실 때 보통 때보다 단거리로 모셨다. 실험을 통해, 보통 사람은 속여도 시각 장애인은 오히려 안 속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조금씩 부정을 저지른다. 하지만, 자신이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범위 안에서 말이다.”

[참고: 댄 애리얼리(이경식 역),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 청림출판, 2012]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사람들은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과 부정행위로 이득을 얻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 행동경제



건물의 층 높이가 높으면 사람들이 창의적이 되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소크 연구소(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는

세계 최초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나스 소크(Jonas Salk) 박사가

1960년에 세운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신경과학과 행동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가 11명에 이른다. 소크 연구소는 연구성과로서도 유명하지만, 건축적으로도 독보적이다. 소크 박사는 연구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려면, 창의적인 연구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계 최고 건축가 중 한 명인 루이스 칸에게 건축 설계를 맡겼다. 그리고 특별히 건물의 층높이를 높게 해달라고 했다.

1950년대 초 피츠버그 대학의 지하연구실에서 소아마비 퇴치법을 찾고 있던 소크 박사는 연구가 벽에 부딪혀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는 기분전환을 위해 이탈리아 중부의 13세기 중세 수도원으로 떠났다. 높다란 기둥 사이를 한가롭게 거닐던 순간 소크 박사는 '사균(死菌) 백신'의 영감을 떠올렸고, 결국 소아마비 정복의 길을 열게 됐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깨우친 게 있었다. 공간이 인간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건물의 층높이가 높아야 창의적으로 된다는 사실 말이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조안마이어서-레비 교수는 천장 높이가 각각 3m와 2.4m로 다른 분 구조는 똑같은 두 방에 100명을 나눠 넣고, 동일한 문제와 퍼즐을 풀게 했다. 그 결과 높은 천장 아래서 문제를 푼 사람들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반면 낮은 천장 쪽 사람들은 정해진 범위의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데 강점을 보였다.

소크 박사의 영감과 행동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 건물의 층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세기 내내 평균 2.4m였던 천장 높이는 1990년대 후반 2.7m로 높아졌고 최근 신축 중인 빌딩들은 평균 3m 수준이다. 네이버의 분당 건물은 무려 3.8m나 된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희망이란 꿈에 있고 상상력에 있으며, 꿈을 실현해 주는 것은 사람의 용기이다.”

- 요나스 소크 박사, 소아마비 백신 개발자

왜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즐기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면

극장가와 방송계에서는 ‘납량 특집’을 내 보낸다. 서늘함을 느끼게 해주는 공포물들을 상영하는 것이다. 공포 영화를 보면 시원해질까? 그리고 무서운 공포 영화를 왜 사람들은 즐길까?

사람이 무서움을 느끼면 살기 위해 생리적으로 자동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우리 뇌의 원초적인 부분인 편도체가 작동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곧 적과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진다. 동공이 커지고 피가 근육으로 쏠린다. 그러다 보니 피부 주변의 혈관이 수축해 혈액량이 줄어들고 핏기가 사라지면서 서늘함을 느끼게 된다. 공포 영화를 보면 시원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즐길까? 사실 사람들은 공포를 피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왜 일부러 공포를 찾는 것일까? 공포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더욱더 공포스러움을 찾는다.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은 지능이 발달한 묘한 동물이라 평화와 안정이 계속될 때, 묘한 불안을 느낀다. “이러는 사이에 갑작스러운 위험이 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적 불안 말이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안이하게 살고 있다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까지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본다는 것은 일종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죽음에 대한 공포, 모르는 존재에 대한 공포는 무섭지만, 그다음은 뭐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는 즐거움은 있다.”

- 구로사와 기요시, 일본 영화감독



똑똑한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삶을 살까?

미국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격인

SAT에서 0.01%에 해당하는 5,000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IQ로 치면 155를 넘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의 반 이상이 박사학위를 취득했고(미국인 평균은 1%가 안 됨), 역시 절반가량 교수나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되었다. 13.6%는 의사나 변호사였다. 이 자료만 보면 지능지수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나오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음주율, 흡연율이 높고, 마약 복용률도 높다. 지능이 높다고 해서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인간관계,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인류가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것, 근대에 나타난 문제 풀이는 잘하는 데 비해,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해 왔던 것, 그리고 종족 유지와 번식에 매우 중요한 원초적인 것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 참 모순이고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진화심리학자 가나자와 사토시(Satoshi Kanazawa: 런던정치경제 대학교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지능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똑똑한 사람이 바보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똑똑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현상 말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 가나자와 사토시,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

드림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세계 랭킹 131위였던 아이슬란드 남자 축구팀이

유로 2016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세계 최고 24개 팀에 들어간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대회 사상 본선에 진출한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했다. 인구 33만밖에 안되며, 북극 근처에 위치해 연중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된 이 나라가 이런 쾌거를 이루다니. 사람들은 놀랐다. 우연일까?

아이슬란드 팀은 본선 1차전에서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과 무승부를 기록했고, 2차전에선 헝가리 와도 무승부를 이뤘으며, 3차전에선 오스트리아를 2:1로 이겼다. 그리고 4차전(16강)에선 축구 중주 국민 잉글랜드를 2:1로 격파했다. 이걸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전적이었다. 아이슬란드의 질주는 8강전에서 멈추었지만, 스타 플레이어 없이도 훌륭한 팀이 될 수 있다는 멋진 사례를 남겼다.

선수들이 훌륭하면 팀이 훌륭해질까? 멤버들이 똑똑하면 팀이 성공할까? 좋은 팀이 되려면 좋은 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스포츠팀을 연구해보니 팀 내에 우수 선수의 비율이 5~60%를 넘어가면 팀의 성과는 급격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었다. 팀의 성과는 팀원들 개인 기량의 평균이 아닌 것이다. 스포츠나 연구소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디서나 말이다.

그래서 드림팀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Q가 높은 사람도 필요하고, 낮은 사람도 필요하다. 외향적인 사람도 있어야 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이 섞여야 한다. 전공도 다양해야 한다. 물론 남녀가 혼성이어야 하고 말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공동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사회적 지능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능력 말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우리는 전체의 조직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와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다름이 축하받고, 존중받을 것이며, 다름은 곧 집단 창의성의 연료가 될 것이다.”

-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IDEO 홈페이지



조부모의 손주 양육, 좋은 점이 무엇인가?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건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의 83.6%는 조부모였다. 조부모의 아이 양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은퇴 후 아이를 돌보는 것을 ‘황혼 육아’라 하기도 한다. 대를 넘어 교육한다고 해서 ‘격대교육’이라고도 한다.

황혼 육아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 자선단체 ‘Age UK’에 따르면 50세 이상 조부모의 40%가 정기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영유아의 50%, 초등학교생의 35%, 10대의 20%가 매주 정기적으로 조부모와 시간을 보낸다는 연구가 있다.

나이 든 조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좋은 점이 많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한 연구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손주의 정신적 어려움이나 친구 관계 문제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등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조부모의 도움은 자녀 출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지나쳐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심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적정성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육아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돕는 프로그램도 절실히 지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조부모는 교육자도 아니고 아동 전문가도 아니다. 조부모의 역할은 지식이나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을 즐기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 미래교육, 에듀뉴스

지금은 미술작품에 투자할 때인가?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젊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들이 주식 투자에도 열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8년 초 31%였는데 2020년 말 35%로 늘었다. 특히 20대는 15%에서 28%로 늘었고, 30대는 31%에서 39%로 늘었다. 코스피 주가지수도 2018년 말 2,000포인트 수준에서 2022년 초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그 후 주식 시세는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50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도 800선으로 떨어졌다.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방향하고 있다. 코인 시장에 들어가기도 위험하고 부동산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소위 아트 컬렉터가 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신규 투자자들은 이미 아트 컬렉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산한 2021년도 한국 미술시장 전체 규모는 9,157억 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였다. 그림에 대한 투자는 주식 투자와는 다른 맛이 있다. 단지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우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림에 대한 평가가 주식만큼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증권사 애널리스트이자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면서 아트 컬렉터인 김정환 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만한 작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김정환(53) GB투자자문 대표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반짝 떴다가 지는 작가는 수도 없이 많다. 실패 없이 아트 컬렉팅을 하고 싶다면 미래 가치가 있는 작품을 고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는 만큼 돈이 된다.”

- 투자 격언



담양 죽녹원이 관광명소가 되기까지

전남 담양군은

대나무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전체 대나무밭 면적의 36%를 담양이 차지한다고 한다. 담양은 연평균 기온 14°C, 연간 강수량 1,400mm 안팎으로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특히 죽순이 나는 3월부터 6월까지 비가 자주 와 죽순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담양 사람들은 상당수가 대나무 관련하여 생계를 꾸려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담양군 2만 6천여 가구 중 약 30%인 7천여 가구가 죽세공예와 대나무밭 관리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면서 죽세공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플라스틱이 죽세공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담양을 재탄생시킨 사람 중 최고의 공로자는 최형식 씨라 할 수 있다. 그는 1955년생으로 1991년부터 10년 이상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에는 민선 3기로 담양군수가 되었다. 그는 대나무 숲을 살려 관광지로 만드는 구상을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를 반대했다. 죽세공도 안 되는데 무슨 관광 사업이냐고 말이다. 그는 군의회 의원들에게 중국 저장시에 있는 대나무 도시 안지현(安吉縣)을 견학하도록 했다.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으나 많은 주민은 여전히 쓸데없는 짓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최형식 군수는 뚝심으로 일을 추진했다. 향교가 소유하고 있던 대밭을 임대하고, 주변의 대밭을 군 재정으로 매입하여 2003년 5월 죽녹원을 개장했다. 인구 4만 6천 명의 담양군은 죽녹원 덕분에 관광객이 매년 120만 정도 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담양주민들은 이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리더는 표를 의식해서 당장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보다는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일해야 한다.”

- 최형식, 전 담양군수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 해결법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32.4%였던 이 비율이 2020년 62.5%로 증가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변했을까?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20%에 머물고 있다. 가사 분담 시간으로 치면, 2019년 현재 여자가 남자의 4배 정도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맞벌이 부부는 좀 다를까? 이들도 별 차이가 없다. 맞벌이 부부도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이상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2014년 통계로 4.7배였는데 2019년 3.5배로 낮아진 정도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변호사인 이브 로드스키(Eve Rodsky)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자신도 남편 못지않게 바쁘게 일하는 전문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자신이 도맡아 하게 된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이 죄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다. 그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브 로드스키는 가사노동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우선 일을 가시화시키고 측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표시도 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되지도 않는 가사노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을 분류하여 100장의 임무 카드를 만들었다. 가사노동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부가 이 카드 100장을 적절히 나누면서 일을 했다. 이브 로드스키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다른 가정을 돕는 컨설턴트가 되었으며, 책을 써서 이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다.(이브 로드스키, 페어 플레이 프로젝트, 메이븐, 2021)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우리 집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처럼 다루면, 즉 집안일을 가장 중요한 회사 일처럼 다루면,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 이브 로드스키, 페어 플레이 프로젝트 저자



가장 교육적이지 않은 동화를 쓴 가장 유명한 동화작가

‘말괄량이 삐삐’는 주인공 삐삐라는

소녀가 벌이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담은 동화다. 영어로는 삐삐 롱스타킹(Pippi Longstocking), 스웨덴어로는 삐삐 롱스트룀프(Pippi Långstrump)라고 한다.

삐삐의 말에 따르면 엄마는 천국에 있고 아버지는 식인종의 왕이다. 동거인은 없지만 낚스 씨라는 원숭이 한 마리와 꼬마 아저씨라고 부르는 말 한 마리와 함께 산다. 그러면서 삐삐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어른들을 놀려주는 것이 일상이다. 매우 영리하고 용감하지만, 예의범절이 없는 것임은 물론이고, 허풍도 떨고, 거짓말도 한다. 하여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어른들의 삶에 끼어두고 어른들을 놀린다.

이 동화를 쓴 사람은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다. 그녀는 1941년 겨울에 폐 질환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는 일곱 살 난 딸 카린을 위해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 딸 아이가 용기를 내서 빨리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딸의 성화에 이야기는 점점 늘어났으며 1945년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동화는 대체로 이런 식이다.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이거나, 교육적이지 않다. 단지, 아이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어른의 시각으로 단정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었다.

1970년대 이후 스톡홀름의 우체국은 격무에 시달려야 했다. 아스트라 린드그렌의 집으로 매일같이 몇 자루의 우편물을 배달해야 했다. 린드그렌이 세상을 떠난 2002년 1월까지 전 세계에서 받은 팬레터가 7만 5천여 점이나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아들딸이다. 아이들은 당신을 거쳐왔지만, 당신한테서 온 것이 아니다. 비록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이 당신의 소유는 아니다.”

- 칼릴 지브란, 레바논 시인

여행이 교육이다

A 씨 내외는 중학교 1학년 손자를 데리고

1박 2일 강원도 여행을 했다. 하이원 리조트에서 1박은 하되,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태백과 영원까지 구경하기로 했다. 손자에게 이곳에서 보고 싶은 곳을 미리 찾아보게 했다.

손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태백이 탄광지역이었으며, 탄광에서 많은 사고가 났었고, 여러 가지 애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영월에 대해 찾아보면서 단종의 유배지와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당시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자고 해서 그냥 놀러 간다고 나선 여행이었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탄광 이야기를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역사 공부할 때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단종에 대해 깊이 알 수 있게 되어 손자는 이번 여행이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했다.

여행은 우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주고, 새로운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재미를 준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도 한다. 그런데 여행을 단지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도 시도하게 된다. 가끔은 여행이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히말라야 여행을 하면서 대자연의 힘을 깨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한다. 18세기 영국의 상류층에서는 자녀들을 유럽대륙으로 여행을 보내 교육을 했다. 그들은 이를 그랜드 투어(Grand Tour)라 했다. 그런데 자녀들과의 여행이 더 교육적으로 되려면, 출발하기 전 약간의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다녀온 다음 정리하고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녀의 나이에 맞게 말이다.

* 이 내용은 2022년 9월 27일(97호) 실제 발행된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여행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고,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선 더욱더 필요한 교육방법입니다.”

- 서효봉, 여행이 교육이 되는 순간



한글 띄어쓰기를 시작하고 현대화시킨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한글은 세종실록에 의하면,

임금께서 친히 만든 글자다.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께서 서기 1443년에 완성하여 3년이란 시험 기간을 거쳐 1446년에 세상에 반포하였다. 당시는 28자였으나 오늘날은 24자를 쓰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그 편리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글은 24개의 자음, 모음만으로 컴퓨터 자판 내에서 모든 문자 입력이 가능한 문자다. 일본, 중국 문자보다 입력 속도가 무려 5~7배 빠르다고 한다. 세종대왕께서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시기도 했을까? 그런데 한글이 처음 발표될 때는 띄어쓰기가 없었다. ‘훈민정음’은 말할 것도 없고, 홍길동전 같은 한글 문헌에도 띄어쓰기가 없다.

한글 띄어쓰기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띄어쓰기가 적용된 최초의 한글 문헌은 1877년 존 로스가 펴낸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이다. 존 로스는 한글 문장을 영어식으로 띄어 쓰고, 여기에 영어 단어로 발음을 표기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였던 존 로스는 후에 한글 성경을 간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후 1896년 4월 7일 간행된 독립신문에서 한글 띄어쓰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 주시경,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 호머 B. 헐버트(1863-1949) 등이 만들었다. 한글의 현대화에 이 헐버트의 역할이 지대했다. 헐버트는 주시경과 함께 맞춤법과 한글을 연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띄어쓰기와 점찍기를 도입했다. 헐버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만들어 냈다. 사민필지는 지리 교과서로서 1891년 발간되었으며 초판으로 2천 부를 찍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채보하여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헐버트는 한글과 한국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중국인들도 어려운 한자보다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였다. 고종황제의 특사로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한국 땅에 묻혔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 호머 B. 헐버트, 미국인 선교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화창조자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나?



오랫동안 출판 편집자로 일해온 이대건 책마을해리 대표는
고향인 전북 고창에서 ‘책마을해리’를 열고,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발견해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문화 불평등을 겪는 지역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에게 자신의 꿈과 삶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주고 싶었고 이렇게 하여 지역의 인구 유출도 막아보고 싶었다.

이대건 대표는 아쇼카(Ashoka)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 일을 수행했다. 사회적 기업 1호로 평가받고 있는 아쇼카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생업에 지장을 느끼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구이다.

아쇼카를 만든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은 학창 시절부터 남을 돕는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인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창업가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변화를 창조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그들을 네트워킹화하는 일을 그는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쇼카를 1980년 설립했다. 그는 기금을 모아서 사회적 혁신가를 지원한다. 아쇼카라는 이름은 인도를 통일한 후 밝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인도 왕 아쇼카를 기리기 위해 붙인 것이다.

2013년부터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아쇼카는 전 세계에서 매년 150명 정도의 펠로우를 선정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변화창조자(Change Maker)로 만든다”는 꿈을 꾸면서 말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총 15명의 아쇼카 펠로우가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아쇼카는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인 세상을 꿈꿉니다.”

- 아쇼카 홈페이지



도서관이 달라지고 있어요

도서관이 달라지고 있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책을 소장하고 빌려주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도서관은 일종의 열람실 기능을 했다. 실제로 대학의 도서관들이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한 열람실을 많이 확보하였으며, 학생들은 열람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도서관이 학습·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1인 미디어를 생산하는 스튜디오와 동아리 공연장,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무대, 학생들이 바닥에 누워서 공부하고 휴식할 수 있는 쉼터,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정하는 공부방도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기본 디지털 장비에서부터, UV프린터, 듀얼 히터 프레스, 선반 공작 장비, 가죽 공예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고 제품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도서관도 카페는 이제 필수 시설이 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도서관도 개관하고 있다.

도서관의 변신은 2015년 이후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일차적인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이책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도서관의 기능이 바뀐 셈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가 이때 많이 바뀌게 되었다. 교실에서 지식을 전수하는 학습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뭔가를 만들어 보고, 창안해보는 학습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고 창업하는 경우도 늘었다. 도서관이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학생들에 의해 토론이 이뤄지고 각종 활동이 일어나는 시끄러운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

배우러 **와** 총모임집

4부

**끝없이 배우는
사람들**

3초에 마감되는 대학의 Sex 강의



세종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PC방을 이용해야 하는 수업이 있다. 수강 신청 시간이 되자마자 마감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른 PC방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강의를 ‘광클릭 강의’ ‘3초 컷 강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배정원 교수가 담당하는 교양과목 ‘성(性)과 문화’가 바로 그 과목이다.

그 과목에서는 성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심지어는 성기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성과 문화의 백미는 ‘만 원의 행복’이라 불리는 데이트하기 과제이다. 수강생들은 준비를 뽐아 짝을 정하고 실제로 데이트를 한 후 리포트를 쓰고 발표도 해야 한다. 데이트는 4시간 동안 그리고 비용은 1만 원을 써야 한다. 이 데이트 비용은 남녀가 더치페이다.

데이트하기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남녀가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헤어졌는데 남자는 상대에 대해 호의적인 리포트를 쓰고,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 어쩌다 두 사람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게 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학생은 난감해진다. “무슨 일일까?” 남학생은 고민에 빠진다. 그런데 여학생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는 많은 것을 배운다. 자신이 여학생에게 잘해주겠다는 욕심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 말이다.

어떤 경우는 이미 사귀고 있는 커플이 수강하기도 한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두 사람은 남녀관계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 생겨 헤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고 재결합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서 결혼에 골인한 커플이 배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하기도 한다.

Sex를 이야기하고, 데이트도 하게 하는 이 수업이 인기가 없을 수 없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수업에 열광하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렇게 중요한 남녀문제와 성에 대해 다른 데서는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체대로’ 말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남녀궁합은 성보다도, 성격보다도, 가치관이라는 것을 결국 깨우치게 된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는 만나라고 해요.”
- 배정원, 세종대 겸임교수

“군자는 경계할 점이 세 가지가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못하니 색을 경계해야 하며, 장년에 이르면 혈기가 바야흐로 강하니 투쟁을 경계해야 하며,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쇠하니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 논어



신참 간호사의 절반이 간호사를 포기하는 이유

대학 간호학과의

인기는 대단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정원을 못 채우는 학과가 늘어나고 있지만, 간호학과의 입시 경쟁률은 치열하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 강원대학은 경쟁률 50대 1을 기록했으며, 가천대와 삼육대는 30대 10이 넘었다. 전국 16개 대학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2022학년도 경쟁률은 이보다 더 높았다.

간호대학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간호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간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보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간호사는 취업도 잘 되고 직장이 보장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힘든 공부를 마치고 전도유망한 직업 생활을 시작했건만, 신참 간호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예 간호사 직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간호사의 47.7%가 입사 후 1년이 채 안 돼 현장을 떠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이 많고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가 처음 입원할 때 신장·체중·혈압·맥박·호흡량 등의 검사를 진행한다. 간호사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간호사는 또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 병용 금지 약물, 복용 약물을 점검한다. 방대한 양의 약물이 제대로 처방됐는지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약 복용과 수액 투여도 직접 해야 한다. 심야엔 수면 중인 환자들에게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라운딩(순찰)을 돈다. 외과에서는 수술 전 물품 준비, 수액 확인, 혈압측정기 준비 등을 해야 하며, 수술 후엔 체내 배액관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연 몇 사람의 환자에 대해 이런 일을 간호사가 할까? 무려 12명이나 된다. 간호사가 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야간 교대도 한다면 어떨까? 해외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일본 7명, 미국 5.4명, 캐나다와 호주 4명 수준이라 한다. 우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1인당 12명을 볼 수 있다. 일부 병원은 12명 제한을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굳이 의사의 진료가 아닌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호’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제라도 ‘간호’는 ‘의사의 하위 체제’로부터 구분되어야 할 때다.”

- 박성정, 사단법인 인문학당 달리 소장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교도소 재소자들



문 씨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 그가 쓴 감사일기에는 이런 것이 적혀있다.

- 이곳에 오기 전 교도소의 시설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수용소 생활하기엔 적당해서 감사합니다.
- 교도소 내에 당번제가 시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날씨가 매우 더운 요즘 수용자들을 위하여 얼음물을 나누어 주어 감사합니다.
- 가족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문 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감자다. 그가 처음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허송세월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교도관들로부터 감사일기를 소개받고 한번 써보기도 했다. 감사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는 쓸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매일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이제는 매사가 감사할 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100 감사’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나를 아껴주는 가족에 대해서도 그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었다. 교도소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고맙게 느껴졌다.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한다.

2019년 4월 4일 감사운동을 펼치고 있는 ‘감사나눔 미디어 그룹’과 안양교도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도소에 감사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감사운동은 재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인데 2천 명의 재소자 중 500명 이상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운동 이후에 교도소 내 폭력도 줄고, 재범률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안양교도소 소장이었던 신용해 씨는 그간 광주지방법교정청장을 거쳐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 52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감사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돼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 차동엽 신부

“나는 감옥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넬슨 만델라, 26년 감옥살이,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학교 폭력을 없앤 '공감의 뿌리' 교육

교실에서 아이들이

약자지결하게 떠든다. 그 때 문이 스르르 열리며 젊은 엄마가 5개월짜리 꼬마 아이 토마스를 안고 교실로 들어선다. 교실은 금세 조용해지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두 토마스에게로 향한다. 토마스는 엄마 품에서 버둥거리며 엄마 가슴께를 발로 찬다. 교실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환영의 노래를 부른다.

토마스는 엄마 품에서 반 아이들 모두 하고 인사를 나누고 초록 카펫에 엎드린다. 학생 중에 희망자가 토마스 옆에 누워서 토마스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토마스가 장난감을 만질 때는 학생들도 장난감을 만지며 아기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은지 이야기한다. 아기가 어떤 때 기뻐할 것 같은지, 어떤 때 당황해할 것 같은지도 이야기 나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반 학생들은 아기 엄마하고도 대화를 나눈다.

캐나다에서 시작된 '공감의 뿌리'(ROS: Roots of Sympathy) 교육의 한 장면이다. 이 교육에서는 "공감을 해야 한다." "공감이란 무엇인가?" 같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다만, 태어난 지 일 년도 안 된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의 느낌과 생각을 짐작해보는 노력을 하고 경험을 나눈다. 그 아기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혼자 떠돌려졌을 때 또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공감의 뿌리는 캐나다의 유아 교육자 메리 고든(Mary Gordon, 1947~) 이 1996년 개발하여 토론토에서 처음 실행했다. 유아원부터 8학년(중학교)까지 나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기본은 1년 미만의 갓난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3주에 한 번씩 교실을 찾아오고 아이들은 이 '꼬마 교사'로부터 1년 동안 수업을 받는다. 정규수업은 아니지만, 정규수업과 연계가 잘 되어 있다. 꼬마 교사를 만나기 전에는 준비 수업을 하고, 만난 다음에는 복습과 성찰을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공감 능력을 키워 나간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동기의 모든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감성 능력이다. 감성은 우리를 인간으로 묶어주는 요소다."

- 메리 고든, '공감의 뿌리' 설립자

의료협동조합: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병원에 가면, 으레 환자중심병원이라고 하고, **환자가 주인인 병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병원이야말로 ‘갑’과 ‘을’이 명확한 곳이다. 의사가 갑이고 환자가 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과잉진료를 한다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좀 불친절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정말 문자 그대로 환자가 주인인 병원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경기도 안성에는 주민들이 만든 병원이 있다. 주민들이 병원의 주인이고 또 주민들이 환자이면서 이용자이다. 의료보험제도가 제대로 가동 되기 전, 1987년 안성군 고삼면 가유리에 주말진료소가 만들어졌다. 마을 청년들과 의료봉사를 나온 의과대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마을 돌봄’ 사업이 1994년 4월 24일 한국 최초로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했고, 이 조합이 나중에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안성의료사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안성의료사협은 현재 6,648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들이 출자한 12억 원의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성농민의원, 안성농민한의원, 새봄치과의원, 우리동네의원, 서안성의원, 서안성한의원 등 병원을 6개나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인 만큼, 조합원이 1인 1투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고, 병원의 의사, 간호사, 직원들을 채용해서 병원 경영을 하고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의료사협)이 전국에 현재 25개나 된다. 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철저하게 환자를 주인으로 모신다. 실제로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치료와 함께 평소 건강관리 활동을 장려한다. 건강에 대한 교육과 운동, 취미활동, 이런 활동이 많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커뮤니티 케어’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협동조합 연구가 니시무라 이치로 씨는 1976년 설립된 일본의 미나미의료생협의 활동을 보고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라고 했다. 의료사협이 마을과 지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모두 달라서 모두가 좋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빛이 살아 있는 마을 만들기” - 일본 미나미 의료생협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및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학사, 석사 없이 박사가 된 고졸 동물학자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8살 때도 틈만나면 동물과 자연을 관찰했으며 동물 그리기를 좋아했다. 소설을 읽고는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12살 나이에는 친구들과 동물사랑 단체를 결성해 박물관을 만들고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형편이 안 돼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비서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케냐에 사는 친구가 아프리카에 오라고 초대를 했다. 그녀는 얼씨구나 좋다고 생각했지만, 뱃살을 마련해야 했다.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간신히 돈을 모아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다. 그러다 루이스 리키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케냐 나이로비 국립자연사박물관 관장이었다. 그녀는 리키 박사의 비서가 되었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 비서에게 리키 박사는 침팬지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추천했다. 그녀는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서 침팬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25세의 여자로서 야생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것은 종군 기자와 같이 위험한 일이었다. 침팬지들도 1년이 넘도록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그 일을 해냈고, 그녀가 본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 그리고 침팬지의 서열구조, 성생활과 육아 등 모든 것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그 당시 침팬지에 대해 우리 인류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도구는 만물의 연장인 인간만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덕에 그녀는 학사도 석사도 없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고, 동물학 박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 모리스 구달(Jane Morris Goodall; 1934~)이다. 그런데 구달 박사는 동물연구만 계속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사랑하는 침팬지가 삶의 터전을 잃고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환경 운동가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어느 누구라도 매일 조금씩은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제인 구달, 영국 동물학 박사, 환경운동가

“동물에게 존경심을 갖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 제인 구달, 영국 동물학 박사, 환경운동가

황혼 이혼은 누가 먼저 요구하나?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혼하는 건수는 대략 10만 건 정도이다. 그중에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한 부부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2021년 통계로는 38.7% 근 40%에 이른다. 통계청에서는 결혼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 부른다. 이혼 한 10쌍 중 4쌍이 황혼이라는 이야기다. 1990년 황혼 이혼의 비중은 겨우 5.1%였다. 그러던 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노부부라고 하더라도 불만을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60대 이상인 부부라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혼 서류를 내민다. 고령화가 되면서, 앞으로도 30년은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황혼 이혼 바람은 일본에서 먼저 불었다. 1990년대 일본 여성들은 일박에 모르는 남편이 집에 들어앉아 여전히 시중들어주기를 바라는 꼴을 볼 수 없었다. 소위 ‘은퇴남편증후군’이 생긴 것이다. 황혼 이혼은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말이다. 그런데 그 흐름도 이제는 바뀌고 있다.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 상담을 오는 사람 중에서 2011년에는 남자의 15%만이 60세 이상이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남자 중에서 47.7%가 60대 이상이다. 여자 중에서 60대 이상인 비중도 물론 늘고 있다. 2011년 9.2%에서 2021년 25.7%로 말이다. 최근 이혼 상담하러 오는 여자들은 4분의 1정도가 60대 이상인데, 남자들은 2분의 1이 60대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남성 노인들이 이혼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립감이라고 한다. 은퇴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가족이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리고 이제 남성도 새 삶을 찾겠다고 한다. 황혼 이혼은 여성의 문제도 남성의 문제도 아니다. 장수시대 함께 사는 지혜를 찾아야 할 때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가장 큰 노후대책은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이다.”

- 고혜정 변호사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맞이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돈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다.” - 서영아 기자, 동아일보



행복한 부부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잘 푼다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까?

궁합이 잘 맞는 부부일 것이다. 뭐든지 서로 척척 알아주고 척척 받아주고 하는 그런 궁합 말이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궁합이 있을까?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진다.

사랑을 시작하면 체내에서는 도파민(Dopamine)과 페닐에틸아민(Phenylethylamine)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의 좋은 점만 보인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 호르몬의 효과는 사라진다. 보통 2년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 후에는 흥분은 사라지고, 현실이 찾아온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는 것이다.

행복한 부부는 갈등이 없는 부부가 아니고 갈등을 잘 푸는 부부이다. 궁합이 잘 맞는 부부가 아니라 궁합을 잘 맞추어나가는 부부이다. 그럼 갈등을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평생 부부관계를 연구한 미국 워싱턴 대학의 존 고트만(John Gottman) 교수는 부부생활의 핵심은 대화에 있다고 했다. 그는 부부가 대화 나누는 것을 5분만 들으면 이 부부가 이혼할 부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느냐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행복한 부부는 긍정 표현이 부정 표현의 5배 이상이다.

부부싸움을 한 이후, 문제 있는 부부는 서로 벽을 쌓고 대화가 없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는 상대의 감정을 도둑거리는 행동을 한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거나, 상대에게 고마운 표시를 한다거나, 상대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해준다거나 하면서 감정을 푸는 것이다. 그런 다음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나온다.

갈등을 풀지 못하는 부부는 대화의 시작과 끝이 없다. 다짜고짜 비난하고 뚝 이야기를 끊어버린다. 시작을 부드럽게 하면 대화의 질이 높아진다. 마무리까지 잘하면 행복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이혼에 다다른 대부분의 부부는 대화의 첫마디를 좋지 않게 시작한다.”

- 존 고트만, 심리학자. 부부관계 코치

이모티콘도 동서양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이모티콘은 감정을 뜻하는 emotion과 상징을 뜻하는 icon의 합성어로서 자신의 감정이나 하고 싶은 말을 재미있는 기호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로는 ‘그림말’(국립국어원)이라 할 수 있겠다.

요즘은 기발한 이모티콘도 개발되고 그 사용빈도도 크게 늘고 있다. 트렌드 조사기관인 엠브레인(Embrain)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현재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의 41%가 이모티콘을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 20대는 52%가, 50대도 30% 정도는 자주 사용한다.

미국에서 1982년 스콧펠만이라는 카네기멜론대학 교수가 처음 이모티콘을 선보였는데, 1997년 이후 미국의 스마일리(Smilely)사와 일본의 NTT 도코모가 대중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카카오톡에서 급격히 번졌다.

그런데 이모티콘 모양에서 동서양 차이가 난다.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모티콘은 :-) 였다. 앞에서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겠지만 우측에서 좌측으로 옆으로 보면 웃는 모습이다. :- (, (그림 이모티콘은 무엇을 말할까? 역시 옆에서 보면 슬픈 얼굴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이다. 이에 비해 동양에서 쓰는 이모티콘은 ^_^, ^o^, 이런 것이었다. 앞에서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큰 차이가 있다. 서양 이모티콘은 입이 강조되고 있는데 동양 이모티콘은 눈이 강조되고 있다.

인류학자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하면, 소통에 있어서 서양에서는 입이 중요하고, 동양에서는 눈이 중요하다고 한다. 서양은 말을 강조하는 로고스(Logos) 문화이고, 동양은 감정과 상황을 강조하는 파토스(Pathos) 문화라는 것이다. 이런 두 문화 간의 차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동양사람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눈으로 상당 부분 소통이 된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입을 가리는 마스크는 소통에 큰 타격을 준다.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저항이 서양에서 크게 일어났다. 함께 사는 지구촌을 만들려면 이런 문화의 차이도 이해해야 한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이다.”

- 에드워드 홀, 미국 인류학자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120마리에서 9,800마리로 늘어난 이유

천연기념물 228호로 지정되어있는 흑두루미는 시베리아에 살다가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이다. 전남 순천만은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는 곳이였다. 그런데 이 흑두루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2년 120마리 정도가 순천만에서 관찰되었다. 그만큼 순천만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추위를 피해 내려온 흑두루미는 한반도를 지나 일본까지 내려가야 했다.

순천시와 순천시민이 국제습지보호조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순천만 살리기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2006년. 먼저 가금류 콜레라 등 질병을 막고 탐방객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부터 취했다. 순천만 773ha(약 230만 평)의 갯벌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오리사육농장 1곳과 식당 6곳을 인근 마을로 옮겼다. 두루미 서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2년 동안 순천만 메마른 땅 30ha(약 9만 평)를 물웅덩이인 ‘돛병’으로 복원했다. 두루미 서식처 안정을 위해 순천만에 있던 전봇대 282개를 모두 없앴다. 또 두루미 서식처에 갈대로 만든 350m 불빛 차단막도 설치했다. 농민들은 순천만 들녘 60ha(약 18만 평) 일부에 검정 쌀을 심어 거대한 흑두루미 그림을 만들었다. 농민들은 친환경 쌀을 수확하고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했다.

이렇게 하여 순천만은 멋진 생태공원이 되었다. 떠나갔던 흑두루미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4년 만에 흑두루미 개체 수는 두 배로 늘었고, 2000년 초 100여 마리였던 흑두루미는 이제 9,800마리 이상으로 늘었다. 전 세계에서 1만 7,000마리 정도 관찰되는 흑두루미의 60% 정도가 순천만을 찾았다는 이야기다. 순천만은 흑두루미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춘천만을 찾는 관광객이 2006년 35만 명에서 2009년 233만 명으로 늘었고, 국가 정원까지 만들어진 요즘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은 연 600만 명이 넘는다.

흑두루미에게 좋은 환경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환경인 것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나는 민들레처럼 희망을 퍼뜨리고 싶다.”

- 노관규, 제5-6-10대 순천시장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나오는 '책감옥'을 아세요?



서울에서 출판사에 몸담고 있었던 이대건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땅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다. 2006년, 그는 전북 고창군 해리면에 있는 이 폐교를 변신시켜 '책마을해리'를 만들었다. 오래되어 비격대는 복도를 새롭게 깔고, 지저분한 교실을 깔끔하게 단장했으며 건물의 벽에는 예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는 차곡차곡 책장에 책을 모았다. 그렇게 늘어난 책이 어느덧 15만 권을 넘었다.

책마을해리에 있는 것은 책이다가 아니다. '바람언덕'이라 이름 붙여진 조그만 야외강연장과 암벽타기 벽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큰 인기다. 마을신문과 각 지역의 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해둔 '책숲 시간의 숲'과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양서들을 모아둔 '버들논 도서관', 직접 글을 쓰고 책을 짚어낼 수 있는 '누리책공방'등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친다. 매주 토요일에는 나만의 책 만들기, 한지 만들기 체험, 그림책 작가 교실, 출판캠프 등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가 열린다.

또한, 흥미로운 곳은 '책감옥'이다. 일단 들어가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기꺼이 갇히고 싶어 한다. 집기든 앉은뱅이책상 하나, 침대 하나, 책장 두어 개가 전부다. 문은 바깥에서 걸어 잠그게 돼 있고, 식사를 넣어주는 배식 구멍도 있다.

책마을해리가 있는 곳은 10가구 남짓 사는 자그마한 월봉마을이다. 그런데 책마을 때문에 이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지역민들을 물론 타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문화를 소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곳은 문화공동체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책 감옥’에서 다른 세계와의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담은 곳이지.”

- 이대건, 책마을 해리 총장



대를 이어 완성한, 세상을 바꾼 다리

미국 뉴욕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해튼과 인접해 있는 브루클린 사이에는 동강(이스트 리버)이 흐르고 있다. 이 동강은 물살이 세고 깊어 여기에 다리를 놓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런데 독일 출신 엔지니어인 존 로블링(John Roebling)이 현수교를 놓겠다고 나섰다. 이는 당시 기술로서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로블링을 뉴욕시장과 투자자를 설득했다.

하지만 존 로블링이 공사를 시작하던 해 페리와 선착장 사이에 다리가 끼는 사고를 입고 목숨을 잃었다. 존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Washington Roebling)이 아버지의 설계도를 물려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공사 시작 2년도 안 돼 워싱턴은 감염병(잠수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고 말았다. 물속에서 케이슨(Caisson)이라 불리는 고압 장치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병이었다. 당시에는 그 병의 원인조차 모르고 있을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워싱턴은 다리 건설의 대업을 멈출 수가 없었다. 워싱턴은 집에서 망원경으로 현장을 지켜보면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하나로 자신의 아내인 에밀리(Emily)로 하여금 자기 일을 대신에 하게 했다. 에밀리는 토목공사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지만 남편의 심부름만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맡았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수없이 큰일, 작은 일이 생겼다. 케이슨 안에서는 압축 공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강선 계약업자들이 톤수를 속이는 문제도 생겼다. 에밀리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역학도 공부하고, 강철에 관해서도 공부하고, 노무관리도 공부했다. 총 공사 기간 13년 중 에밀리가 현장감독을 한 기간이 11년이나 된다. 여성에게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때 말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가장 길고(1,825m), 가장 오래된 현수교 브루클린 다리가 1870년 1월 3일 착공되어 1883년 5월 24일 완공되었다. 왕복 6차선에 도보까지 갖춘 이 다리는 뉴욕을 하나의 시로 만들어주고 미국인들의 자부심을 높여준 상징물이 되었다. 브루클린 다리는 로블링 가문과 6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 그리고 27명의 사망자의 희생이 만든 결과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리더가 오랜 세월과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느냐는 수면 아래에서(리더의 영혼 안에서) 하는 작업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 작업을, 예배, 경건의 시간, 영성 훈련이라 부른다.”

- 고든 맥도날드, 리더십 연구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칠곡 글꼴할매들



칠곡할매글꼴을 아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칠곡할매글꼴이고 그중에서도 권안자체이다.

칠곡할매글꼴은 칠곡에 사는 7~80대 할머니들이 글을 새로 깨우치면서 그들이 쓴 손글씨를 글꼴화한 것이다. 할머니들은 2017년 군에서 시행한 성인문해교실에서 글 못 배운 설움을 풀었다. 편지 쓰기도 배웠고 시도 배웠다. 칠곡군은 70이 넘어 글을 쓰기 시작한 이들의 글씨체를 보존하고 싶어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글꼴을 만들었다.

글씨체 400개 중 5분의 글씨체를 골랐다. 이때 선정된 분이 권안자(79)·김영분(77)·이원순(86)·이종희(81)·추유을 할머니(89)다. 할머니들은 이 글꼴을 만들기 위해서 4개월간 각각 2000장에 이르는 종이에 글씨를 쓰며 연습하고 다듬었다. 특히 알파벳은 할머니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강사들의 손을 잡고 그림 그리듯 글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글꼴이 탄생한 것은 2020년 말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를 맞아 각계 원로와 주요 인사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면서 칠곡할매글꼴 중 권안자체를 이용해서 글을 써서 보냈다. 그렇게 해서 칠곡할매글꼴은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권 할머니는 열 살이 되던 해에 부모를 잃고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고 했다.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식모살이를 하던 탓에 글을 배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글을 몰라 남에게 무시도 당하고, 변변한 일을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 자신의 글꼴을 세상에 남기게 되었으니 인생의 한이 풀렸다고 권안자 할머니는 말한다.

할머니들의 글꼴은 2022년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 프로그램에 정식 탑재되었으며 경주 황리단길에 칠곡할매글꼴로 제작한 대형 글 판이 걸리게 되었다. 국내 최초의 한글전용박물관은 칠곡할매글꼴로 제작한 표구를 상설 전시하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이고 너무 디곤하다 / 마음이 괴롭다 /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재 / 진짜 다 고달프다 / 그래도 학교 오니 조타”

- 권안자, 칠곡할매니의 시(내마음), 2017년(76세)



1,000억 재산이 시 한 줄만 못하다며 모두 기부한 여인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다.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 영어 교사도 했던 그는 1936년 시집 ‘사슴’을 출간했으며, 조선일보, 조광, 여성 등에 시와 산문을 발표했다. 그가 해방 후 북한에 머물게 되어 월북작가로 분류되어 1987년 해금이 될 때까지 그의 시는 남한에 별로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시를 읽은 사람 중에는 그의 시에서 특별한 점을 느낀 사람이 많았다.

그런 백석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이렇다. 함흥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백석은 동료 교사 송별회에서 기생으로 나온 김영한에게 첫눈에 반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마누라야.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이별 따위는 없을 거야.” 백석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김영한을 ‘자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백석은 아버지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정해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백석은 자아를 찾아와 함께 만주로 가서 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아는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 따를 수가 없었다. 둘은 결국 다시 상봉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아는 서울에서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그러나 우연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동을 하여, 1987년 1000억 원이나 되는 자신의 재산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겠다고 나섰다. 법정 스님은 이 시주를 사양하였으나 자아는 10년을 즐겼다. 결국, 법정 스님과 조계종은 이 시주를 받아들여 대원각을 ‘길상사(吉祥寺)’로 만들었다. 김영한은 1000억이나 되는 재산이 아깝지 않으나 기자의 질문에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그의 시 한 줄만 못하다.”고 이야기했다.

백석 연구가 중에는 김영한과 백석의 러브스토리에 대해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김영한 씨 본인의 진술 외에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석 시의 가치를 인정하고 1000억 재산을 시주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 아닐까?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저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만... 불교를 모릅니다만...”

저기 보이는 저 팔각정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저곳에서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 김영한, 길상사 시주자(길상사 홈페이지에서)

공부방을 없애야 공부가 잘되는 이유



진석이는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따로 자신의 방이 없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리 작은 평수가 아니었으나, 누나가 둘이나 있어 이들이 방을 하나씩 차지하는 바람에 자신의 몫이 없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진석이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도 공부방을 달라고 떼를 썼다. 공부방을 마련해 주면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진석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혼자 방에 들어가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처음에는 숙제를 하겠거니 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종일 게임만 하고 있었다. 진석이는 골치 아픈 사춘기 학생이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은 많다. 아이들이 크면서 공부방을 마련해 주지만 이것이 오히려 청소년 문제를 만든다. 일본의 사토 료코 씨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 사토 씨도 여느 집과 같이 거실에 TV와 소파를 두고 생활했으나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 처음부터 거실을 공부방으로 꾸몄다. 거실에 책상과 책장을 갖추고 조명도 엄청 밝게 했다. 스탠드를 12개나 설치했다. 사토 씨 가족 4남매가 모두 거실에서 공부했다.

거실이 공부방이다 보니 아이들은 항상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다. 어느 누가 시작을 하면 다른 아이들도 바로 따라 한다. 서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자극이 되고 집중이 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물어본다. 공부도 공부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가족 간에 대화가 많아졌다. 주방도 거실에서 볼 수가 있어 엄마가 요리할 때도 아이들의 궁금증을 채울 수 있다.

사토 씨 가족 4형제는 모두 도쿄대, 그것도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대에 진학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도쿄대 입학생의 74%가 거실 공부를 했다 한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공부하면 부모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부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저는 처음부터 공부방은 전혀 만들지 않고 아이들 4명 모두 대학 입시까지 거실 공부법을 진행했습니다. 거실 공부의 기여도가 8할 정도라고 생각해요.”

- 사토 료코, 자녀 4명 모두 도쿄 의대에 합격



스위스 사람들이 주택 외벽에 사다리를 만들어두는 까닭은?

고양이는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집 안에 캣타워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고양이를 사랑하는 스위스 사람들은 집 밖에도 고양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준다.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계단을 타고 1층에서 3층까지 오르내리게 하고, 물받이 통에 발판을 만들어서 이를 타고 지붕까지 산책하게 한다. 스위스 베른에서는 이런 고양이 사다리가 집을 꾸미는 장식품 역할까지 하고 있다.

스위스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브리기테 슈스터(Brigitte Schuster)는 어느 날 베른시를 걷다가 문득 이 이상한 사다리를 사진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예쁘고 재미있는 사다리가 많았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모아 사진집을 펴냈다. 이름하여 ‘스위스의 고양이 사다리’(책읽는수요일, 2021).



출처: <https://brigitteschuster.com/swiss-cat-ladders>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이렇게 인간들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지혜로워진다. 또는 은밀하거나 귀여워진다.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여 있는 도시일 것이다.”

- 정멜멜, 사진작가

진주 어른 김장하: 돈은 뿌리면 거름, 쌓아두면 똥



그는 한약방에서

머슴살이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18살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한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이듬해인 1963년 경남 사천에 처음 한약방을 열었다. 남성당한약방이었다. 그는 다른 약국보다 싸면서도 좋은 약재를 구해 팔았는데, 이것이 전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성당 한약방엔 첫차가 다닐 때부터 긴 대기 줄이 생겼다. 그는 그렇게 해서 큰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 팔아 번 돈으로 호의호식할 수가 없었다. 39살이던 1983년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워 육영사업을 시작했다. 명신고등학교는 진주의 명문고등학교가 되었다. 그렇게 되니 1991년 그는 그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였다. 그때 재산 가치가 100억 원이 넘었다.

이런 큰일을 하였지만, 그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가 언론에 나오는 것을 피해 왔기 때문이다. 많은 기자가 그를 취재하려 하였으나 그가 응하지 않았다.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도 1991년 학교를 헌납할 때부터 인터뷰를 추진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김 기자가 기자 생활을 은퇴할 때가 되어 그를 다시 찾았다. 그도 60년간 운영해왔던 한약방을 문 닫고 있었다. 그런 그를 은퇴 기자가 겨우 인터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그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김장하 선생이다. 1944년생 올해로 79세가 된다.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니 선생의 선행은 명신고등학교 설립과 헌납만이 아니었다. 60여 명이 그의 선행을 증언하겠다고 나섰다. 선생의 도움으로 수많은 학생이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칠 수 있었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가 세워졌으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의 극단이 든든한 공연장을 갖게 됐고, 민족문제연구소도 <친일인명사전> 제작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진주신문은 매달 1천만 원씩 10년간 지원을 받아 언론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는 평소 이야기했다. “돈은 똥이다.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지면 거름이 된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돈은 똥이다.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지면 거름이 된다.”

- 김장하, 진주 명신고등학교 설립자



마약의 도시에서 모범도시로 탈바꿈한 콜롬비아 메데진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는 남미 콜롬비아의 마약왕이다. 어렸을 때부터 소매치기, 담배 밀매, 가짜 복권 판매, 자동차 절도 등을 했는데 결국 마리화나를 다루기 시작했고, 1970년대 들어서는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던 코카인을 취급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가 활동하던 곳이 콜롬비아 제2의 도시 메데진(Medellin)이다. 에스코바르는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인 ‘메데진 카르텔’을 결성했고, 전 세계 코카인의 70~80%를 거래했으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에스코바르는 그 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까지 했으며,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제거했다. 그는 콜롬비아 정부에 체포되기는 하였으나 협상하여 자신이 지은 감옥에서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즐겼다. 그 후 도망치다 결국 콜롬비아와 미국 정부 요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메데진 도시는 이런 에스코바르 덕분에 범죄도시로 낙인찍혔고, 폭력과 살인과 공포가 만연한 악명 높은 도시가 되었다. 그런 메데진이 지난 20여 년간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여 과거와는 단절하고 전혀 다른 모범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 2013년에는 웰스트리트 저널과 도시토지연구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에 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리관우 세계도시상’을 받았으며, 2019년엔 FDI 인텔리전스로부터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았다.

메데진을 이렇게 바꾼 데는 세르히오 파하르도 시장 같은 리더가 있었다. 그는 과거 우범지대이거나 취약지역에 이름답고 웅장한 도서관을 세우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했다. 쓰레기장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녹지로 바꾸었다. 그리고 도시에 그림과 조각작품을 설치했다. ‘가장 교양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메데진은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다.

메데진의 리더들은 엘리트주의적인 도시개발을 하지 않았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도시설계를 펼쳤다. 메데진이 혁신도시가 된 비결은 바로 그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것.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교육의 질은 공간의 질에서 시작한다.”

- 세르히오 파하르도, 전 메데진 시장

플랜테리어 해 보실래요?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을 중심으로 꾸미는 인테리어를 말한다. 코로나 덕분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집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플랜테리어와 더불어서 반려식물, 홈가드닝, 식집사(고양이 집사에 빗댄 말) 같은 신조어도 생겼다.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반려식물’에 대한 검색이 ‘반려동물’을 추월했으며, SSG닷컴이나 G마켓에서 홈가드닝 관련 상품의 매출이 최근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늘고 있다고 한다. 플랜테리어 또는 홈가드닝의 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공기정화 효과를 든다. 식물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미세먼지를 잎 표면의 끈적한 왁스층과 잎 뒷면의 털에 흡착해 제거해준다. 게다가 수증기를 내뿜는 증산 작용으로 오염 물질을 바닥으로 가라앉힌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효과보다는 애호가들은 정신적인 효과를 더 높이 친다. 심신의 안정을 주는 힐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푸릇푸릇한 식물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마음이 편해지고 또 식물을 가꾸는 과정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는 것이다. 물론 딱딱한 가구를 보완해주어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플랜테리어는 꽃꽂이 장식과는 다르다. 꽃꽂이는 꽃이 중심이고 대개 화려함을 추구한다. 그런데 플랜테리어는 주인의 개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꽃보다는 잎이 주인공이고 따라서 화려하지 않은 시원하고 수수한 식물이 주 대상이다. 그래서 관음죽, 스파티필름, 아이비,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같은 식물이 인기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플랜테리어도 자신의 형편과 역량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손이 많이 안가는 식물을 골라 소수의 식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처음부터 부담이 되면 지치게 된다. 반려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성을 기울이고 교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정성을 쏟은 만큼 화답해주는 반려나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불어 하루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깨닫게 되곤 해요.”

- 정지윤, 마케터, 반려식물 애호가



금서로 지정되어 저자가 10년간 도피 생활을 한 교육학의 고전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이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는데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16세 세 때부터 방랑 생활을 했는데 다행히 바랑 부인이라는 후원자를 만나 그녀의 집사로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문학, 철학, 음악 등을 공부했다. 그 후 파리에 살면서 당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상가, 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그는 30대부터 여러 가지 저술을 하였으나,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사회계약론>과 <에밀>은 그가 50세 되던 1762년 동시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교육론을 펴던 에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종교계에서도 금서로 지정했고, 파리 고등법원은 이 책을 불태울 것을 결정하였고 루소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 루소는 이때부터 도피 생활에 들어갔다. 프랑스를 떠돌다 영국에서 지내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루소는 건강을 잃고 조현병 증세까지 보였으며 말년에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회고하는 글을 남기고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루소가 에밀에서 어떤 주장을 하였길래 그 책이 금서가 되었을까? 루소는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깊은 사색을 했다. 아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지 모른다. 루소는 원래 인간은 자연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했다. 이 선한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자연의 원리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하는데 당시 사람들, 특히 귀족들은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권위의 틀에 가두며 인간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시보다는 시골 생활이 교육에 좋다고 했으며, 귀족의 부모가 아이 교육을 하지 않고 유모와 교사에게 맡기는 것도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연을 통해 인간 자체의 가치를 찾으려는 루소의 외침은 그 후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켰고 그의 교육서 에밀은 불후의 고전이 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 장 자크 루소, 프랑스 사상가

미래는 '거꾸로 교실'이 대세라는데~



미국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버그만(Bergmann) 과

샘스(Sams)라는 교사는 결석하는 아이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두 교사는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을 위해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영상에 대한 반응은 좋았지만, 부작용이 있었다. 영상으로 공부하면서 아예 학교를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상을 보면서도 학교에 나오게 하는 새로운 공부법을 고안했다.

2007년부터 그들이 시작한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또는 Flipped Learning)이 그것이다. 일반적인 학습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해 오고, 학교에서 숙제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은 것이 거꾸로 교실이다. 거꾸로 교실에서는 교사가 만든 10분 내외의 영상을 집에서 보고 미리 개념 공부를 한다.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토론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는 것이다.

사실 종래 방식은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을 집에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또 친구들과 의견 교환도 할 수가 없었다. 거꾸로 교실에서는 이 작업을 학교에서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습법을 2013년 부산 동평중학교에서 처음 실행했고, 교육 혁신을 추구하던 교사들에 의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거꾸로 학교 실험은 KBS도 함께 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KBS의 정찬필 PD는 거꾸로 교실의 효과를 눈으로 목격했고 여기서 미래 교육을 보았다. 그는 22년 다니던 KBS에 아예 사표를 쓰고, 교육 현장으로 뛰어들어 급기야 미래 교육 네트워크와 '거꾸로 캠퍼스'라는 대안중학교 설립에 참여했다.

거꾸로 교실은 단지 공부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도 그리고 학교에 와서 토론하고 문제를 풀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학생 중심이다. 거꾸로 교실이 미래 교육의 대세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이 학습법의 매력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의 주도권을 넘겨주려면 ‘학생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그런 신뢰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죠.”

- 정찬필, 미래교육네트워크 사무총장



세계 0.1%가 한다는 울트라 학습

베니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외국어를 잘한다, 아일랜드 출신인 그는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게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에스페란토어, 체코어, 독일어, 아랍어, 헝가리어, 만다린어, 태국어 등을 수준급으로 한다. 언어에 천재적이라서 그렇게 여러 나라말을 할까?

그렇 수도 있다. 그런데 그의 학습 방법 또한 특이하다. 루이스는 3개월 정도 단기에 한 언어에 도전 하는데 현장에서 원어민과 직접 부딪히면서 배운다. 체계적인 학습은 나중에 한다. 루이스에 자극 받은 캐나다인 스콧 영(Scott Young) 또한 루이스의 공부 방법을 따라 해보기로 했다. 그는 친구와 함께 4개국을 3개월씩 여행하면서 ‘영어 없는 1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하여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만다린어를 배웠고, 한국에 와서 한국어까지 했다.

스콧 영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는데 졸업 후 컴퓨터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컴퓨터 과학을 독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여기저기 정보를 찾던 중 MIT에서 컴퓨터과학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또 과제와 시험문제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MIT 4년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다. 열심히 공부한 덕에 그는 MIT 컴퓨터과학 4년 과정을 1년에 마칠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공부 방법을 ‘울트라러닝(Ultralearning)’이라고 했고, 그가 공부한 과정을 블로그에 올려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정리하여 책까지 펴냈다.

그에 의하면, 울트라러닝은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고강도 학습전략”이다. 루이스의 특별한 학습법에 자극받아 스콧 영이 시험하고 실천한 울트라 학습법은 사실 이미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스콧 영은 이들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함께 실험도 했다. 그럼 울트라러닝은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인가? 울트라러닝을 실천하고 있는 스콧 영 역시 캐나다에서 중위권 대학(마니토바대학)을 나온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울트라러닝은 지능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부법이다. 빠르게 변화하여 배울 것이 많은 시대, 울트라 러닝이 학습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진정한 행복의 순간은 쉬운 일을 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때 온다.”

- 스콧 영, 울트라러닝 저자

왜 신발은 그토록 다양해지고 있는가?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신발을 신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것은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풀로 만든 샌들이다. 이는 기원전 7,000년이나 8,000년 정도로 추정된다. 가족 신발은 기원전 3,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르메니아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BC 7세기경 고조선의 무덤에서 단추가 달린 가족 신발이 발견되었다.

신발은 분명 발을 보호하고 이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탄생하였다. 그런데 신발은 그런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신발은 아무나, 아무 형태로 신는 물건이 아니었다. 신분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남녀 구분이 있었다. 고대사회에서는 왕과 신하의 신발이 달랐다. 왕과 신분이 높은 사람은 화려한 장식의 신발을 신었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은 평범한 신발을 신었다. 노예나 농민은 한참 동안 신발을 신지도 못했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싹트고 민주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신발도 보편화가 되었다. 경제력만 있으면 신분과 관계없이 다양한 신발을 신게 되었다. 왕족만 즐겼던 하이힐을 평민도 신게 되었고,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부츠가 평민화되었다. 부추와 하이힐은 원래 남성용이었는데 여성용도 신기 시작했고 요즘은 여성 전용화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신발의 변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신발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다양화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은 한 사람이 연 7켤레의 신발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www.statistica.com).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잘 사는 나라는 4~5켤레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2015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남녀 통틀어 평균 12켤레를 보유하고 있고, 1년에 4켤레 정도 구입하고 있다.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신발이 기능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개성을 표현하고, 인간의 고급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존재감과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 말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신발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비언어적 표현이다.”

- 엘리자베스 세렐렉, 신발, 스타일의 문화사 저자



후회 없는 삶이 가능할까?

애인을 떠나보내고 후회하는

마음을 노래한 가수가 많다. 나훈아도, 주현미도, 혜은이도, 이용도, 심수봉도, 조성모도, 최진희도, 강수지도 애절한 목소리로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의 가사를 들으면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현재의 자신도 후회하고 질책한다. “후회한다고 어디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난다 해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며 말이다.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 아닐까? 애인을 떠나보내서 후회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후회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후회하고, ‘부동산을 사야 했는데’하고 후회하고,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나와야 했는데’하고 후회한다. 담배를 끊지 않아서 후회하고,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후회한다. 설문 조사에서 미국인 82%가 이따금 후회에 빠지고, 43%는 자주 후회를 경험한다고 했다. 후회란 과거에 했던 선택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왜 우리는 후회할까? 사실, 후회한다고 떠나간 애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망가진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후회는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후회 없는 삶’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핁크(Daniel Pink)는 후회에 관해 깊이 연구했다. 그는 후회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고도의 학습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후회를 통해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후회라는 상상력을 통해 현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현재를 사는 것보다,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고 현재를 산다면 다른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후회를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하고 성과도 높았다.

후회하는 자신을 오늘부터는 제대로 대접하는 게 어떨까?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후회는 건강하고 보편적이며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게다가 후회는 값지다. 후회는 명료하다. 후회는 가르침을 준다.”

- 다니엘 핁크, 후회의 재발견 저자

3초에 결정된다는 첫인상의 실체는



입사 면접을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면접관은 지원자를 보는 순간 3초 이내에 판단해 버린다. 비즈니스에서 바이어를 처음 만날 때도, 남녀가 소개팅할 때도 말이다. 처음 3초 늦어도 30초 안에는 결판이 난다. 이렇게 만들어진 첫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고급의 정보를 교환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비언어적 소통을 하는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아왔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를 말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면 수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해야 한다. 보통은 대화를 나누고 분석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은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오랫동안 축적한 능력이다.

심리학자 메라비언의 실험에 의하면, 대인 소통에서 언어는 역할이 7%인 반면 표정, 복장과 같은 가시적인 요소가 55%, 목소리의 크기, 떨림 같은 음성적 요소가 38%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얼굴 표정과 몸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2018)한 바에 의하면,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표정과 눈빛(57%), 그리고 자세와 태도(55%)를 꼽고 있다.

그래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좋고, 상황에 맞는 복장이나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남에게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첫인상이 항상 옳은 판단일까? 그렇지가 않다. 면접관이 첫인상으로 사람을 뽑았을 때 실수할 확률이 높다. 거래처를 첫인상으로 결정해서 되겠는가. 첫인상은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FBI 최고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메리 앨런 오톨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 첫인상에 속아 사기도 당하고, 폭행도 당한다고 했다. 이것이 첫인상의 실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한번 각인된 첫인상은 오랜 시간 지속된다. 하지만 그런 첫인상을 만드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미지는 순간적이다.”
- 린다 골드먼·산드라 스마이트, 퍼스트 임프레션(2023) 저자



코로나 펜데믹은 모두에게 평등했는가?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승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영상수업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고, 만남과 공동체 활동이 새로워졌다. 좋은 면도 있었으나 급격한 변화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약 50% 정도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는 메르스 때의 1.5배이고, 세월호 참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울증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불과 3.2%에 불과했는데 2020년 3월에는 17.5%로 올랐고, 2021년 3월에는 22.8%까지 치솟았으며, 2022년 6월에도 16.9%를 기록했다.

역시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했다는 사람의 비율이 2019년에는 4.6%였는데 2020년 3월에는 9.7%로 올랐고, 2021년 3월에는 16.3%까지 올라갔으며, 2022년 6월에는 12.7% 정도이다. 여전히 우리 국민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신적 고통은 나이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높고, 남녀별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높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우울 증상 위험자 비율이 약 33%로서 5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우울 위험자 비율 약 14%의 2.4배에 이른다. 자살을 생각했다는 비율 역시 가계수입 100만 원 이하 집단은 38%로서 500만 원 이상 집단 17%의 2.2배에 이른다.

1인 가구가 정신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 증상 위험군은 2인 이상 가구 17%인데 비해 1인 가구는 22%였으며, 자살을 생각했다는 비율은 2인 이상 가구 19%인데 비해, 1인 가구는 29%에 이른다.

재난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올 수 있으나 그가 미치는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감염재난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멘탈데믹(mentaldemic)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 이은환·김 욱, 경기연구원 연구원

기억력을 높이는 비결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은 편인가?

가끔 기억력이 좋은 분이 있다. 한번 본 사람의 이름을 척척 기억하고, 한번 들은 전화번호도 잘 외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질 못한다. 나이가 들면 더욱더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 동창 이름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어디다 세웠는지 잊어먹고 헤매는 때도 있다.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기억력을 높이려면, 기억력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기억력은 천부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으로만 기억하려 하지 말고, 말로 기억해 보는 것이다. 백화점 주차장 B3, E 구역 47번에 주차를 했으면, 눈으로만 보고 끝내거나, 카메라로 찍고 끝내지 말고, 말로 외쳐본다. “B3, E47!” 이렇게 말이다. 두세 번 외치고, 걸어가면서 한 번 더 외치면 확실하다. 슈퍼에 오이 2개와 케첩을 사러 간다면, “오이 2개, 케첩 하나!” 하고 외치면서 가면 된다.

그다음 사용할 전략은 외워야 할 것을 내가 잘 아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12251004030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1225), 천사(1004), 3·1절로 외우면 된다.

많은 정보를 순서대로 외우려면 자신의 신체 부위나 자신이 익숙한 장소와 연결하면 좋다. 이런 방법을 ‘기억의 궁전 법’이라고 한다. 신호등, 스키, 딸기, 마스크, 치약을 순서대로 외운다고 하면, 머리(신호등), 어깨(스키), 팔(딸기), 배(마스크), 발(치약)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외우는 것이다. 외우는 숫자가 많으면, 교실 전체를 기억의 궁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은 해야 할 일을 외우거나 연설문을 외울 때 또는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외울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기억의 원리는 연결에 있다.”

- 정계원, 기억의 암기법 저자
대한민국 최초 국제 기억력 마스터



역사를 만드는 여성 지휘자들

음악에서 합주가 시작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연주자 중 한 사람이 리드를 했지 지휘자는 따로 없었다. 그러다가 1804년 독일의 작곡가 베히버가 처음 지휘봉을 잡고 지휘 역할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후로 지휘가 점점 중요해지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가 인기를 끌면서 지휘자의 위치도 공고해졌다.

그렇지만, 지휘는 오늘날까지도 남성 중심이다. 여성 지휘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여성들도 지휘봉을 잡은 역사가 상당히 된다. 기록상 최초의 여성 지휘자는 스웨덴 출신 엘프리다 앙드레(1841~1929)로 알려져 있다. 앙드레 외에도 19세기에 여러 명의 여성이 지휘를 했으나 그들은 소규모 공연을 지휘했을 뿐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맡진 못했다.

최초의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더 컨덕터’라는 영화(2019 개봉)의 주인공인 안토니아 브리코(1902~1989)이다. 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최초의 여성이자,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지휘 마스터 클래스를 최초로 졸업한 미국인이다.

그는 1930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데뷔했으며 이후에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함부르크 필하모닉, 헬싱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1938년에는 창립 96년 만에 뉴욕 필하모닉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지휘했다. 또한, 클래식 음악 역사상 최초로 뉴욕필, 베를린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지휘한 첫 여성 지휘자이기도 하다.

브리코는 지휘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어느 오케스트라단에서도 그녀를 상임 지휘자로 초청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지휘자는 숙명여대 김경희 교수이다. 그는 숙명여대 작곡가를 졸업하고,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작곡과에서 동양 여성 최초로 학위를 받았다. 1989년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지휘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8년부터 과천시립교향악단 등에서 상임 지휘자로 활동했다. 김경희 교수 이외에도 현재 장한나, 김은선, 성시연, 여자경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나는 나 스스로를 여성 지휘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냥 지휘자다, 어쩌다 여성일 뿐.”

- 안토니아 브리코, 뉴욕 필하모닉 첫 여성 지휘자

죄수의 나라에서 청정 시민국가가 된 곳은?



1788년 1월 18일, 영국 선박 11척이 선단을 이루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동남부 해안가에 도착했다. 이 배들은 1787년 5월 영국을 떠나 252일이나 항해를 해 왔다. 이 배는 무엇을 싣고 왔을까? 여기에는 700여 명의 죄수와 600여 명의 선원·교도관·일반인이 타고 있었다. 죄수들은 대체로 빵을 훔치거나 옷을 훔치거나, 위증죄를 저지르거나 한 경범죄자들이었다, 그들은 영국에서 바닷길 2만5천km 떨어진 이곳으로 유배되어왔다.

당시 영국은 죄수를 수용하는 데 골머리를 앓았다.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범죄자는 늘었는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던 것이다. 퇴역 군함을 개조해 선상 감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원형 감옥을 구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을 유배지로 활용했다.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영국이 보낸 죄수는 약 6만여 명이나 되었다. 유배된 죄수들은 신대륙을 개척하는 일꾼 역할도 했다. 그런데 1776년 미국이 독립하면서 죄수를 더이상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호주였다. 당시 그들의 눈에는 호주가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1788년부터 1867년까지 호주에 보낸 죄수는 16만 명에 이르렀다. 오늘날 호주 인구 2,500만 명의 20%는 이 시기에 도착한 죄수들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그런 호주가 현재는 국민소득(인당 GDP) 5만 달러를 능가하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환경 보호 면에서 선진국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죄수들을 보낸 영국은 계속 범죄율이 높았지만, 죄수들로 구성된 호주의 범죄율은 영국보다 훨씬 낮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5대 총통인 맥쿼리(Lachlan Macquarie; 재임 1810~1821)는 형기를 마친 죄수들에게 자유 신분을 주고, 토지 3만3천 평을 무상으로 주었다. 그리고 공직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통합을 시도한 것이다. 게다가 1851년부터 시작한 골드러시는 호주를 더욱 풍요하게 만들었다.

그런 호주도 백호주의를 통해 아시아인을 차별했고, 원주민을 학대한 과거를 씻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 배은숙, 사학자



자신의 몸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의사들

스테이크가 구워질 정도로 뜨거운 열에 인간이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1770년대 이런 궁금증을 품었던 영국의 내과 의사 조지 포다이스는 죽음을 무릅쓰고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감행했다.

그들은 방의 온도가 127°C까지 올라 스테이크가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땀을 쏟으며 견뎌냈고 이 실험을 통해 외부 온도가 올라도 인간의 체온은 36.7°C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800년대 미국의 치과 의사 호레이스 웰즈는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시고 이를 뽑는 실험을 통해 마취법을 최초로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공개 실험에서의 실패로 이를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은 마취제 중독으로 정신 이상이 되어 결국 감옥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독일 뮌헨 대학의 막스 페펜코퍼는 1880년대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믿고 사람들 앞에서 콜레라균을 마셨다. 그런데 의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더욱 확신했다. 그 후 그의 제자들이 콜레라균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고 콜레라에 감염되자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콜레라의 원인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호주의 프리멘탈 병원에서 연구를 하던 배리 마셜도 1984년 위궤양을 일으키는 것이 위 속에 들어 있는 세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배양한 세균을 마셨다. 그 결과 위궤양을 앓게 되었고, 그 위궤양이 항생제로 치료된다는 것도 보였다. 당시까지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위산 속에는 아무 세균도 살 수 없다는 통념이 있었는데 이를 깬다. 그렇게 하여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었고 마셜 박사는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실험을 하여 과학적인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나 과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항상 바람직한 게 아니다.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객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유의사에 반하는 참여가 됨으로써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학자라면 연구자 스스로를 믿으며, 고정관념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리 마셜교수, 2005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금실 좋은 부부를 만드는 다섯 가지 약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우리나라만이 국가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는 이 날이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권재도 목사가 부부의 날을 만든 주역이다.

1995년 어린이날이었다. 권 목사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취재기자가 옆에 있던 어린이에게 어린이날 소원이 뭐냐고 묻는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 아빠 함께 사는 거예요.” 권 목사는 이 이야기를 듣자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다.

“어린이날, 아버지날, 스승의 날, 그리고 그다음에는 성년의 날까지 있는데 정작 가정의 중심인 부부 관계를 강화하고 증진할 날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권 목사의 뇌리에 스쳤다. 그래서 그해 5월 21일에 자신의 교회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왜 21일이나 하면,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기도 하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날로 정했다.

주일 명칭도 ‘부부 주일’로 하고 설교 내용도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설교 이후엔 부부간에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면서 부부 사랑과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정열의 표시로 빨간 장미를,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존중의 표시로 분홍장미를, 그리고 미혼 남녀는 개화안 된 장미를 선물하게 했다. 이후 꾸준히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자 애썼는데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07년 5월 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5월 21일이 국가기념일이 됐다.

권재도 목사는 부부의 날 행사를 하면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왔다. 그러면서 부부가 좋은 금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약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인내, 웃음, 칭찬, 기쁨, 그리고 사랑이 그것이다. 인내는 한약이고, 웃음은 명약이며, 칭찬은 보약이고, 기쁨은 신약이며, 사랑 표현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사람이 아니면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인내로써 백 년을 서로 살아왔다.”

- 충남 금산에서 백년헤로하신 어느 노부부



자신의 몸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의사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중심도시 피렌체에서 남동쪽으로 50여km를 달리면

이름도 생소한 라야티코(Lajatico)라는 작은 마을이 나온다. 차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다. 목초지와 밀밭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새파란 하늘과 부딪히는 이곳은 그저 ‘평화롭다’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곳이다.

인구 1,300여 명밖에 안 되는 라야티코에서는 평소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이곳에 세계적인 극장이 있다. 이름도 희한한 ‘침묵의 극장(Teatro del Silenzio)’. 이 극장은 1년에 하루만 공연이 열리고, 나머지 기간은 그저 침묵이 흐를 뿐이다. 그래서 극장 이름이 침묵의 극장이 된 것이다.

라야티코는 이탈리아의 시각장애인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의 고향이다. 보첼리는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을 앓아 시력이 좋지 않았으나 12살 때 축구를 하다 머리에 충격을 받고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아버지는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를 변호사로 만들고 싶었다. 보첼리는 점자책으로 공부를 하여 법학대학원을 마치고 1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음악에 있었다. 6살 때 피아노를 배웠고, 플루트, 색소폰 등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알았으며 노래도 곧잘 했다. 그는 32세에 본격적으로 성악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감정표현이 주목받게 받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철인 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는 클래식을 대중화하고 싶었고, 대중음악을 정제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오페라와 팝송을 접목한 팝페라를 개척했다. 그렇게 하여 그의 음악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향에 특유의 풍광을 그대로 살리는 극장을 짓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7월 27일 침묵의 극장이 세워지게 되었고, 공연이 있을 때는 음악을 듣기 위해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 오고, 공연이 없을 때도 침묵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나그네가 찾는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나는 특별히 뛰어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신에게 받은 재능을 가능한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 안드레아 보첼리, 이탈리아 성악가(시각장애인)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외국인 한국 유학생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3년 2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0만 5,167명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10만 명 정도에 이르던 2015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8년 만에 말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8만 명대까지 증가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에는 15만 3,000명으로 줄었으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급격히 늘었다. 외국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7만 2,12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6만 3,859명), 우즈베키스탄(1만 1,974명), 몽골(1만 1,603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는 이유는 국내 요인과 외국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내 사정으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여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을 얻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부족한 학생 수를 채우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외로 인정받고 있는 외국인 학생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매력 있는 유학처가 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의 매력도가 크게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문적 수준과 교육환경이 외국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한국과 관련된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25%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한국 학위가 취직하는데 도움이 돼서'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35%를 넘는다(국가통계포탈, 2020).

한국 대학에 외국인이 느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우리의 지적 자산과 문화가 수출되는 것이고, 세계 각국에 지한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나 학습성취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학생들도 외국 학생들을 포용하기보다는 이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 대학이 외국인 수용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영어든 한국어든,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최대한 즐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요.”

- 칼 웨인, 한국 외대 일본언어문화전공, 미국인



21% 파티에 가보시겠어요?

21%. 무슨 숫자일까?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입기는 싫은, 그래서 옷장 속에 그저 쌓아만 두고 있는 옷의 비중이란다. 스타트업 '다시입다연구소'의 자체 조사 결과인데, 아마도 자신의 옷장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옷장 속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옷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는 옷을 그대로 옷장에 두면서 사람들이 또다시 새 옷을 산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낭비? 낭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구를 망가뜨리는 환경파괴 행위이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다. 반면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패스트패션 말이다. 세계적으로 매년 1,500억 벌 이상 생산되는 옷 중에 73%가 매립되거나 소각 처분된다. 그런 가운데 섬유산업을 위해 토지가 증가하고, 섬유 폐기물이 넘치고,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 착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오래 입을 옷을 만들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입어야 한다.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웰빙 의류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다시입다연구소'가 2020년 4월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 독립잡지 '언니네 마당'을 함께 만들던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들이 진행하는 것이 '21% 파티'이다. 옷장에서 잠자고 있는 옷을 서로 교환하게 하는 장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1% 파티에서는 안 입을 옷을 가져와서 가져온 만큼 다른 옷으로 바꿔 간다. 그런데 물건만 바뀌 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도 함께 나눈다. 어떤 옷인지 꼬리표에 사연들을 적어서 파티에 내놓기 때문이다. 2022년 한해 21% 파티를 총 25번이나 했고, 파티 참가자가 2,200명이 넘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다시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몸이 게으르면 머리가 고생한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연구하면 할수록 뇌의 경이로운 능력에 감탄한다. 체중의 2% 정도에 불과한 약 1.5kg의 뇌가 50배에 이르는 몸을 움직이고 있다.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멋진 상상을 하고 고도의 추론을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뇌 때문이다.

그래서 뇌가 손상되면, 장애가 유발되고, 뇌가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인간은 일정 용량의 뇌를 가지고 태어나며 일생 이 용량을 서서히 고갈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뇌는 놀랍게도 꾸준히 동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세포는 꾸준히 새로 생기고 또 세포 간의 연결망은 지속적으로 바뀐다. 부분적인 손상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이 보충해주는 회복탄력성이 있다.

자동차를 잘 관리하면 새 차처럼 쓸 수 있듯이 뇌도 관리를 잘하면 나이가 들더라도 젊은 사람과 같이 총명함과 사고력을 늦게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수사회에서 가장 위험이 되는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 뇌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경과 전문의이며 미국 CNN 의학 전문가인 산제이 굽타는 그동안의 과학적인 연구를 종합하여 뇌 건강법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킵 샤프(Keep Sharp), 니들북, 2020)

① 움직여라(운동), ② 발견하라(학습), ③ 느긋해져라(안정), ④ 영양을 섭취하라(음식), ⑤ 사람들과 교류하라(사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1번 운동이다.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는 머리 쓸 일이 있으면 먼저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 운동은 몸에 좋기도 하지만 머리에 더 좋다는 것이다. 몸이 게으르면 머리가 피곤해진다. 운동은 이를 닦듯이 매일 해야 한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옛말이고, 이제는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 존 레이티,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데스카페(Death Cafe)가 왜 확산되고 있는가?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치는 장면이지만, 이를 편하게 이야기 나누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요즘은 차를 마시며 편하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데스카페(Death Cafe)’가 일반화되고 있다.

스위스의 사회학자 버나드 크레타즈가 최초로 만든 ‘카페 모텔(Café Mortel)’이 그 모델이다. 버나드는 1982년 생사학연구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의 장례 형태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1999년 인류학자였던 부인과 사별을 계기로 편한 죽음에 관해 대화하는 카페 모텔을 세웠다.

영국의 사회기업가 존 언더우드(Jon Underwood)는 버나드의 카페 모텔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2011년 한계가 있는 생을 의미 있게 하려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영리단체 ‘데스카페(Death Café)’를 설립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2017년 44세의 나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죽음을 더욱 절실히 느낀 유족들이 고인의 뜻을 이어 이 데스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데스카페 참가자는 다과를 먹으면서 다른 사람과 죽음에 관해 대화한다. 다른 사람은 굳이 잘 아는 사람일 필요가 없다. 처음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죽음에 대해 서려면 어떤 이야기도 좋다. 그러나, 데스카페의 대화는 강연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상담이나 카운슬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사전에 정해놓은 주제가 있을 필요도 없다. 퍼실리테이터가 이런 대화를 이끌어준다.

영국의 데스카페는 전 세계에서 이런 데스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들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곳에서만 ‘데스카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현재 등록된 데스카페가 85개국에 16,289개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적 거리를 넓혔지만, 데스카페는 이로 인해 오히려 급속히 증가했다.

데스카페 운영자들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이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마주할수록 유한한 우리의 삶이 알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죽음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유한한 삶을 멋지게 살게 되죠.”

- 미래 헤이든, 데스카페 운영자

양치질은 언제 시작했을까?



입속을 청결하게 하는 행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기원전 5000년경부터 고대 이집트에선 황소의 발굽, 수액, 구워서 부순 달걀 껍데기, 화산재 등을 조합하여 치약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치약을 손으로 이에 문지르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양치법이었다.

칫솔의 사용은 이보다 늦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원전 35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우리가 흔히 '이쑤시개'라 말하는 나뭇가지를 사용했다. BC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도구를 사용했는데, 나뭇가지를 이빨로 깨물어 부드러운 섬유질로 쪼개놓은 모양이었다. 이쑤시개와 칫솔의 중간 정도의 형태라고나 할까? 동양에서도 버드나무 가지인 양지(楊枝)를 따서 이쑤시개로 사용했다. 이를 양지질이라 했다가 나중에 양치질로 굳어지게 되었다.

1세기경 로마인들은 소변으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하얘진다고 생각했다. 특히 포르투갈인들의 오줌이 로마인의 오줌보다 더 진하기 때문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말이 퍼지면서, 상류층에서 포르투갈산 소변을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소변 속의 암모니아는 실제로 미백 효능이 있었으며 현대식 치약에도 암모니아가 이용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다.

우리 조상들은 치약이 없을 때 소금으로 이를 닦았다. 소금은 그 자체로 연마제 역할을 하면서 살균도 했다. 문제는 소금 가격이 매우 비쌌다. 가난한 백성들은 소금으로 이를 닦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래를 이용해서 이를 문지르는 양치질을 하기도 했다.

현대와 같은 치약은 1850년대에 처음 개발되었고, 튜브에 넣어서 팔기 시작한 것은 1896년 미국의 콜게이트사에서 시작되었다. 치약이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시작된 시점이다. 현대 나일론 칫솔은 1938년 듀폰사가 개발했다.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 초 락히화학공업사(LG화학의 전신)에서 치약과 칫솔을 생산해 보급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양치질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게 좋다. 하지만 탄산음료·맥주·커피 같은 산성 음료를 마신 직후에는 금물이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산(酸)과 치약의 연마제가 섞이면 잇몸과 치아가 잘 상하기 때문이다.”

- 이정근 교수, 아주대 의대 치과



플로 법칙: 어려운 일을 해야 행복하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은 피하려 한다. 아무래도 자신이 없고, 결과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 암벽등반을 하는 사람, 철인경기를 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사람,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수학 문제를 푸는 학자는 놀랍게도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헝가리 출신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교수는 이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했다.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한 결과 그는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할 때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공간이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스로도 잃어버리고 일에 푹 빠지는 몰입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상태를 영어로 플로(Flow)라 표현했다.

플로는 원래 흐름을 말한다. 몰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그런데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진정한 몰입은 흐름이라고 했다. 거리낌 없이 흘러가는 상태가 몰입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의지를 보이거나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거나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업이 이루어지고, 일이 진행되는 상태인 것이다.

피아니스트가 플로 상태에 도달하면 자신이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가 저절로 쳐지는 것이다. 마치 그분이 오신 것처럼 말이다. 스포츠 선수들도 이런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저절로 운동이 잘되는’ 그 순간 말이다. 그때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다. 스포츠에서는 이런 상태를 존(Zone)이라고 한다.

플로는 결코 쉬운 일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좀 어려워야 한다.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 자기 능력보다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경험되는 현상이다. 자기 능력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능력이 계속 향상되면 일의 난도도 조금씩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인간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행복은 온전히 살아 있다는 신바람 나는 느낌이다.”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미국 심리학자

자녀들과 여행할 때 부모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억눌려 있었던

해외여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22년 연초에는 월 13만 명 정도 되던 해외출국자 수가 연말에는 130만 명으로 10배가 늘었다. 금년 들어서 1분기 해외출국자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5%나 늘었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는 호도 관광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는 호도 관광지로 좋은 곳들이 추천되어 있다. 한 예로서 여행 전문 사이트 익스피디아에는 호도 관광지 Best 5가 제안되어 있다. 베트남 다낭, 일본 오키나와, 일본 교토, 대만 타이베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그것이다. 부모들이 연세가 많으실 테니 비교적 가까운 베트남이나 일본이 주로 추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식들이 큰맘 먹고 부모님들을 해외 모시고 가는데 부모님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해외여행 갔을 때 해서는 안 될 금지어가 유포될 정도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는 20~30대인 MZ세대 학습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부모가 여행 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로서 가장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다(조사 기간: 2023. 7.12-7.18, 조사 방법, 인터넷 구글 설문지, 응답자: 240명 대상 중 58명(24.1%)).

금지어로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돈이면 집에서 해 먹는 게 낫다.
- ② 돈 아깝다.
- ③ 겨우 이거 보러 왔나?

그 외에도 MZ세대가 싫어하는 말 중에는 ‘한국 돈으로 얼마나?’ ‘아직 멀었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식당이나 메뉴 고를 때) ‘진짜 맛없다.’(현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등이 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여행할 때는 여행으로서 부모님들이 즐겨주는 것이 아닐까?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네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하라.”

-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자



한국말로 한국 가곡을 부르는 미국 음대 교수

2022년 10월 16일,

미국 미시간대 미술관에서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다. 미국인들이 한국의 가곡을 부르는 발표회였다. 미국인들이 한국어 가사 그대로 말이다. "봄 처녀 제 오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그런 가곡 말이다.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은 미시간대 음대 교수(피아노)인 매튜 톰슨(41)씨다. 그는 'K-가곡(K-Art Song): 한국 가곡 리사이틀'을 기획하고 사회와 연주까지 도맡았다. 톰슨 교수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한국인과 결혼도 했다. 그는 한국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한국에도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아름다운 가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가곡은 음악에 아름다운 시의 언어가 입혀지고, 피아노와 노래로만 이루어져 무대와 청중 간 교감도가 높다고 느꼈다. 그러나 미국의 음악교육이 너무 유럽 중심적이고, 한국인들조차도 한국 가곡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는 한국 가곡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하겠다고 생각했다. 한국 가곡 DB 구축이라는 학제 간 장기 연구프로젝트를 설계해서 연구비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미시간대의 음대, 공대, 한국학연구소 등이 협업하는 현재 진행형 프로젝트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DB는 현재 1천여 곡이 넘는 가곡을 담고 있다. DB에 들어가는 곡마다 외국 성악가를 위해 발음법과 번역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공연은 그 프로젝트의 중간보고 격이었다. 톰슨 교수는 이날 발표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명태'에 대한 에피소드도 소개하고 있다. 명태는 술안주로 먹는 생선이지만, 너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양명문 시인의 시에 변훈이 곡을 붙인 것인데 1952년 처음 발표되었을 때 엄청난 혹평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K-팝에서 시작된 한국문화 열풍이 K-가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아직 빛이 닿지 않은 곳에 빛을 쬐는 게 내 신념이죠.”

- 매튜 톰슨, 미 미시간대 음대교수(피아노)

학폭 재발률을 제로로 만든 곳



학교폭력이 날로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학교폭력에 대한 고민이 깊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이 시도하고 있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안성교육지청은 2022년 3월 교육지청에 ‘5279 학폭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했었는데 효과가 좋아, 2023년 3월부터는 이를 ‘5279 화해중재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조직 활동을 확대하였다. 우선 ‘5279는 5해 말고 2해하는 우리 79(친구)’라는 뜻이란다. 화해중재단에는 35명의 전문위원이 있다. 작년 25명에서 늘어난 숫자다. 전문위원은 변호사, 경찰관, 전·현직 교사, 시의회의원, 학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화해중재단이 즉각 가동하여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을 따로 만나 대화를 하여 상황을 파악한 다음 양측간 만남을 주선하여 갈등을 풀게 한다. 사실 학폭 문제도 인간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에 들어주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을 은폐하려 하거나, 범죄 사안으로 다루다가는 오히려 사태가 커지고 만다. 안성교육지청은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들어주고 노력을 하면 사람들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화해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과도 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학폭 사건은 대부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이 다시 충돌하게 되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겨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복잡하게 얽히기 일쑤다. 안성교육청 방식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준다. 담임선생님이나 학교가 나설 필요가 없고 말려들 염려도 없다.

안성교육청 화해단은 2022년 275번의 학폭 사건을 중재했다.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 학폭위로 가지 않고 해결한 사건이 전체의 73%다. 2023년에는 이 비율이 87.5%까지 늘었다. 특히 중재 이후 가해 학생이 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재발률은 ‘0%’라고 한다. 이전 안성시의 학폭 재발률은 17.5%였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화해를 중재하다 보면 부모들도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는데,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된다.”

- 임종철 교장, 팽택 비전고등학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시각장애인이 되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단 사흘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보고 싶은가?**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출생한 헬렌 켈러(1880-1968)는 생후 19개월 만에 성홍열과 뇌막염을 앓게 되었다. 병은 나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그녀는 평생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안고도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문필가로, 연설가로,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사업가로 살았다. 그가 53세에 쓴 수필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 있다.

그녀는 이 글에서 시각장애인인 자기가 단 사흘만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무엇을 보고 싶은지 정리한다.

헬렌 켈러는 첫째 날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것이라고 했다. 가장 먼저 어릴 때 자신을 찾아와 바깥세상을 알려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오직 손끝으로 얼굴을 더듬어 볼 수 있었던 친구들과 반려견을 보겠다고 했다.

둘째 날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어두운 밤이 밝은 낮으로 바뀌는 황홀한 기적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나마 인류의 진보와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원이 있는 집에서 엄마가 아이와 뛰노는 모습, 교차로를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뉴욕의 높은 건물들 그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친구가 숲을 다녀왔다 해서 헬렌 켈러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친구가 대답했다. "특별한 것은 없었어." 헬렌은 친구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질 수 없다. 그것들은 오직 마음속에서 느껴질 것이다."

- 헬렌 켈러, 청각, 시각장애인, 작가, 교육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앙투안 생텍쥐페리는

1900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에서 5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성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 그는 하고 싶은 것을 거의 하고 자랐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대담하고 저돌적이었다. 열 살도 되기 전에 하늘을 나는 기계(뚝이 달린 자전거)를 고안해서 타기도 했다.

그런 연유로 그는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가 되었다. 앙투안은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도 취미가 있었다. 그는 조종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 그러던 그가 2차 대전으로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그는 프랑스군 조종사로서가 아니라 작가로서 대접받았다. 이미 ‘남방 우편기’, ‘야간 비행’, ‘인간의 대지’ 등의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 비행은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1942년 어느 날 뉴욕의 한 카페에서 앙투안은 출판가 유진 레이날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앙투안을 버릇대로 테이블에 있는 종이에 어린아이 그림을 그렸다. 유진 레이날 씨는 이 어린아이를 주제로 글을 써줄 것을 앙투안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앙투안은 ‘어린 왕자(Le Petit Prince)’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가 삽화까지 그린 그 책 말이다.

‘어린 왕자’는 1943년 4월 6일 뉴욕의 레이날 앤드 히치콕 출판사에서 영어판과 프랑스어판이 동시에 출간되었다. 초판은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 책이 프랑스에서 프랑스어판으로 제대로 출판된 것은 1946년 4월이었다. 앙투안이 1944년 7월 31일 전투기 조종기를 다시 잡고 출격 한 후 실종된 후였다.

저자는 사라졌으나 ‘어린 왕자’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초판이 발행된 후 프랑스에서만 1,500만 부가 팔렸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도 548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어린 왕자 공식 홈페이지). 이는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다음으로 많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어린 왕자’는 왜 이렇게 많이 읽히는 것일까? 한때 우리 어른 모두는 순수한 어린이였으나 살아가면서 잊고 있는 그 어린이를 되찾아 주어서일까?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가져갈 단 세 권의 책은?

“당신이 무인도에 가게 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져갈 책 세 권을 고른다면 어떤 책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프랑스의 주간지 ‘르누벨 옵제르바퇴르 (Le Nouvel Observateur)’의 편집장이었던 프랑수아 아르마네(François Armanet)는 유명 작가들에게 설문을 보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다. 무려 196명의 작가가 이 설문에 응해주었으며, 아르마네는 그 결과를 2015년 책으로 펴냈다(번역본 ‘무인도의 이상적인 도서관’, 문학수첩, 2018).

어떤 작가는 “책이라고? 무인도에서? 뭐 하러?” 하고 탄축을 걸기도 했고(응우옌 후이 티엵), 성경과 셰익스피어는 제외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작가도 있었다.

이탈리아 작가 움베르토 에코는 “내가 섬에 이들을 머물러야 한다면 ‘르누벨 옵제르바퇴르’ 한 부로 충분할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만큼 오래 있어야 한다면 우리 집 서재에 있는 책 5만 권이 필요할 터다. 딱 잘라서 전화번호부로 하겠다. 그 많은 이름을 보며 무한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테니까.”라며 재치 있게 응수했다.

스페인 작가 에두아르도 멘도사는 이렇게 답했다. “차라리 익사하는 게 낫다. 독서란 많은 책을 읽을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 권만 가져가야 한다면, 나는 성경, 전쟁과 평화, 돈키호테를 선택하겠다. 돈키호테는 무궁무진한 책이다. 현대 소설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이다.

196명의 작가는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책을 골랐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마르셀 프루스트), 돈키호테(미겔 데 세르반테스), 율리시스(제임스 조이스), 수상록(마셀 드 몽테뉴), 천일야화(리처드 버튼 번역), 로빈슨 크루소(다니엘 디포) 등 말이다. 성경과 셰익스피어를 예외로 하고 말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전부를 영원히,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나머지는 어떤 하나보다도 더 나아 보인다.”

- 앙드레 지드, 프랑스 소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한국어 자격을 취득하겠다고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영어로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라 불리는 국가 공인 시험은 1997년 시작되어 그간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하다 2011년부터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1997년 첫째 2,692명으로 시작한 토픽 지원자 수는 2000년 초까지 연 1만 명이 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 크게 늘기 시작하여 10만 명을 돌파했고, 2015년에는 20만을 뛰어넘었다. 이 숫자는 꾸준히 늘어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37만을 초과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5%씩 늘어 3.7배가 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토픽 응시자가 21만 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 다시 반등하여 33만 명으로 늘었다. 응시자는 곧 2019년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교육부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2023년부터 인터넷으로도 보게 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과 해외에서 대면으로 시험을 치렀었는데 시험 횟수를 한 해에 여섯 번으로 늘리고 시험 보는 국가 수를 80개국 이상으로 늘렸어도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편하면, 응시자 수는 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토픽이 영어시험인 토익(230만 명)에는 많이 못 미쳐도, 일본어 시험인 JLPT(100만 명)에는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한국어 시험이 중시되면서 시험 내용도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없었던 말하기 시험이 추가된 것이다.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물론 한류 때문이다. 아니 한국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일 것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한글이 우수한 이유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글자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 동기, 창제 원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글자다.”

- 노은주, '한글이 우수한 수밖에 없는 열두 가지 이유' 저자



약국에서 약도 팔고 책도 파는 약국 서점

서점 중에는

책을 약처럼 처방해주는 곳이 있다. 고객의 니즈를 살펴 고객에게 딱 맞는 책을 추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봉투에 '읽는 약'이라고 적어 포장해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곳은 그냥 서점이다. 약국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진짜 약을 파는 약국에서, 정식 약사가 약 처방하듯이 책을 처방해주고 책을 파는 '약국 서점'이 있다. 서울 공덕역 근처에 위치한 '푸른약국.' 이곳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도 짓고 책도 판다. 약사 박홍룡(43) 씨는 201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안에 책방을 차렸다.

약국 한쪽 벽면을 차지한 서가에는 대략 1000여 종의 책이 있다. 박홍룡 약사는 원래 책을 많이 읽었다. 한 달에 3-4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들을 집에 쌓아놓기보다는 약방에 꽂아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읽고 싶었다. 처음에는 심리나 건강에 관한 책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와 소설이 많아졌다. 책을 팔다 보니 책을 찾는 단골도 늘었다. 박 약사는 단골들과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는 약학을 전공하고 본업이 약을 조제하는 일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약보다 책이 좋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가 고객들과 책 이야기를 하다가도 약사 손이 모자랄 때는 조제실에 들어가서 약을 짓는다. 그러나 그는 조제실보다 책장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책은 대부분 박 약사가 직접 고른다. 시는 제목을 보고 고른다. 그래서 '백날 함께 살고 일생이 갔다'(배영옥), '망할 놈의 예술을 한답시고'(찰스 부코스키) 같은 책도 골랐다. 소설도 본인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자신이 먼저 읽는다.

약국 안의 책방이라 오프라인 책 모임을 하긴 어렵지만, 박 씨는 출판사와 연계해 서평단을 꾸리고 책 이벤트도 가끔 한다. 참여자가 책을 추천하면 몰래 책을 깜짝 선물하는 이벤트도 있었다. 박홍룡 씨가 푸른약국 한편에서 운영하는 책방은 '아직 독립 못 한 책방'(아독방)이다. 독립하면 망할 것 같아 계속 아독방으로 남아있을 거란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마음 건강에 좋은 것은 약보다는 책이지요. 약은 중독되면 안 되지만, 책은 중독되어도 좋은 것 같아요."

- 박홍룡, 푸른약국 약사, '아직 독립 못 한 책방' 대표

나이 들어 대학 다니는 만학도가 늘고 있다



보통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은

24세 이전이다. 19세에 대학을 입학하여 남학생이 군에 갔다 온다고 해도 24세면 대학을 마칠 수 있다. 그래서 25세가 넘어 대학을 다니면 만학도(晩學徒)라고 한다. 최근 들어 만학도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만학도 입학생이 2019년 793명이었는데, 2022년 1,289명이 되었다. 이 숫자는 2024년에 2,589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만학도 입학생이 2016년 2만 명 정도였었는데 2022년에는 3만 2천 명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다 보니 대구의 한 전문대에서는 40명이 수업을 듣는데 모두 50대 이상인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 학교가 2023년 뽑은 신입생 10명 중 6명(66.4%)은 만 25세 이상이다. 8년 전 이 학교의 만학도 비율이 13.1%였다. 현재 50세 이상인 만학도만 그 비율이 19.3%에 이른다.

만학도가 많아지다 보니 학과도 만학도에게 맞는 학과가 만들어지고 있다. 풍수명리복지과, 사회적경제복지과, 시니어연기모델과, 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양조발효과 헬스융합복지과 등이 그런 학과다.

만학도가 이렇게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성인들의 학구열이다. 성인들이 수명이 늘고 건강하다 보니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는 욕구가 강해졌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 대학이 적극적으로 만학도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대학은 만학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만학도에게 50% 장학금을 주고 있고, 만학도의 입학에 쉽게 하려고 '평생학습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재학하고 있는 만학도를 학교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적극적으로 만학도를 유치하기도 한다. 평생 학습 시대가 이렇게 앞당겨지고 있는 것일까?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배움엔 나이가 없다.”

- 이주형, 2022년 2월 부산 동명대 수석 졸업(당시 89세)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올림픽이 있다는 걸 아세요?

코로나19로 인해 1년 늦어진 아시안 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16일간 펼쳐졌고 지난 10월 8일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인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이중 최고령 참가자는 임현 씨와 김윤경 씨로서 두 분 다 73세이고 마인드스포츠라 할 수 있는 브리지에 출전했다.

참가선수 전체로 볼 때, 최고령자는 캄보디아인 속텡 씨다. 그는 무려 84세로서 중국식 장기인 상치에 참가했다. 이런 고령자들은 예외에 해당한다. 마인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일이다. 올림픽, 아시안 게임 같은 스포츠 게임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의 잔치이다. 이번 항저우 대회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5.2세라 한다.

인생에서 신체적인 능력이 최정점인 나이는 아마도 20대 중반일 것이다. 그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경쟁 부문에 나가 기량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포츠에서 배제한다든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과 경쟁하라고 한다면 그건 또 불공평한 일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마스터스 애슬레틱스(World Masters Athletics) 대회다. 1966 미국에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육상경기가 열린 것이 호시가 되었고, 1975년에는 토론토에서 제1회 세계 대회가 열렸다. 지금은 세계 마스터스 애슬레틱스(WMA)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시니어 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2026년에는 세계 마스터스 애슬레틱스가 대구에서 열린다고 한다.

마스터스 애슬레틱스 대회의 참가자 나이는 35세 이상이며, 남녀를 나누고 5세 단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진기록이 나오고 있다. 남자 100세 그룹 100m 달리기에서는 미국인이 26.99초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105세 그룹에서는 폴란드인이 34.50초를 기록했다. 여자 100세 그룹 100m에서는 줄리아 호킨스라는 미국인이 39.62초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분이 4년 후 105세 그룹에서도 기록을 만들었다. 비록 1분 02초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백세인들이 엄청난 기록을 내고, 그것을 또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인 체력 개발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 박상철,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평가를 왜 타이어 회사에서 할까?



어떤 음식점이 좋은 음식점일까?

식당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세계 미식가들이 인정하는 평가는 미쉐린 스타이다.

미쉐린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전 세계의 레스토랑 중 특별한 레스토랑을 골라 별을 부여한다.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한(very good) 식당’이고, 별 둘(**)은 ‘요리가 뛰어나서(excellent)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이며, 별 셋(***)은 ‘요리가 탁월하여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충분한 식당’이다. 미쉐린 평가에서는 식당의 분위기나 서비스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음식에 대한 평가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스타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은 총 35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쓰리 스타는 ‘모수’(이노베이티브: 창작요리)라는 식당 하나이다. 7년 연속 쓰리 스타를 유지해온 한식당 가온은 문을 닫았다.

그런데 미쉐린 스타를 발표하는 곳이 타이어 회사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 타이어 회사가 생뚱맞게 식당 평가를 하게 되었을까? 미쉐린(Michelin: 프랑스어로는 ‘미슐랭’에 가까움)은 1889년에 앙드레 미슐랭과 에두아르 미슐랭 형제에 의해 설립된 타이어 회사이다. 이들은 세계 최초로 탈부착식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었으며, 공기가 없어도 한참을 달릴 수 있는 현대적 타이어인 래디얼 타이어를 발명한 회사이다.

이 회사에서 1900년부터 여행안내 책자를 만들어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 주었다. 이것이 ‘미쉐린 가이드’가 된 것이다. 이 가이드는 인기가 높아 1922년부터는 유료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초록색 일반 가이드북(그린 가이드)과 붉은색 식당 가이드북(레드 가이드)이 분리되게 되었다.

이 가이드북이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평가의 엄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원들은 모두 엄격히 선발된 회사 직원이며,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음식에 대한 사랑처럼 진실한 사랑은 없다.”

- 조지 버나드 쇼, 영국/아일랜드 작가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 그리고 언제든학교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많다. 그중에도 이름도 특이한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 그리고 언제든학교가 남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누구나학교는 2012년 문을 열어 역사가 가장 길다. 이 학교는 누구나 자기 학교를 열어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본인의 취미나 지식 그리고 생활의 지혜를 누구나학교에서 시민들과 나눌 수 있다. 캘리그래피를 하는 분이 이를 소개하는 학교를 열기도 하고, 명심보감으로 1년간 공부하는 학교를 운영하기도 한다. 누구나학교 개설은 강사료가 없는 재능기부다.

뭐라도학교는 5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나누고, 뭐라도 즐기고, 뭐라도 행하자”라는 모토로 2014년에 만든 학교다. 이 학교에서는 10주짜리 입문과정(초기에는 인생학교)을 운영하여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한다.

여행동아리, 독서모임, 전래놀이 사업단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시니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며, 연극단에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언제든학교는 2022년 초에 만들어진 최신 학교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습모임 활동이 침체되어 있을 때 이를 살리면서 시민주도 학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스로 연구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시공을 초월하고, 강사와 학습자 간의 벽을 허무는 시민 학습기획자들이 언제든학교에서 배출되었다.

언제나학교의 이러한 시도가 인정을 받아, 2023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과거 누구나학교가 특별상(2014)을, 뭐라도학교가 우수상(2016)을 받은 것에 이은 또 하나의 영광이고 선물이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언제든학교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뭐든 도전해보게 돼요.”


- 동화책 읽는 어른들의 수다' 운영자들


배우러
와 총 모음집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처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981번길 2(우만동)

 <https://www.youtube.com/channel/UCEnLv-bODHfRETFg7a14MUQ>

 <https://blog.naver.com/sweduclip>

 <https://www.facebook.com/suwonedu>

 https://www.instagram.com/lifelong_learning_suwon/

 <https://learning.suwon.go.kr/main.asp>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Suwon Global Lifelong Learning Center